
파라과이 PPP 진출 가이드

머 리 말

본 PPP 진출 가이드 시리즈는 2020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 제작되는 것으로, 해외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주 확대를 염원하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동남·서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럽 1개국(튀르키예), 남미 2개국(파라과이, 칠레), 아프리카 1개국(케냐) 등 PPP 진출 유망국 10개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간에서는 튀르키예와 칠레를 신규 국가로 선정해 시리즈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도 발간 국가를 확대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가이드에 담긴 정보는 KIND 해외인프라협력센터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국가별 정보 및 최신 동향, 사업 환경과 PPP 주요 제도, 진출 사례 및 인적 정보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진 엔데믹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대외여건이지만 본 가이드와 함께 올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강훈

목 차

Executive Summary	3
I. 국가 개요	10
1. 국가개관	10
2. 정치행정제도	22
3. 경제개관	29
4. 주요사회개발지표	38
5. 파라과이와 한국의 지리정치적 관계	52
6. 투자 인센티브	60
II. 환경분석	66
1. 정치 동향	66
2. 경제 동향	76
3. 사회 동향	96
4. 산업 동향	103
5. ESG 관련 동향	117
III. 사업 여건	123
1. 인프라 여건	123
2. 한국 투자 현황	130
3. 주요 PPP 사업 전망	137
4. 아웃소싱 예측 현황	151
5. PPP법 제5102/2013호에 따른 자금 조달 인프라 프로젝트	152
6. 에너지 분야 투자기회	154
IV. PPP 법적 프레임워크	163
1. PPP 법적 프레임워크 및 주요 기관	164
2. 파라과이의 일반적 PPP 구조	165
3. 외국인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171
4. 세금제도	189
5. 노동 관련 법	196
6. 인적자원 정보	200
V. 사례연구	202
1. 프로젝트 사업 현황(EPC, PPP, 비즈니스 등)	202
2. 사업 성공 및/또는 실패 요인	203
VI. 현지 주체 및 PPP 참여 역량	209

Executive Summary (파라과이)

□ [국가개요]

-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
- 파라과이 강을 통하여 대서양 진출이 가능함. 대한민국과 지난 1962년 수교 이래로 60개 이상의 협력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음

□ [정치·경제·사회 동향]

- 2004년 이후 외국인 투자의 보호 및 인센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제정과 지속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거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9년 경제 성장이 정체된 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2020년 GDP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 극복 이후 연 4%대의 회복을 예상하나 세계 경제시장 정상화 여부에 따른 부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남미 주요 경제 교역국들의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산업인 농업이 타격을 받았으며, 물가 상승에 따라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 및 외화보유고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을 펼침

□ [사업여건]

- 사업 이익의 송금 및 외국 자본 회수에 대하여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수출입 및 행정처리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남미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파라과이에 투자해옴
- 지난 7년 동안 인프라 사업에 10억 달러 투자를 이뤄냈고 이는 WB, IDB, CAF 등의 MDB와 해외 자금조달 등으로 시행됨
- 공공인프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예산 제약 문제와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함

□ (PPP 제도)

- 파라과이는 2014년 3월 “국가의 공공기반시설 투자 촉진 및 재화 서비스 확대에 관한 법률” (Law No. 5.102/13) 제정을 통한 인프라 투자격차 해소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

□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 COVID-19 팬데믹 극복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정상화되어 인프라 사업 활성화 방안 재개 필요

□ (종합)

- 현재 파라과이는 외국 투자에 대한 개방적인 경제 기조이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며,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은 이웃 남미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고, 2021년에는 4%의 성장이 예상됨
- PPP 법률체계는 최근 사업 사례 등을 바탕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인프라·에너지·위생보건 분야에 대한 PPP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됨

개 요

□ 개 론

-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국토가 육지로 둘러싸인 유일한 2개 국가들(볼리비아, 파라과이) 중 하나
- 파라나-파라과이 수로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을 가지고 있으며, 인접한 파라나 강 또한 많은 항구들을 가지고 있음
- 대한민국과 파라과이는 1962년 6월 15일에 외교관계를 구축
 - 파라과이는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순시온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음
 - 파라과이에는 약 6,000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1964년부터 1988년까지 파라과이의 반공 정책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는 좋은 정치적 유대가 특징
 - 외교관계가 구축되기 전에 파라과이는 1951년 한국전쟁 중 대한민국에 중요한 지원으로 가까워진 11개국들 중 하나였음
 - 대한민국은 파라과이와 수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다양한 부처들 및 기관들과 다양한 종류의 60개 프로그램을 수행
 - 협력 프로그램 중 24개는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유행병과 관련된 공공보건 정책

□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동향

- 현재 1992년 국가헌법은 파라과이 공화국이 자유독립국이라고 선언
 - 단일하고, 분할할 수 없고, 분권화된 법의 사회적 국가로 구성되며,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함
 - 1990년 이후,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 정부의 변화, 2004년 이후 외국인 투자의 보호 및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법률, 재정 건전성 라인 등은 연간 4%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함

- 지난 15년 동안 견실한 경제 성장과 놀라운 수준의 거시경제적 안정을 달성한 파라과이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다중 제약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
- 절대 빈곤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12%에서 4%로 감소했으며, 전기, 위생 개선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확산되고 있음
- 파라과이의 조세 및 혜택 시스템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지만, 지역 및 OECD 기준에 따르면 낮은 수치인 2% 미만까지 불평등을 감소시킴
- COVID-19 전염병은 파라과이가 2019년에 성장이 멈춘 후 강력한 회복 경로를 시작하는 동안 파라과이를 강타함
-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20년에는 GDP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은 4%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글로벌 시장의 예상보다 느린 정상화의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빈곤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

□ 사업, 산업 동향

- 국가의 사업 환경은 국내외 생산적인 투자에 유리하며 이윤 송금 및 외자 반환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됨
- 파라과이는 전체 역사에서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민간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파라과이의 사업 환경은 조세 제도의 간소화와 사업 창출 및 수출, 수입 및 이익 송금 및 부채 상환의 처리 과정 모두에서 크게 개선됨
- 이것은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마킬라 체제 하에 많은 산업 회사들의 설립을 선호했지만 일본, 한국 및 독일 회사들의 투자도 기록되었음

- 7년 동안 국가는 인프라 공사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2019년에 달성했고 팬데믹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거의 달성했음
-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 리버 플레이트 유역 금융개발기금 및 남미공동시장 구조수렴기금과 같은 다자간 기관들의 국제 자금과 한국, 일본, 스페인 및 미국과 같은 국가의 직접 자금 조달로 수행됨
- 다자간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파라과이와 외국 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임
- 공공 인프라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 예산 제약 및 관리 효율성 문제를 고려해, 과거 두 정부는 현재 PPP로 알려진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운영모델을 구현함

□ **민관협력사업 체제(PPP 프레임워크)**

- 2014년 3월 12일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법률 제5.102/13호와 규제 법령 제1350호가 제정됨
- 정부는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할 경쟁력과 생산성을 달성하고 국가의 인프라 투자격차를 줄이기 위한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
- PPP법의 제정은 파라과이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 및 국내 자본 모두를 위한 기회의 틀을 구성하며, 강력한 정책과 개혁은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켰음
- 이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순시온과 센트럴을 시우다드 델 에스테와 연결하는 거의 200km의 국제노선을 개발하는 오직 한 개의 프로젝트만이 달성되었음

□ 사업 성공 및/또는 실패 요인

-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경험과 실패한 경험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적용되기 시작한 일련의 학습 교훈을 제공했음
 -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정상화되고 보건 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재개해야함

□ 종 합

- 파라과이는 개방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며, 투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틀을 가지고 있음
 - 2020년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이웃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었고 GNP는 1%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4%의 성장을 예상함
 - 최근 제시된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실패한 프로젝트의 경험의 결과로 PPP 법적 틀이 개선되고 있음
 - 교통, 에너지 및 위생에 관한 PPP 프로젝트로 수행될 몇 가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존재함

서 문

이 보고서의 목적은 파라과이에 대한 관련 정보, 상황 분석, 사업 여건,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법적 프레임워크, 사례 연구 및 민관협력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행위자들과 참여자들의 식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정보를 찾아 가장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 영어로 번역한 후 해당 장에 배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보가 매우 광범위할 때(2장과 3장) 요약이 초안되고 삽입되어 독자들이 그 장에 관심 있는 뉴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법적 프레임워크의 장은 민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의 개발을 따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 작업이 KIND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유롭게 필요한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팀:

Dr. Manuel Benitez Cudas(마누엘 베니테즈 코다스 박사)

Mcs. Ruht Bareiro(루트 바레이로 석사)

Dr. Oscar González(오스카 곤살레스 박사)

Ing. Iman Khozouee(이만 코조에 엔지니어)

I. 국가 개요

1 국가개관

□ 파라과이 개관

-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임
- 동맹과 연합은 세계화에서 통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필수적이고, 각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

□ 국호 유래

- “파라과이” 라는 국호는 북에서 남으로 이 나라의 중심을 지나는 파라과이 강에서 유래
- 과라니어로 말로 번역하면, Para는 ‘여러 색깔의’, Gua는 ‘~에서, ~에 속하는, 장소’, Y는 ‘물, 강 혹은 호수’ 를 뜻함
- ‘강물의 여러 색깔’ (가령 햇빛이 수면에 비친 색이나 물가의 앵무새)이란 뜻

□ 국기

- 1842년 채택된 파라과이 국기는 앞 뒷면 중앙  그림이 다른 2:3 비율의 적·백·청의 가로 삼색기
- 앞면 중앙에는 ‘파라과이 공화국’ 이라는 글자와 올리브 및 야자수 가지로 별을 감싼 원 모양의 국장(國章)이 그려져 있음
- 뒷면 중앙에는 ‘평화와 정의’ 라는 글자와 함께 자유의 모자와 사자가 있는 국고(國庫)의 인장이 그려져 있음
- 2013년 7월 15일 대통령령을 통해 기존 앞뒤 문양 중 글자 부분 적색 띠, 중앙의 별을 감싸던 청색 원을 없애고, 글자 색을 황색에서 흑색으로 변경
- 적색 : 정의, 백색 : 평화, 청색 : 자유
- 중앙의 별 : 행운
- 올리브가지 : 평화
- 야자수가지 : 영광 (출처: 외교부, 파라과이 개황)

□ 사회, 경제, 정치 및 지리적 개요

○ 지리

- 파라과이는 남위 19° 18'과 27° 36' 사이에 위치하며, 서경 59° 19'와 62° 38' 사이에 위치
- 시간대는 GMT - 4 이며 대한민국 시간 GMT+9는 파라과이 보다 12시간 또는 13시간 빠름(즉, 파라과이는 국제 표준 시간보다 4시간 늦음)
- 파라과이는 파라과이 강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동부 파라과이(Paraguay Oriental) 혹은 파라네나(paraneña))와 서부 지역(공식적으로는 서부 파라과이(Paraguay Occidental) 혹은 차코(Chaco))으로 나뉨
- 두 지역은 식물군, 동물군, 기후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름
- 지형은 동쪽에는 초지와 숲이 울창한 언덕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저지의 습지 평야
- 기후는 온대 기후로, 동부 지역은 강수량이 상당하나 서쪽 끝으로는 반-건조 기후를 보임

○ 전력

- 남동부 국경은 파라나 강이며,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 이타이푸 발전소가 있고 이 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로 파라과이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공급
-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이타이푸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댐 전력에서 50%의 권리를 가짐
- 파라과이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의 15% 정도만 소비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력은 브라질에 판매함
- 파라나 강의 다른 거대 수력 발전소로는 야시레타 댐이 있는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공유하고 있음

○ 수도

- 수도는 아순시온으로 인구의 98%가 파라과이 강 동쪽에 살고 있음
- 아순시온은 중앙부를 구성하는 19개 지방 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지역은 인구의 37%를 차지
- 다른 주요 도시들은 시우다드 델 에스테, 엔카르나시온, 페드로 후안 카발레로, 살토 델 과이라, 콘셉시온, 코로넬 오비에도 등이 있음
- 첫 네 개 도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지속적인 상업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도

- 파라과이는 민주, 3개의 부로 구성된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진 법치 사회 국가
- 행정 구역은 17개 주로 나뉘며, 각 주는 주지사과 주 위원회가 관할하며, 각 구역에는 지자체 시장과 지자체 시 위원회가 이끄는 지방정부가 있음

○ 교통

- 파라과이에는 공항도 잘 발달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 국도 제1호선, 국도 제2호선, 국도 제3호선 등이 주로 관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파라과이 거시적인 데이터

공식명칭	파라과이 공화국
수 도	아순시온(Asunción), 약 52만명 거주
정치적 구분	17개 행정구역 및 수도 구역
면 적	406,752km ² (한반도의 1.8배)
공식언어	스페인어 및 과라니어(Guarani)
통 화 환 율	과라니(Guarani, PYG) USD=PYG7,142.86(2022.12.26.)
인구	735만명(2021, 통계청, 외교부) 722만명, 세계은행(2021)
종교	공식 국교 없음, 인구 90%가 카톨릭.
정부제도	대통령 공화국
대통령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2018-2023)
문해율	94.7% (출처: CIA)
실업률	6.9%
1인당 GDP	5,282달러(2021년, 세계은행) 5,368달러(2022년 추정치, 세계은행)
GDP	389.9억불(2021년, 세계은행) 401억불(2022년 추정치, 세계은행)
외채	114억 달러(2021년), 117억 달러(2022년 4월)
주요 도시	시우다드 델에스테(32만명), 산로렌조(23만명), 카피아타(20만명) 람바레(12만6천명), 페르난도 델라모라(12만명)
7대 지역별 인구	Departamento Central(153만명) Departamento del Alto Paraná(61.8만명) Asunción(54.2만명) Departamento de Itapúa(48.4만명) Departamento de Caaguazú(45.9만명) Departamento de San Pedro(33만명) Departamento de la Cordillera(23.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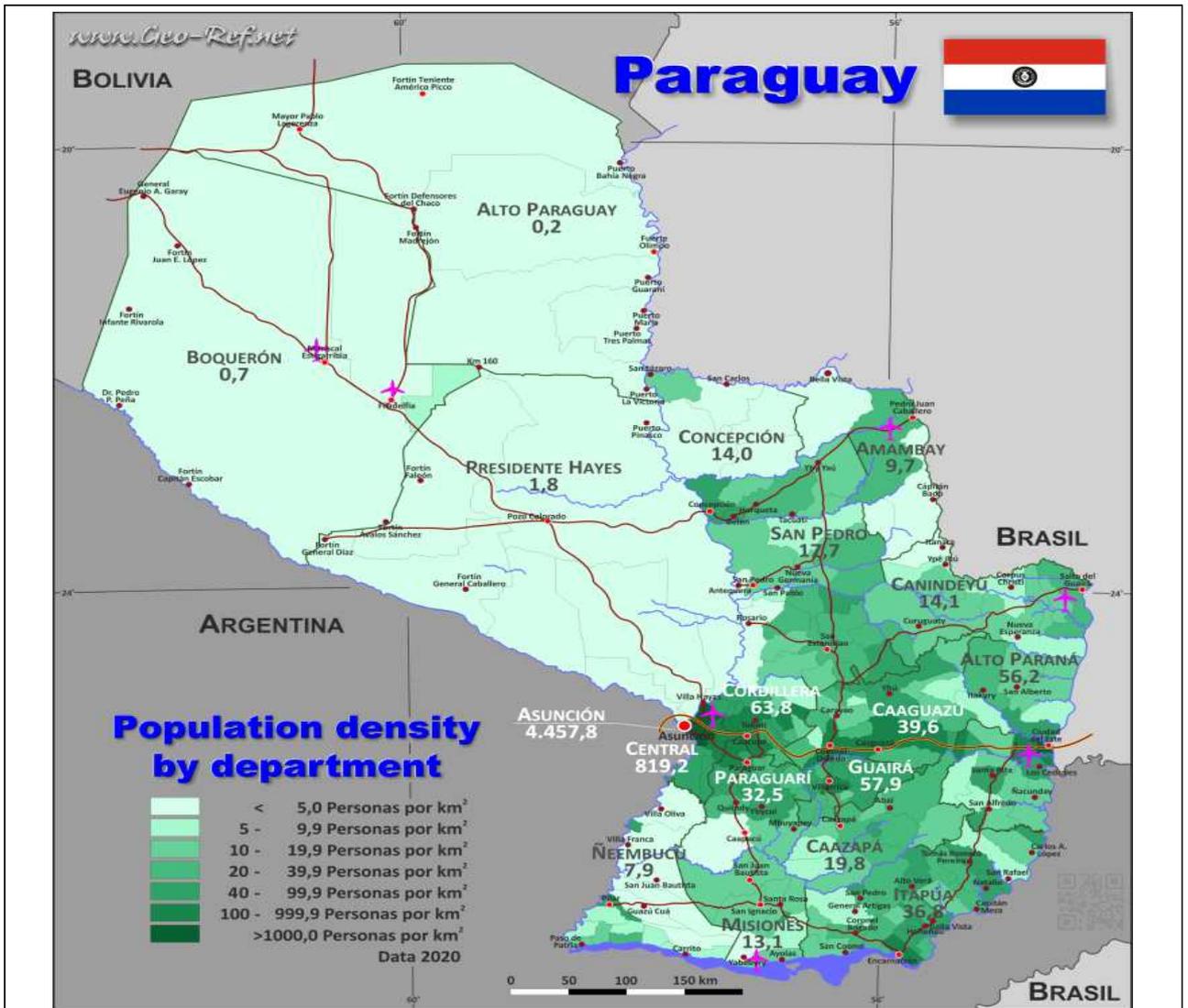


그림 1: 국가지도 - 행정구조 - 파라과이 인구 밀도. 값들은 2020년 추정치 기준임

□ 기후

- 연평균기온은 24.5°C
- 남동부는 열대 우림이 울창하고 토양이 비옥한 데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농목축업이 발달하여 전체 인구의 96%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북서부는 완전한 평원이지만 비가 불규칙하게 내릴 뿐만 아니라, 건조한 초원과 밀림으로 덮여 있고 투수성이 강한 사력층으로 이루어진 불모지대
- 미국계 석유회사들은 이 지역의 석유채굴권을 획득하였으며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있음



□ 서쪽 지역

○ 강우

-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름이며, 지역 대부분의 강수량은 약 400mm에서 600mm 수준
- 가을과 봄에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350mm에서 250mm 정도 비가 내리고, 가장 건조한 계절은 겨울이며, 이 지역의 남동쪽은 250mm, 차코 북서쪽은 75mm까지 비가 내림

○ 기온

- 평균 기온은 28°C에서 30°C 정도이며, 가을에는 평균 기온은 22°C에서 26°C 정도이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변함. 겨울 평균 기온은 18°C에서 22°C 정도
- 여름 평균 기온은 남에서 북으로 24°C에서 30°C 수준
- 봄과 가을에는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평균 기온은 남에서 북으로 22°C에서 24°C 사이
- 겨울에는 중부 및 남동쪽에서 약 16°C, 18°C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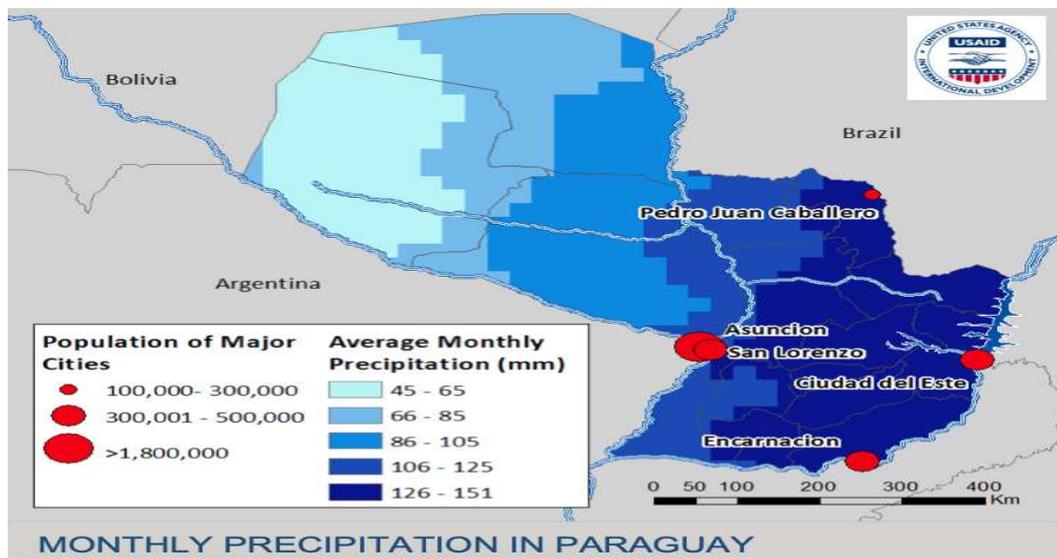


그림 3: 파라과이의 월별 강우량

□ 동쪽 지역

○ 강우

- 여름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모두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서, 총강수량은 400mm에서 600mm 수준
- 이 강수량의 범위는 특히 언급된 지역의 중앙, 동쪽, 북동쪽, 남동쪽에 위치한 부서에서 가을과 봄까지 평균적으로 유지됨
- 겨울에는 30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는 극 남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5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임

□ 언어

- 공용어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로, 과라니어는 파라과이의 뿌리가 되는 토착민들의 유산임

□ 인구

- 인구는 세계은행 2021년 기준 722만명, 외교부 2021년 기준 735만명, 2022년 추정인구 740만명
- 파라과이는 역사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인정한 나라이며, 현재 브라질인, 독일인, 일본인의 거주지가 번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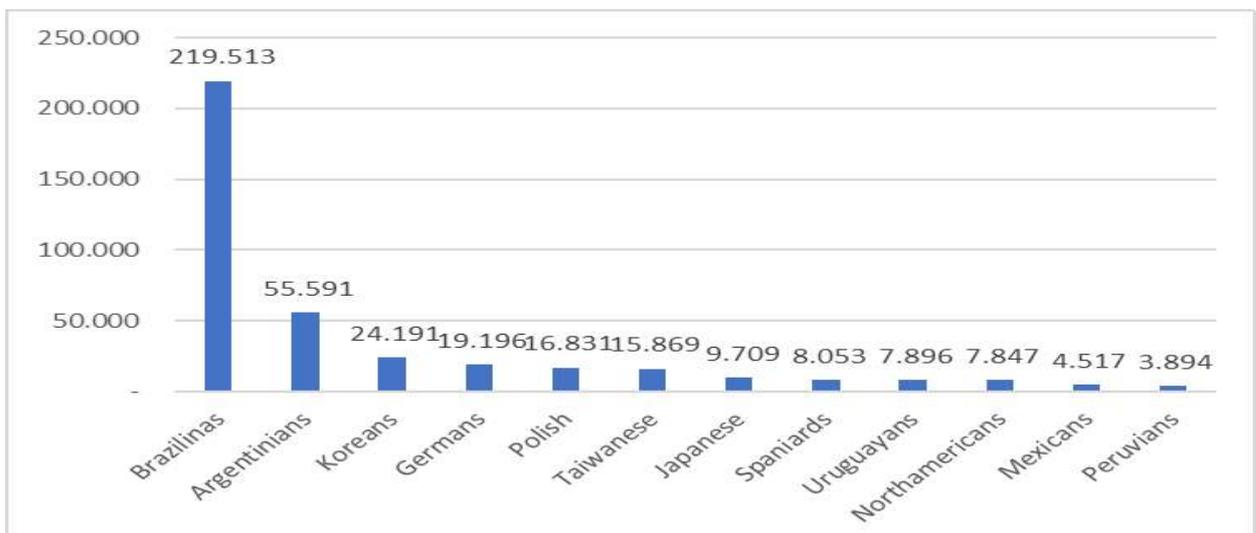


그림 4: 파라과이의 주요 외국인들(출처: 통계조사총국 2019)

- 2019년 통계조사센서스총국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절반은 26세 이하임
- 비록 어린이와 젊은 인구의 비율보다는 더 느리지만, 노인 인구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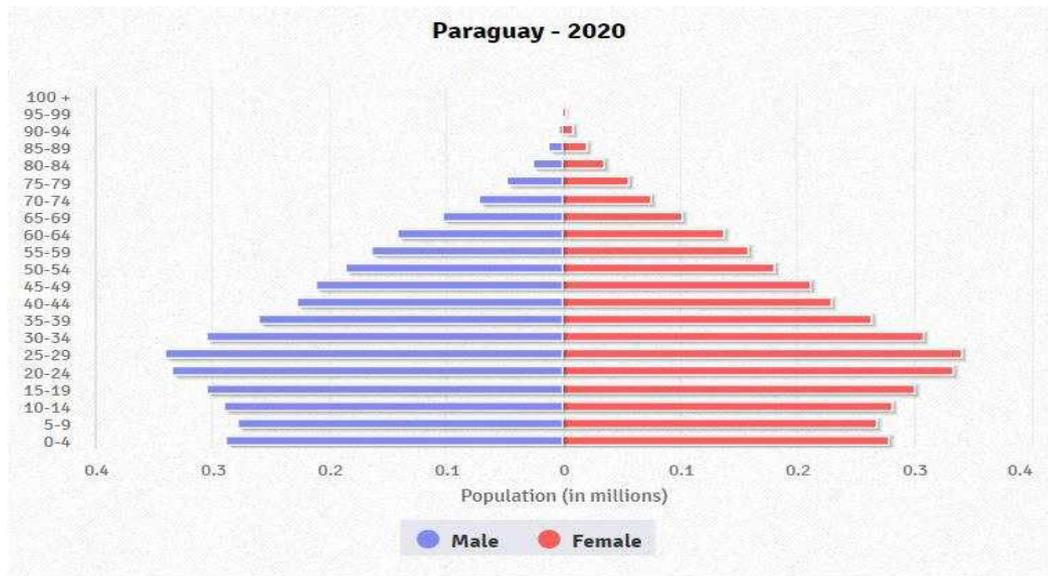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인구분포

- 0-14세: 23.41% (남성 857,303/여성 826,470)
- 15-24세: 17.71% (남성 640,400/여성 633,525)
- 25-54세: 42.63% (남성 1,532,692/여성 1,532,851)
- 55-64세: 8.37% (남성 306,100/여성 295,890)
- 65세 이상: 7.88% (남성 267,351/여성 299,103) (2020년 추정)
- 중간 연령: 29.7세
- 2019년까지 파라과이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4%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약간의 감소를 경험했고 2024년에는 연간 1.33%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취업자와 실업자(현재 실업자)로 구성된 총노동인구는 3,555,774명(71.2%)

□ 종교와 이데올로기

- 국가 헌법은 종교와 예배, 이데올로기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정된 것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음

□ 민족집단

- 파라과이인의 90% 이상이 황인종계인 파라니족 등의 인디오와 페인인 사이의 혼혈(메스티소)
- 현재 파라과이 국경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파라과이 인구의 1.78%에 해당하는 122,461명으로 구성된 5개 어족에 속한 19개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파라니어족과 아요레오족 원주민들은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기 위해 조상들의 영토를 이용하여 국경을 종종 넘어 다님

□ 어족

- 자무코(Zamuco): 아요레오(Ayoreo), 이시르(Yshir), 토마라호(Tomarahó)
- 마타코(Mataco): 니박레(Nivaclé), 마카(Maká), 마뉴이(Manjui)
- 엔렛(Enlhet)-에넨렛(Enenlhet) (마스코이,Maskoy): 엔렛(Enlhet), 엔셋(Enxet), 구아나(Guaná), 사나파나(Sanapaná), 안가이테(Angaité), 에넨렛(Enenlhet) (토바 마스코이,Toba Maskoy), 마스코이(Maskoy).
- 구아이쿠루(Guaicurú): 콤(Qom), 파라니(Guaraní): 파라니(Guaraní) 옥시덴탈레스(Occidentales), 파라니 난데바(Guaraní Ñandeva), 파이 타비테라(Paí Tavyterã), 음브야(Mbyá), 아바 파라니(Avá. Guaraní), 아체(Aché)

□ 역사

- 식민지배 전후
 -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파라과이는 숲이 우거졌고 비옥한 땅이었으며, 半유목 생활을 하며 파라니어를 쓰는 부족들이 살았음
 - 1525년 에스파냐 출신 A.가르시아가 파라과이에 처음 발을 들인 이래로 1536년부터 식민지화를 시작함

- 1537년 8월 15일 아순시온에 에스파냐 탐험가 후안 데 살라사르 이 에스피노사가 정착지를 건설(에스파냐 식민지의 지방 중심지)
- 예수회 공회가 설치되어 150여년간 번성했으나 1767년에 에스파냐 왕가가 예수회를 추방함
- 파라과이는 1811년 5월 14일에 에스파냐 지역 정부를 전복하고 독립을 선언

○ 독립 이후

-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를 중심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단행
- 그의 아들 C.A.로베스는 외국자본을 들어오게 하여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삼국 동맹 전쟁에서 5년간 전쟁 끝에 1870년에 대패,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음
- 파라과이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하였으며 남자 인구의 90%에 달하는 인구가 이 전쟁을 목숨을 잃어 수많은 전쟁미망인이 양산되기도 함
- 이후 친 아르헨티나, 친 브라질로 대립하다가, 1930년대 차코 전쟁에서 볼리비아를 격파, 파라과이는 차코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되찾았으며, 평화의 대가로 영토를 일부 수복함

○ 스트로에스네르 정권과 민주화

- 1949년 콜로라도당의 페데리코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5년 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장군의 쿠데타로 정권에서 물러남
- 새 대통령 스트로에스네르는 군사 독재정치를 실시했으며, 반대자를 탄압하고 파라과이에서 쫓아내는 등 가혹한 통치를 진행, 또한 부정선거를 통해 무려 7번이나 재당선됨
- 1980년대 후반 아들인 구스타보에게 세습을 시도하다가 이에 분노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의 쿠데타로 추방당함

- 새 대통령 로드리게스는 민주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스트로에스네르와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1992년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음
- 결국 자신이 지지한 와스모시 몬띠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로써 차베스 이후 39년 만에 민정을 복귀하는 데 성공함
- 1998년 라울 꾸바스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아르가냐 부통령의 암살과 오비에도 장군의 권력남용 등에 대한 책임으로 7개월만에 파면당함
- 1999년 곤살레스 마끼가 권한을 승계받았지만, 뇌물수수와 국가이미지 실추 등으로 지지율을 잃었음
- 2003년 새로 선출된 니까노르 두아르떼는 부패추방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나, 경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지지율을 지키지 못함
- 2008년 페르난도 루고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61년 만에 좌파정권 복귀를 이루었음
- 하지만 무토지 농민 시위의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루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2년에 페데리코 프랑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 2013년 8월 15일 오라시오 카르테스가 당선되어, 5년 만에 콜로라도당 정권 교체를 따라 복귀하게 되었음
- 역사가와 교육자, 정치가들은 파라과이 역사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음
 - 파라과이의 역사적 사건, 특히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서술은 나라에 따라 상이함
 - 콜로라도당과 자유당은 파라과이 역사의 독특한 공식 서술을 유지함
 - 1869년 아순시온 점령 당시 브라질 제국군은 파라과이 국립 문서기록소 자료를 찾아 히우지 자네이루로 가져가 공개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파라과이의 식민 시대와 초기 역사를 연구하기는 힘든 상황
 - 파라과이의 역사는 공산주의 정부와 정치적 불안정과 내분, 이웃나라와의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음

2 정치행정제도

- 파라과이의 헌법은 1811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1992년 6월 20일에 현행 신헌법이 발효됨
 -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5년 단임제
 -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 45석, 하원 80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회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상원은 전국구 비례대표제, 하원은 지방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
 - 주요 정당으로 현 여당인 홍당(PC)과 야당인 급진 정통 자유당(PLRA) 등이 있음
 - 대외적으로 파라과이는 반공·자유주의 국가와의 제휴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함
 - 중남미 여러 나라, 특히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친서방 반공 국가였음
 - 1989년 로드리게스(Rodriguez) 대통령 집권 이후 소련 해체 등의 여파로 공산권이었던 동구권과도 외교관계 수립하였음
 - 미주기구(OAS), 리오그룹 등 역내 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중시하고 있음
 - 1991년 3월 남미공동시장의 출범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역내 회원국과 제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볼리비아, 칠레 등 인접국과 선린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 1992년 현재 국가 헌법은 파라과이 공화국이 자유 독립국이라고 선언. 법치의 사회 국가, 단일화, 분할 불가, 분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적, 다원적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지방행정 : 17개 주정부로 구성

- 파라과이는 17개 행정 구역으로 나누며, 서부지역에 3개 행정 구역과 동부지역에 14개 행정 구역임

번호	주명	주도
1	Concepcio'n	Concepcio'n
2	San Pedro	San Pedro
3	Cordillera	Caacupe
4	Guaira	Villarrica
5	Caaguazu	Coronel Oviedo
6	Caazapa	Caazapa
7	Itapu'a	Encarnacio'n
8	Misiones	San Juan Baustista
9	Paraguarí	Paraguarí
10	Alto Parana	Ciudad del Este
11	Central	Aregua
12	Neembucu	Pilar
13	Amambay	Pedro Juan Caballero
14	Canindeyu'	Salto de Guaira
15	Presidente Hayes	Villa Hayes
16	Alto Paraguay	Fuerte Olimpo
17	Boquero'n	Filadelf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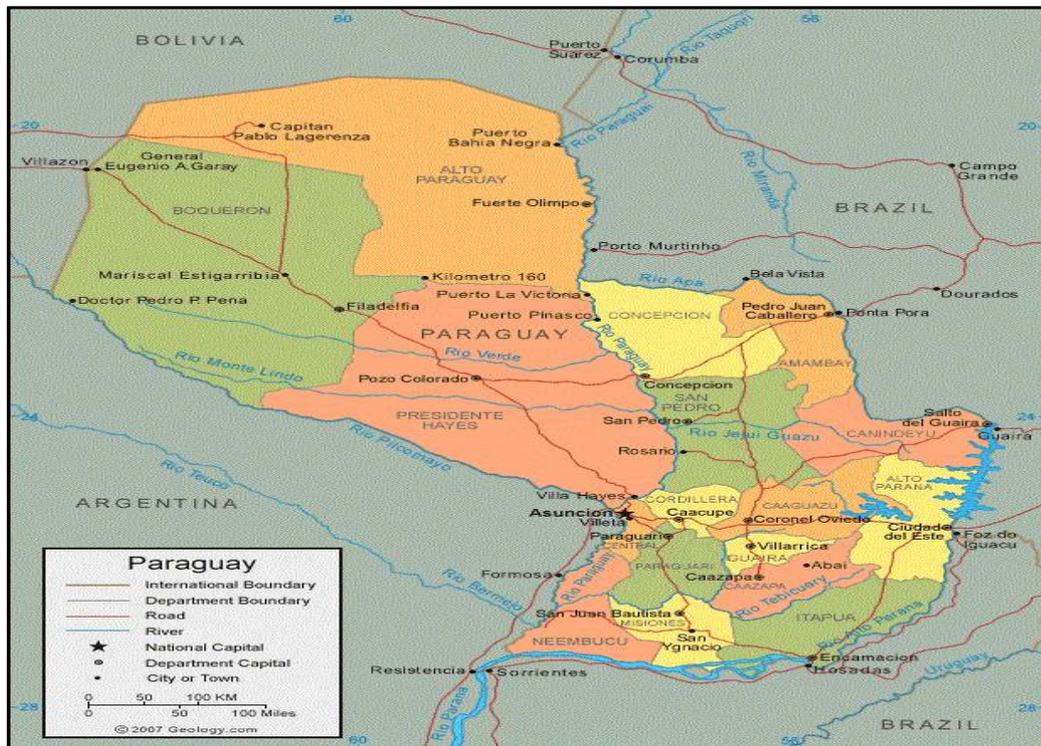


그림 6: 파라과이의 행정 구역 지도

□ 국가 형태

-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3개 부로 구성된 정부로 법치에 따른 민주, 사회 국가임
 - 1992년 현재 국가 헌법은 파라과이 공화국이 자유 독립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음
 - 법치의 사회 국가, 단일화, 분할 불가, 분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적, 다원적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정부형태 : 대통령제(임기5년, 단임제)
- 주요인사
 - 대통령 : Mario Abdo (마리오 압도) (2018.8.15 취임)
 - 외교장관 : Euclides Acevedo (에우클리데스 아세베도) (2021.1.25. 취임, 2022.05.03 사임) → 훌리오 세사르 아리올라 (Julio César Arriola) (2022.5.3. 취임, 현재 근무중)
- 의회구성 : 양원제
 - 상원 : 45석(임기 5년), 하원 : 80석(임기 5년)

□ 정부 수준

- 행정부
 -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 부통령 및 각 부처(아래에서 지정)에 의해 구성됨
- 입법부
 - 국회로 구성되며 이는 상원, 하원 등으로 세분화 됨
- 사법부
 - 치안 판사 위원회, 대법원, 치안 판사 기소를 위한 배심원단, 국방부 및 선거 사법 고등법원에 의해 구성됨

□ 주요 부처들

- 농림축산부
- 국방부
- 사법부
-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부
- 여성부
- 아동청소년부
- 교육과학부
- 노동고용사회보장부
- 국립과학기술위원회
- 정보통신기술부
- 사회개발부
- 국립문화예술기금
- 파라과이 국립 원주민 연구소
-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부
- 재무부
- 산업무역부
- 내무부
- 이민국
- 외무부
- 공공사업 통신부

□ 정당

- 파라과이의 25개 정치 정당이 있으며, 주요 정당은 전국공화당 (ANR)과 정통급진자유당(PLRA)이 있음
- 전국공화당
(National Republican Association - Asociación Nacional Republicana (ANR))
- 정통급진 자유당
(Authentic Radical Liberal Party - Partido Liberal Radical Auténtico (PLRA))
- 페브레리스타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Febrerista (PRF))

- 연대국가당(Partido País Solidario (PPS))
- 기독교 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DC))
- 국가윤리 시민당(Partido Nacional de Ciudadanos Éticos (UNACE))
- 사랑하는 애국당(Partido Patria Querida (PPQ))
- 국민회의당(Partido Encuentro Nacional (PEN))
- 사회주의 운동당(Partido Del Movimiento al Socialismo (P-MAS))
- 광역전선당(Partido Frente Amplio (PFA))
- 시민참여당(Partido de la Participación Ciudadana (PPC))
- 파라과이 테코피아후당(Partido Paraguay Tekopyahu (PTP))
- 하가모스당(Partido Hagamos (PH))
- 청년당(Partido de la Juventud (PJ))
- 파라과이 녹색당(Partido Verde Paraguay (PVP))
- 티테 애국전선당(Partido del Frente Patriótico Teete (PFPT))
- 인민통합당(Partido de la Unidad Popular (PUP))
- 사회주의 계승자당(Partido Socialista Democrático Herederos (PSDH))
- 인민애국운동당(Partido del Movimiento Patriótico Popular (PMPP))
- 사회주의 인민융합당(Partido Convergencia Popular Socialista (PCPS))
- 테코조하 인민당(Partido Popular Tekojoja (PPT))
- 민주진보당(Partido Democrático Progresista (PDP))
- 파라과이 공산당(Partido Comunista Paraguayo (PCP))
- A 당(Partido de la A (PDA))
- 국민당 30A(Partido Nacional de la Gente 30A (PNG30A))

□ 법률제도

- 파라과이는 대륙법(civil law) 체계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 통과된 법은 관보에 먼저 공표되며 이후에는 상업적으로 공표된 법에 법전으로 작성되거나 개별적으로 공표되거나 몇몇 공표자들 및 웹사이트에 의해 테마별 편찬됨
 - 파라과이는 “응시결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지만, 주요 법원들은 판결을 생산하며 상업적으로 공표됨
 - 1940년 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명칭이 수여되었고 대법원은 그 구성원 수를 5명으로 증가시킴
 - 1992년 헌법은 공화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을 인정하고 대법원의 구성원을 9명으로 늘림

□ 국제기구 가입현황

- 유엔(UN)
-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 ´ n del Sur, MERCOSUR)
-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Latin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 UNDP)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유엔아동기금
(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 이베로아메리카기구(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 Educational, Scientific &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국제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 OECD 개발센터

□ 주요 정세

- 2018년 대선에서 집권여당인 공화국민연합당(중도우파) 「Mario Abdo(마리오 압도)」 후보 당선(4.22) 및 2018년 8월15일 취임하였음
- 「Mario Abdo(마리오 압도)」 당선인은 현 정부의 친시장주의 경제정책을 계승 및 보건·교육 등에서의 무상혜택 제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MERCOSUR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 증진 및 무역장벽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대중관계

- 파라과이는 현재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중화민국과 수교중인 나라
- 수도 아순시온에 주파라과이 중화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음
- 좌파 성향인 페르난도 루고 집권 시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양안 관계가 나아지는 상황에서 중화민국 측을 배려하여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하였음

□ 대미관계

- 무역 분야에서 매우 협력하게 되어 있는 축으로 가지고 있으며, 투자 활동도 꽤나 폭넓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3 경제개관

	2020					
Markets	Actual	Q4	Q1	Q2	Q3	2021
<u>Currency PYG/USD</u>	7016.00	7045	7076	7108	7140	7203
Overview	Actual	Q4	Q1	Q2	Q3	2021
<u>GDP Growth Rate (%)</u>	-8.60	0.3	1.5	1.7	0.9	2.6
<u>GDP Annual Growth Rate (%)</u>	-6.50	-2.5	0.5	6.5	3.8	2.5
<u>Unemployment</u>	7.60	7.9	7.7	7.6	7.4	7.3
<u>Inflation Rate (%)</u>	2.20	1.5	1.7	1.9	2.1	2.5
<u>Interest Rate (%)</u>	0.75	0.75	0.75	0.75	1	1.25
<u>Balance of Trade (USD Thousands)</u>	9431.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340.000
<u>Current Account (USD Million)</u>	164.60	120	120	120	120	180
<u>Current Account to GDP (%)</u>	-1.20	0.2	0.4	0.4	0.4	0.4
<u>Government Debt to GDP (%)</u>	22.90	25	23	23	23	23
<u>Government Budget (% of GDP)</u>	-2.40	-3.5	-2.5	-2.5	-2.5	-2.5
<u>Corporate Tax Rate (%)</u>	10.00	10	10	10	10	10

그림 7: 2020년 파라과이 GDP 성장

주: current PYG/USD(현재 파라과이 과라니화/미국달러화 환율)

GDP Growth rate(GDP 성장률), GDP Annual growth rate(GDP 연간 성장률)

Unemployment(실업률), Inflation rate(인플레이션율), Interest rate(차입이자율)

Balance of Trade(무역 수지), Current Account(당좌계정), Current Account to GDP%(GDP 대비 당좌계정의 비율) 등.

□ 2020년 주요 경제 현황

- GDP : 359억 6,000만\$
- 1인당 GDP : 6,295\$
- 경제성장률 : -0.6%
- 2020년 교역규모
 - 수출액 : 115억 1,000만\$
 - 수입액 : 100억 4,000만\$

□ 2021년 경제현황(출처: 외교부)

- 국민총생산(GDP) : 384억불
- 1인당 GDP : 5,234불
- 경제성장률 : 4.5%
- 교역 : 수출 94.6억불, 수입 79.1억불
- 외환보유고 : 95.2억불
- 외채 : 107.68억불
- 화폐 : 1USD=6,924Gs (2021.8월 기준)
1USD=7,143Gs (2022.12.26. 기준)

□ 외환보유고

- 81억 달러 (2017년), 79억 달러 (2018년), 79억 달러 (2019년),
95억 달러 (2020년), 99억 달러 (2021년), 94억 달러 (2022년 5월)

□ 외채잔액

- 56억 달러 (2017년), 64억 달러 (2018년), 72억 달러 (2019년), 101억
달러 (2020년), 114억 달러(2021년), 117억 달러(2022년 4월)

□ 대미환율 변화

- 연평균 1달러 당: 5,614과라니 (2017년), 5,960과라니 (2018년), 6,453과라니 (2019년), 6,900과라니 (2020년), 6,885과라니 (2021년), 6,826.70과라니 (2022년 4월), 7.142.86과라니

□ 화폐단위

- 과라니 (Guaraní) *약자로 G/ 또는 Gs. 사용, 국제통화표시 PYG

□ 물가상승률

- 3.6% (2017년), 3.98% (2018년), 2.8% (2019년), 2.2% (2020년), 6.8% (2021년), 8.2% (2022년 예상치), 8.3%(2022.11.)

□ 실업률

- 5.2% (2017년), 5.56% (2018년), 7.2% (2019년), 8.2% (2020년), 8.1% (2021년), 8.5% (2022년 예상치)

□ 1인당 명목 GDP

- 5,609달러 (2017년), 5,792달러 (2018년), 5,451달러 (2019년), 5,017달러 (2020년), 5,282달러 (2021년), 5,368달러 (2022년 예상치)

□ 실질경제성장률

- 4.95% (2017년), 3.7% (2018년), 0% (2019년), -0.6% (2020년), 4.2% (2021년), 0.2% (2022년 예상치)

□ 명목 GDP

- 407억 달러 (2018년), 387억 달러 (2019년), 361억 달러 (2020년), 388억 달러 (2021년), 401억 달러 (2022년 예상치)

(출처: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파라과이 통계청(DGEEC))

*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집계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경제지표 수치 변동

□ 경제부문

□ 1. 제1부문:

- 농업: 2019년 중, 파라과이 농업 부문은 2018년 대비 6.2% 감소를 겪음
 - 불리한 날씨 조건 때문에 2018/2019년 주로 콩의 수확 수준이 더 낮아졌기 때문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쌀, 옥수수, 면화, 카사바, 참깨 및 콩(bean)의 생산에서의 적극적인 변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음
- 축산, 임업, 어업 및 광산 개발
 - 2019년 국가 GDP에 0.9%를 차지하며 2018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
- 올해의 마지막 분기축우와 도축 및 가공류와 같은 다른 형태의 생산 및 기타 축산 생산품의 도축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2019년 축산분야는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음
- 유전자 개선과 첨단 기술의 시행으로 파라과이 소고기의 입지는 세계 38위에 등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 주요 목적지(칠레,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이는 아시아 시장과 같은 시장 틈새를 노리는 측면에서 축산 부문이 해결해야 할 과제
- 건설 부문에서 관찰된 더 큰 역학과 맞물려 광업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옴
- 제조업 : 2019년은 2018년 대비 -0.9% 감소함
 - 2019년 쇠고기 생산,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음료 및 담배 제조, 종이 제품, 유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는 상회함
 - 하지만 목재, 기름, 직물, 의류 등의 생산은 하회함
- 건설업: 2019년은 2018년에 비교 시 그 성과는 0.5% 증가를 보여주었음
 -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의 정상적인 개발을 방해했던 과도한 강우로 인한 악재에 의해 연초에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되면서 공공사업의 역동성이 더욱 커짐

- 수도 및 전기: 2019년에 이 부문들은 2018년에 비해 -0.8%의 감소를 보임
 - 이 결과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더 낮은 전력생산의 결과이며 여전히 파라나 강의 낮은 물 흐름으로 설명됨

□ 2. 제2부문:

- BCP의 국가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문은 파라과이 경제의 19.1%를 차지하며, 이는 지역 경제 생산의 49.9%를 창출하는 농업 다음임
 - 한편, 통계조사센서스총국(DGEEC)의 2019년 연속 가구 상시조사에 따르면 산업부문도 384,810명을 직접 점유하고 있음
 - BCP의 국가 회계 시스템은 산업부문 내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13%의 참여율을 보이는 육류, 12%의 음료와 담배, 그리고 11%의 화학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지난 3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부문은 화학 부문, 야금 부문, 그리고 음료와 담배 부문이었음
-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투자촉진법 제60/90호 및 마킬라 체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 투자처는 88%인 산업부문에 주목하고 있음
 - 2위는 서비스업(7.4%), 농업과 광업, 채석업이 각각 4.2%, 0.4%로 뒤를 이었음
 -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누적 투자액은 8억400만 달러, 산업분야 누적 투자액은 7억800만 달러로 산업분야와 연계된 일자리는 7,672개
 - 산업부문 내에서는 야금업과 건설업이 각각 29%, 24.6%의 점유율로 국내외 투자의 주요 타겟임
 - 또한 지난 2년 동안 알토 파라나, 센트럴, 콘셉시온 행정 구역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강조
 -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서는 ‘투자촉진법 60/90’ 과 ‘마킬라 정권’ 에 따른 민간 투자가 투자금액이 59%로 위축돼 일자리 창출이 49% 감소함

□ 3. 서비스 부문

- 서비스업은 2018년 대비 3.3% 증가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음
- 2019년 정부 서비스, 가사서비스, 통신, 운수, 부동산서비스, 무역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인플레이션

-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함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으로 측정)을 목표 범위인 4% 미만으로 유지했으며, 2019년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2.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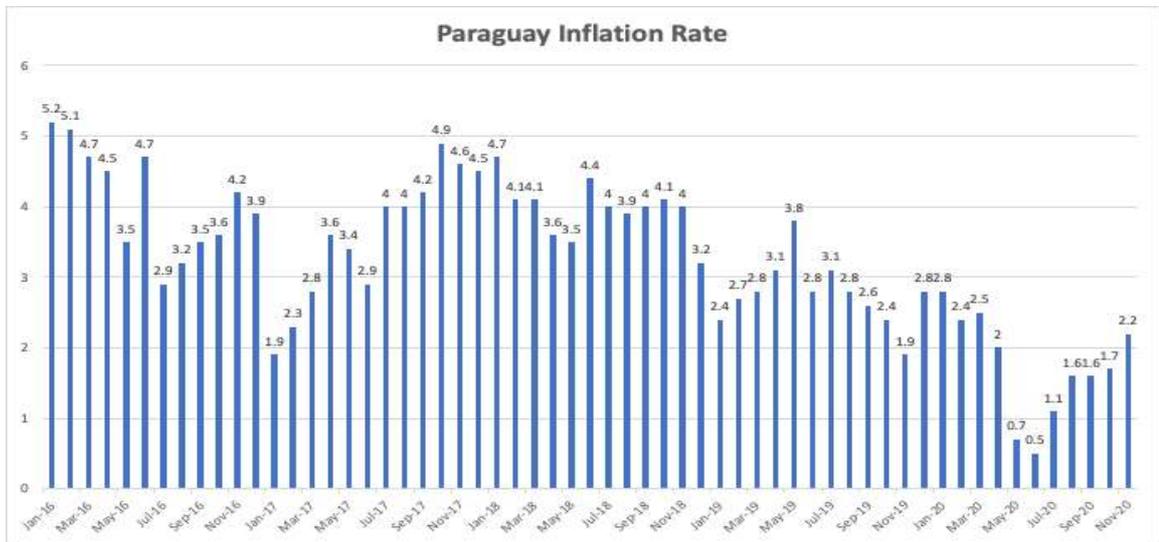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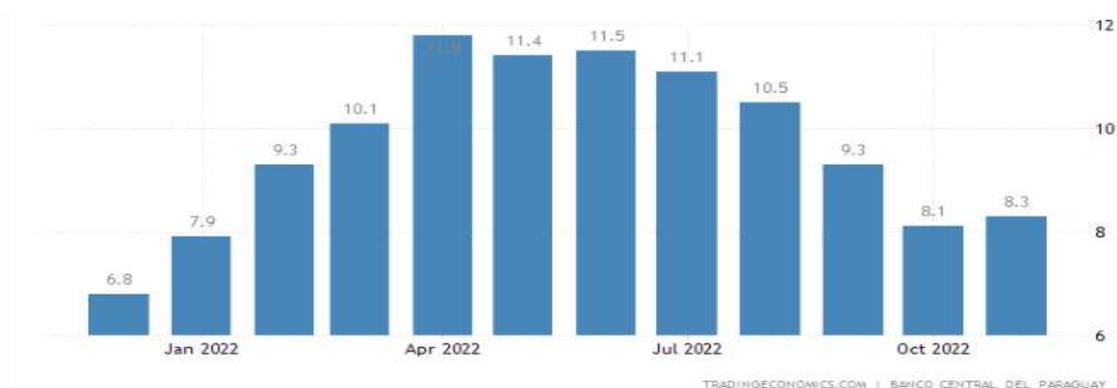


그림 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파라과이의 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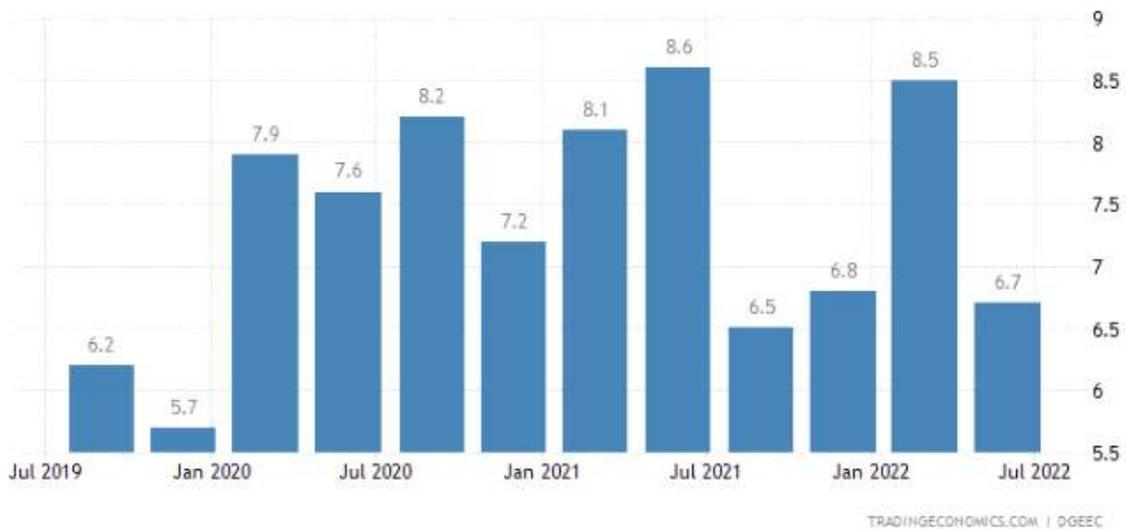
○ 2022년 인플레이션

- 2022년 1월 인플레이션율은 6.8%였으나 6월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여 11%대를 보였으며 2022년 12월2일 현재 8.3% 수준



□ 실업

- 인구조사국(DGEC)이 발행한 연속가계조사(EPHC)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노동력(경제활동인구 또는 PEA)에 속한 인구는 3,676,299명으로 전국 인구(7,110,095)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
 - 2019년 고용률은 94.3%로 3,466,761명이 최소 1시간 이상 유·무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실업률은 5.7%(209,538)였음
- 2022년 실업률
 - 2020년 실업률은 약 7.9%, 2021년 실업률은 약 7.6%, 2022년 6월 실업률은 6.7%



(자료: Trading Economics, DGEEC통계조사센서스총국)

□ FDI 유입

- BCP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규 흐름은 2018년 호조를 보이며 총유입 16억 달러, 총유출 12억 달러로 집계됨
 - 구성 요소별로 보면, 해당 연도 순 유동량은 주로 48%의 이익 재투자자로 설명됨
 - 유의할 점은 순 유동량의 30%를 차지했던 신규 자본 기여 철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2%는 관련 기업간 순 차입에 해당한다는 점

- 최근 몇 년 동안, 파라과이는 점점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음
 - 현재, 주로 미국, 스페인, 브라질의 투자자이며 네덜란드, 칠레 등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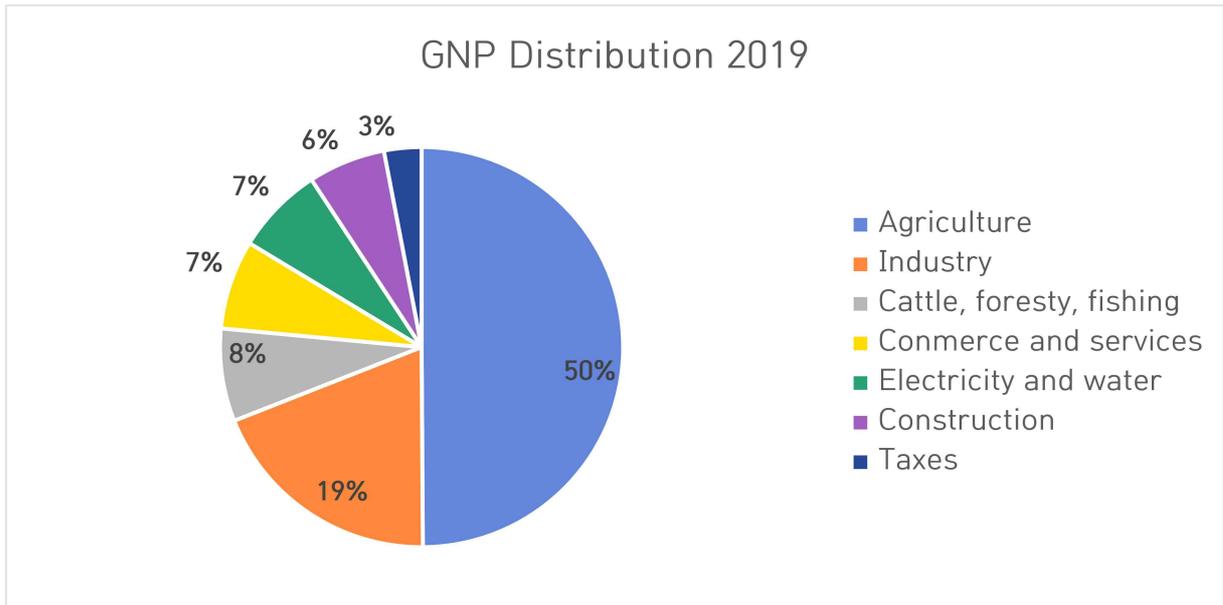


그림 9: 부문별 파라과이 GNP

Agriculture(농업), Industry(산업), Cattle, forestry, fishing(축산, 산림, 어업), Commerce and services(상업 및 서비스), Electricity and water(전기 및 물), Construction(건설), Taxes(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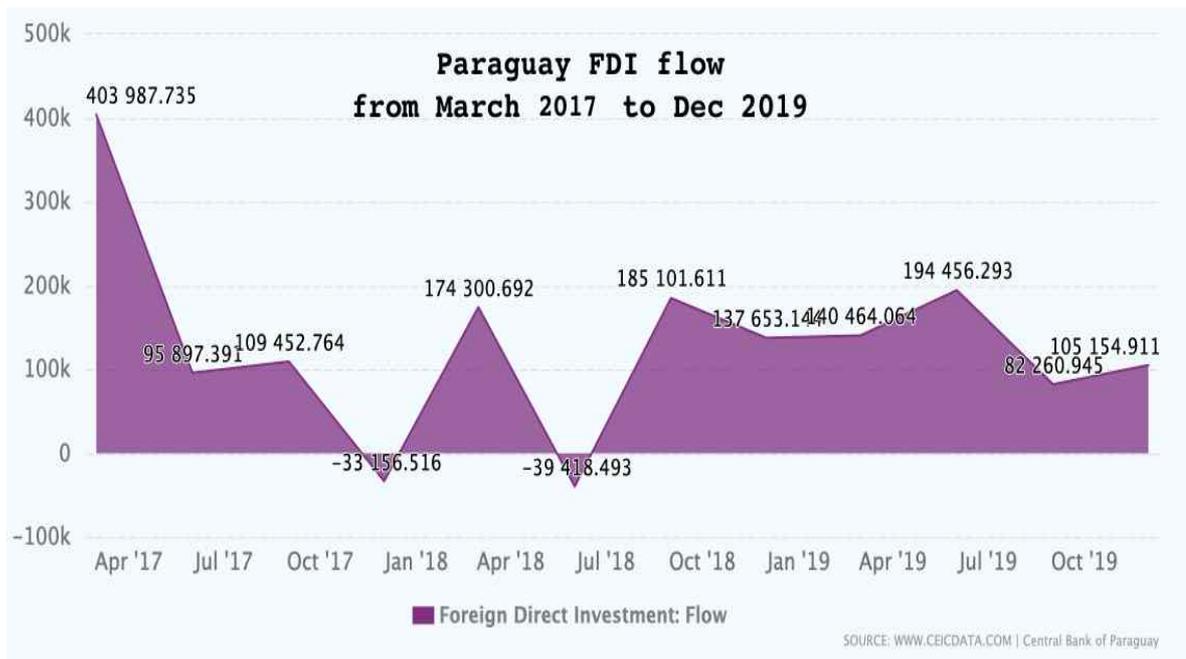


그림 10: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파라과이 FDI(외국인직접투자) 흐름

- 파라과이 외국인 직접 투자(GDP 대비 %)
- GDP 대비 %은 2022-06에 2.5%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2022-03에 0.9%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 상승한 기록임
- 파라과이의 외국인 직접 투자(GDP 대비 %) 데이터는 계간지마다 업데이트되며, 90개의 관측으로 2000-03부터 2022-06사이에 평균 1.1%임
- 이 데이터는 2002-03에 6.9%라는 사상 최고치를, 2002-12에 -10.8%라는 최저치를 기록함
- 파라과이의 외국인 직접 투자(GDP 대비 %) 데이터는 CEIC에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CEIC Data에 의해 보고되는 정보임

□ 조세제도

- 2020년 1월 1일자로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조세개혁법 제6380호 발효
- 새로운 조세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통일을 가져옴
- 법인소득세(스페인어로 IRE)는 국제 체계 간소화의 일환으로 발효됨
- 조세차관국(SET)은 2019년까지 별도로 적용되던 세 가지 세금이 대체
 - 상업, 산업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소득세(IRACIS), 농업 소득세(IRAGRO), 납세자 소득세(IRPC)
- 개인 서비스에 대한 소득세(IRSCP)는 단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2019년까지 시행되었음
- 따라서, 개인 소유권(단독 소유권)의 경우, 의무는 법인 소득세(IRE)이고 개인 소득세(IRP)는 개인에 대한 것임
- 주요 세율정보
- 법인세율 : 10%(2012년부터 2022년 12월 현재까지)
- 개인소득세율: 10%(2012년부터 2022년 12월 현재까지)
- 부가가치세율 : 10%(2012년부터 2022년 12월 현재까지)
- 사회보장세율 : 25.5%*(2012년부터 2022년 12월 현재까지)
- * 회사 16.5% + 근로자 9%

4 주요사회개발지표

□ 인구

- 통계조사센서스총국(DGEEC)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6,416,041명이었음
 - 2012년 추정 인구와 인구 조사 비교한 결과 국가 차원에서 약 74.4%의 인구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음

Paraguay population: Current and projected
7,173,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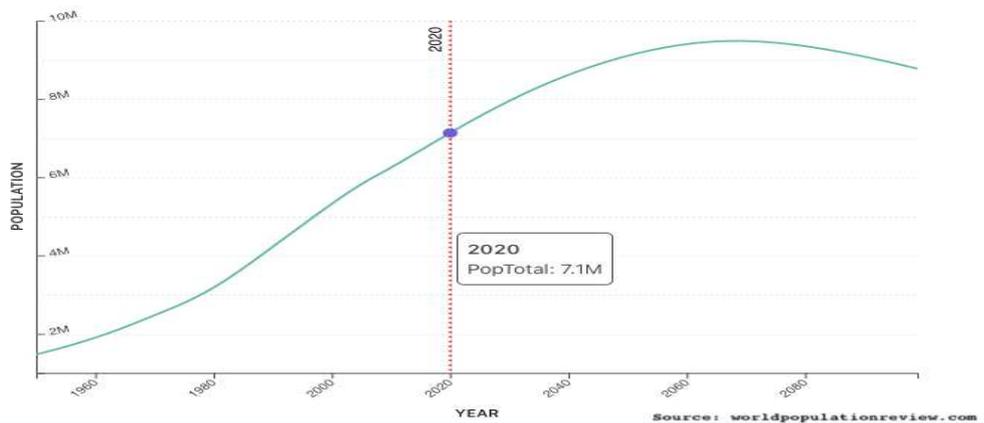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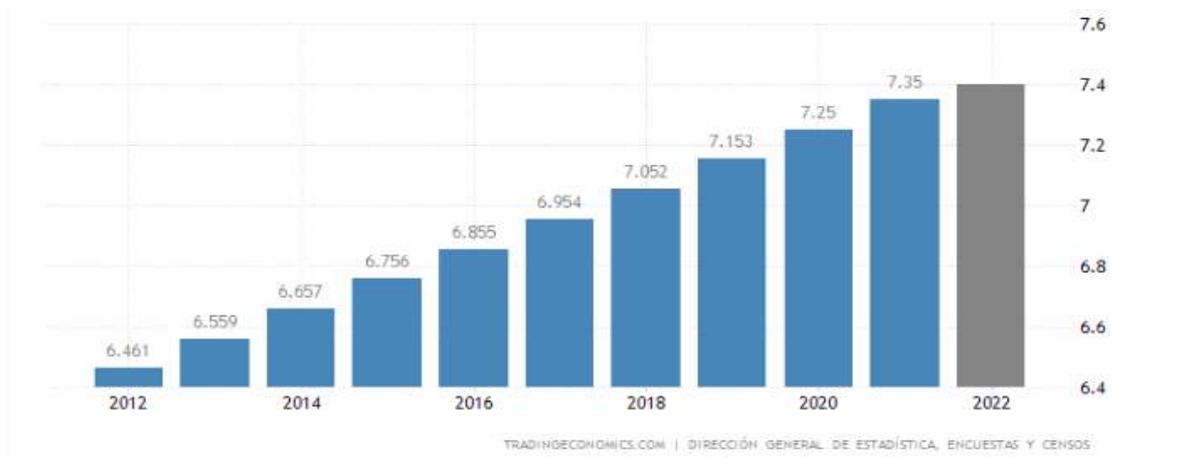


그림 11: 파라과이의 전체 현재 및 예상 인구

- 인구 변화 추이(2012년부터 2022년까지)
 - 2021년 12월 현재 인구는 약735만명

(단위 : 백만 명)



(자료: Trading Economics, 통계조사센서스총국DGEEC)

□ 건강 지수

- 기본 건강 지표(2018년) “파라과이 2019” 에는 2018년에 해당하는 인구, 사망률, 질병률 및 출생에 대한 통계 정보가 포함됨

N°	INDICATOR	VALUE	
1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in the Labor Force (EAP) (EPHC 2018)	71,9	
2	Gross birth rate per 1,000 inhabitants	20,5	
3	Annual number of estimated births	144.794	
4	Annual number of births registered by the MSPBS	111.642	
5	Gross death rate per 1,000 inhabitants	5,7	
6	Annual number of estimated deaths	39.856	
7	Annual number of deaths registered by the MSPBS	31.258	
8	Percentage of deaths registered without medical assistance	28,7	
9	Global fertility rate (Son/Woman)	2,5	
10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Both genders	74,2
		Male	71,4
		Female	77,2
11	Employed population aged 15 and over, according to years of study (EPHC 2018)	7 to 9 years	14,6
		10 to 12 years	25,7
		13 to 15 years	12,5
		16 to 18 years	13,4
		Not available	-
12	Unemployment rate of the population aged 15 and over, according to area of residence (EPHC 2018)	Country	6,2
		Urban country	7,2
		Rural Country	4,5
13	Labor Force Rate (EPHC 2018)	Country	71,9
		Urban country	71,9
		Rural Country	71,8
14	Employed population aged 15 and over according to economic sector (EPHC 2018)	Primary sector	20,3
		Secondary sector	18,1
		Third sector	61,1
		Not available	-
15	Homes with public / private garbage collection service (EPHC 2018)	50,1	
16	Homes with electricity service (EPHC 2018)	99,5	
17	Homes by main type of fuel used for cooking (EPHC 2018)	Log	22,9
		Gas	54,9
		Coal	6,6
		Electricity	13,6
		Doesn't cook	2,1
18	Illiteracy of the population aged 15 and over (EPHC 2018)	Both genders	5,7
19	Reported cases of:	Cholera	0
		Whooping cough	53
20	Confirmed cases of:	Measles	0
		Hantavirus	23
		Non-neonatal tetanus	5

그림 12: 파라과이에 관한 일반 사회환경 지표(2018년 기준)

번호	지표	값	
1	노동력(EAP) 이내의 인구비율(EPHC 2018)	71.9%	
2	1,000명당 총출생률	20.5%	
3	연간 추정 출생자수	144,794	
4	MSPBS에 의해 등록된 연간 출생자의 수	111,642	
5	1,000명당 총사망률	5.7%	
6	연간 추정 사망자수	39,856	
7	MSPBS에 의해 등록된 연간 사망자의 수	31,258	
8	의료지원 없이 등록된 사망자 비율	28.7%	
9	글로벌 다산율(아들/여자)	2.5%	
10	출생시 기대수명(년)	남성,여성 모두	74.2세
		남성	71.4세
		여성	77.2세
11	다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고용 인구 (EPHC 2018)	7-9년	14.6%
		10-12년	25.7%
		13-15년	12.5%
		16-18년	13.4%
		해당없음	-
12	거주지역에 따른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 (EPHC 2018)	국가전체	6.2%
		도시지역	7.2%
		농촌지역	4.5%
13	노동력비율(EPHC 2018)	국가전체	71.9%
		도시지역	71.9%
		농촌지역	71.8%
14	경제부문에 따른 15세 이상 고용된 인구 (EPHC 2018)	제1 부문	20.3%
		제2 부문	18.1%
		제3 부문	61.1%
		해당없음	-
15	공공/민간 쓰레기 수집서비스를 받는 가정 (EPHC 2018)	50.1%	
16	전기 서비스를 받는 가정(EPHC 2018)	99.5%	
17	조리를 위해 사용된 연료의 주요 형태에 의한 가정 (EPHC 2018)	나무	22.9%
		가스	54.9%
		석탄	6.6%
		전기	13.6%
		요리하지 않음	2.1%
18	15세 이상 문맹 인구(EPHC 2018)	남성, 여성 모두 5.7%	
19	보고 건수	콜레라	0 건
		백일해	53 건
20	확인 건수	홍역	0 건
		한타바이러스	23 건
		비늘뼈 파상풍	5 건

□ 인간개발지수 (HDI)

- 2018년 파라과이의 인간개발지수(HDI)는 0.724
 -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189개국 중 98위를 차지함
 - 이것은 도미니카, 피지, 수리남과 같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파라과이의 HDI 값은 0.588에서 0.724로 23.3% 증가함

- 1990~2018년 파라과이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5.6세, 평균수명은 2.7세, 예상수명은 4.1세 증가함
- 파라과이의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약 80.7% 성장함
- 2021년 인간개발지수(HDI)는 0.728로 세계 103위였음

(출처: 국제 연합 2022년 개발 계획보고서(보고서는 2022년에 발표되었지만, 각국의 2021년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1년 인간개발지수)

주: 인간개발지수 단계 기준

0.8 이상(최상위국), 0.7~0.8(상위국), 0.55~0.7(중위국), 0.55 미만(하위국)

□ 빈곤

- DGEEC(통계조사센서스총국)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전체 빈곤 발생률은 23.5% 수준
- 지난 2018~2019년간 2년(24.2% 대 23.5%) 대비 약 0.7%포인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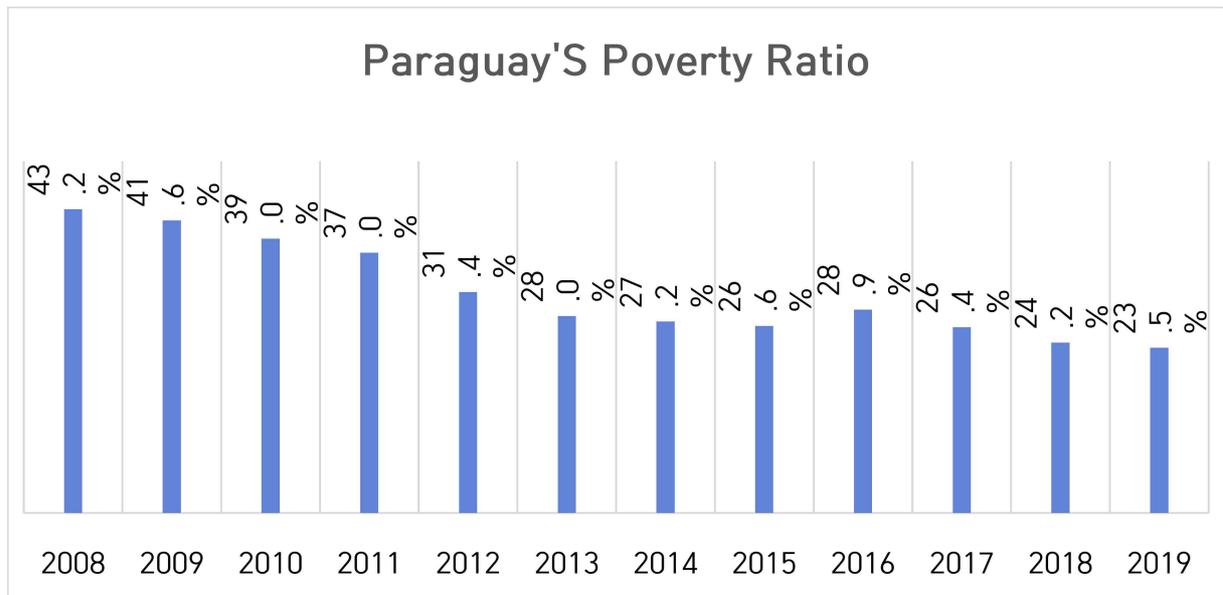


그림 13: 빈곤선 아래 인구 %

- 2019년 추산 1인당 국민소득이 물품 한 바구니 값보다 낮은 가구에 약 165만 7,000명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
- 2018년의 절대치를 비교한 2019년 총 빈곤층 인구는 167만 9,000명임을 감안하면 약 2만 2,000명이 총 빈곤에서 벗어남

- 감소폭은 농촌(1.2%포인트: 34.6%~33.4%)에서 나타났고, 도시지역은 발생률(17.8%~17.5%)이 유지
 - 2019년 국가 차원의 극빈 발생률은 4.0%였음
 - 이는 2018년(4.8% vs 4.0%)에 비해 약 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주로 농촌 지역에 등록된 빈곤률이 10.0%에서 7.8%로 감소한 것이 원인
 - 도시지역 빈곤율은 유지 (1.6%~1.8%).
- 파라과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빈곤률 문제 더욱 악화
 - 파라과이의 빈곤률이 2년 연속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전망이 제기됨
 - 최근 파라과이 은행 바사뱅크가 개최한 경제 포럼 바사노믹스에서 2021년 파라과이 전망에 관한 연구 조사 보고서가 발표됨
 - 해당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 파라과이의 빈곤률이 2020년 26.9%에서 2.3%p 상승한 29.2%를 기록하여, 30%에 가까운 빈곤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사실일 경우, 파라과이의 빈곤률은 2년 연속 상승함
 - 또한 약 30% 정도의 빈곤률은 최근 8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라과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빈곤층이 될 수도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이 빈곤률 상승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 빈곤률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고인플레이션을 꼽음
 - 전직 재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산티아고 페냐는 이번 바사노믹스 행사에 참여해 2020년 재정 지원 중단보다 인플레이션이 빈곤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 또한, 산티아고 페냐는 인플레이션 외에도 경제 회복 둔화 등 여러 요인이 빈곤률 악화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 바사노믹스 행사에서 파라과이의 2021년 연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었음

- 한편, 바사노믹스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2021년 파라과이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7% 이상으로 전망
- 과거 파라과이의 인플레이션을 감안 시,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
- 그에 비해 파라과이의 GDP 성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라과이가 경제 침체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됨
- ECLAC는 2022년 빈곤층 23.4%, 극빈곤층 6.9%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출처: ABC, La Nación, Última Hora, 등 파라과이 주요 일간지(2022.11.25.))

□ 사회보호

- 비록 사회적 보호 정책이나 단일 법적 프레임워크는 없지만, 많은 법률은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조치의 이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
- 국가 헌법에는 파라과이 국가가 시민에게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몇 가지 있음
 - 한편,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는 각각 가족, 유년기, 어머니, 아버지 및 장년층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음
 - 제89조, 제95조, 제103조는 여성의 업무를 보호하고, 부양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무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기능직과 공무원에 대한 퇴직제도를 언급함
 - 제4조, 제49조, 제60조와 같은 다른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권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 명예와 명성” 의 보호에 대해 언급
 - 제46조는 “부당한 불평등에 대해 확립된 보호는 차별적 요소가 아니라 동등한 요소로 간주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평등과 긍정적 차별을 확립

□ 인권

- 파라과이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로마법을 비준한 것에 대해 위대한 인권조약, 미주제도, 유엔제도, 세계 관할권의 일부임
 - 유엔 개발 프로그램 및 독립 국가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이 지역에서 일련의 개혁과 함께 사회 전선에서 진전을 이루었음
 - 파라과이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 7” 타겟 10에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이 없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는 목표를 달성함
 - 2016년 대기업별 다중지표조사(MICS)에 따르면 가구원의 95.3%가 증류수를 마시고, 가구원의 80.3%가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의료(MDG 4, 5, 6)와 기초 교육(MDG 2)에 무료로 접근 가능
 - 밀레니엄개발목표(MDG)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양성평등은 그 나라에서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음
 - 2014년 여성 대 남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인구의 58.0%/ 84.5%로 각각 추정되었으며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2030” 의제의 일환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국가 기관들은 여전히 부실하며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가 제한적임

□ 노동 시장

- 파라과이의 노동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출처로부터 집계된 세계은행 개발지표 수집에 의해 2020년 3,659,296명으로 보고되었음
 - 통계청(IN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공식 고용은 전체 노동인구의 64.2%인 1,805,425명임

□ 빈곤 및 불평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 경로 다차원 검토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성장을 경험했고 효율적인 개발에 전념함
-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파라과이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극복해야 함

-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개발을 더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의 근원을 뒷받침함
- 개발의 이점을 더 잘 공유하기 위해 교육, 사회 보호 및 건강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권고 사항을 공유해야 함
- 빈곤 감소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음
 - 전기, 향상된 위생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음
 - 파라과이의 세금 및 혜택 시스템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불평등을 2%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 파라과이를 보다 개발시키려면 국가의 재분배 능력을 높이고,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전달을 개선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세대 간 전염을 깨기 위한 지속된 조치가 필요

□ 모든 파라과이인을 위한 사회 보호 달성

- 현재까지, 파라과이의 사회 보호 시스템은 매우 단편적이고 도달 범위는 제한적인 상태
- 고용된 인구의 21%만이 사회 보장에 기여 높은 비공식 수준을 감안할 때, 파라과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가난한 가정을 위한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음
 - 사회 연금은 64세 이상의 파라과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빈곤 가구의 30% 미만을 대상으로 함
 - 모든 파라과이 국민들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보장과 사회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 보호의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함
- 수혜자 단일 등록, 사회부조를 위한 통일된 표적화 시스템, 계획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대시보드와 같은 필수 구성 요소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강화되고 통합되어야 함

- 기여연금제도와 비 기여연금제를 단일 멀티필러제로 통합하고 감독 강화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연금 시스템의 특정 제도에 대한 매개변수적 개혁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진보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할 것

□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혁이 요구됨

- 파라과이는 건강상의 이중적 부담에 직면해 있음
 - 파라과이는 1차 진료 제공 장치의 개발과 사용료 철폐를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증가시켰음
 - 숙련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2003년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2016년 3/4 이상으로 증가함
 -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2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출은 크고,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은 의료비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대다수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
- 모든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분열과 약한 관리 상태를 극복해야 함
 - 사회 보장은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흩어져 있는 공공 및 민간 계획의 집합은 추가로 8%를 차지함
 - 분열은 자원의 가용성에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금과 위협의 풀을 제한함
- 의료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화가 필요함
 - 파라과이는 1차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정을 일반화하고 보건 분야 필요한 거버넌스 기관을 개발해야 함

- 자금 측면에서 파라과이는 현금 지출을 의무적인 선불제도에 돌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보편적 건강보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의료 서비스와 보험 보장을 확장하고 재정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잘 정의된 보장된 건강 패키지의 설립은 이 목표제도에 기여할 것임

□ 포괄성을 촉진하고 학교와 직장 사이의 전환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 시스템 개혁

- 파라과이의 교육에 대한 접근은 눈에 띄게 확장되었고 초등 교육은 거의 보편적임
 -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지리적 영역은 중등 교육을 완료하고 불평등을 영구화하는 강력한 결정 요인으로 남아 있음
 - 교육 시스템의 질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으며,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국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숙련도를 보이고 있음
- 열악한 학습 결과와 학습된 기술의 낮은 관련성은 특히 불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 시장으로의 느린 전환을 지속함
 - 실제로 상위 중등 교육 미만을 받은 사람들의 80%는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고 있으며, 극도로 가난한 가정의 청년 10명 중 6명은 29세까지 교육이나 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
 - 파라과이의 교육 및 기술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포괄성과 접근성을 촉진하고 파라과이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
 - 2030년 교육 분야 전환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재 탐구는 도전의 규모와 교육 시스템을 포용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모두 반영함
- 개혁에 대한 새로운 추진에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첫째,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완료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외 계층 및 소외 계층 간의 접근을 지원
 - 둘째,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교사, 교사들의 훈련과 진로, 교육 자원 및 학교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셋째, 중등 교육과정의 개혁은 노동 시장에서의 유입을 선호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함
- 넷째, 통합된 기술 및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것은 교육자, 민간 부문 및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한 양질의 학교 간 전환을 선호할 것
- 다섯째, 수요 와 공급의 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정보, 훈련, 중개 및 기술 예측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 DGEEC(통계조사센서스총국)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전체 빈곤 발생률은 23.5% 수준임. 지난 2018~2019년 2년(24.2%, 23.5%) 대비 약 0.7%포인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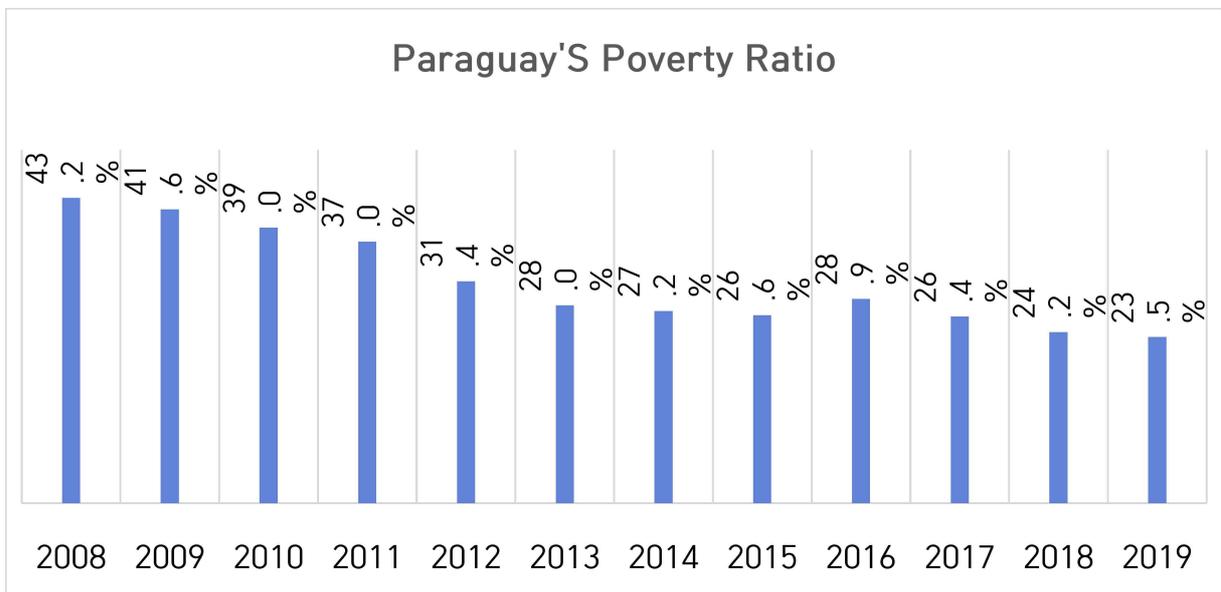


그림 14: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빈곤층에 있는 파라과이 인구비율

□ 파라과이 경제 동향(주요 경제 전망, 경제지표 등)

가. 주요 경제 전망

- 중앙은행(BCP)은 2022년 육류 수출과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예상하며, 파라과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0.2%로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은 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도 4월 기준 중남미 국가 연간 인플레이션은 △ 아르헨티나 55.1%, △ 파라과이 11.8%, △ 브라질 11.3%, △ 칠레 10.5%, △ 과테말라 4.6%, △ 에콰도르 2.9%, △ 볼리비아 0.9% 등을 기록

- S&P는 파라과이의 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년 5월기준 주재국 신용등급을 BB(안정적 전망)로 평가함
 - Moody's, Fitch 및 Standard & Poor's 신용 평가기관들은 세계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팬데믹 및 가뭄 등 경제 충격에도 3년 연속 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
- FocusEconomics 경제연구소는 △가내 소비지출 감소, △1/4분기 기준 높은 실업률(8.5%), △4월 기준 기본 생활비 인상 등으로 2022년 파라과이 경제성장 전망을 2.2%에서 0.9%로 하향 조정함

나. 주요 경제지표

(일반 경제지표)

-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파라과이 공공부채는 140억불로 GDP대비 33.3% 수준을 기록함
 - 국세청은 4월 기준 세수가 전년 대비 32.5% 증가하였다고 발표
- 중앙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파라과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여 1.5%이며,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5.3%를 기록
 - 통화정책금리는 0.5p% 인상하여 6.75% 상향 조정됨
 - 5월 기준 외환보유고 93.8억불 기록

(교역 현황)

- 마킬라기업협회(CEMAP)가 2022년 5월5일(목) 마킬라 기업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라과이 마킬라업은 고용 창출 및 수출 분야에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마킬라 산업 수출 규모: △ 2022년 1/4분기 3억2,400만 달러, △ 2021년 1/4분기 2억7,100만 달러
- 중앙은행(BCP)에 따르면 금년 4월 기준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4.9% 증가함
 - 4월 기준, 수입 45억5,700만달러 및 수출 42억 7,580만 달러 기록, 대두, 육류, 쌀 및 바나나 등의 수출량 감소

- (육류)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금년 1/4분기 소고기 시장 수출량은 8.6% 다각화를 통해 해소되고 있음
 - ※ 1/4분기 육류 수출 시장 규모: △칠레: 2억3,900만 달러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 △대만: 6,700만 달러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 △러시아: 6,400만 달러 (작년 동기 대비 38% 하락)
- 한편, 러-우크라 전쟁으로 유가 인플레이션이 심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4분기 유류 수입량도 40% 감소함

다. 각종 지표

- (노동시장 통계) 통계청(INE)이 발표한 1/4분기 근로자 수는 약 3,427,318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65.2% 수준
 - 취업률은 작년 동기(66.9%) 대비 1.7%p 감소하였으며, 1/4분기 실업자 수는 약 317,03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p 증가함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무역, 농업 및 건설 부문이 대외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150,000개 일자리가 감소
 - Lea Gimenez 전 재무부 장관은 1/4분기 기준 파라과이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6.5%에서 8.5%로 상승하였다고, 저조한 노동의 질, 임금 하락 및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우려를 표명
 - 고용, 생산성 및 근로자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는 중장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인터넷 이용자) 2021년 기준 10세 이상 인구 약 5,876,415명의 77%(4,526,000명)가 인터넷 이용자로 집계되었음
 - 1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수: △ 2015년 49.7%, △ 2020년 74%, △ 2021년 77%
- (2022년 식량안보 조사 결과) 파라과이 인구의 24.6%가 식량 및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5.3%는 매우 취약한 상황

*출처: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 2022.06.13.

□ 주요사회개발지표(Social Development Indicator)

사회개발지표	현 황
총인구	735만명(2021년12월, 통계조사센서스총국)
인구성장률	1.2%(2021년, 세계은행)
기대수명	74세(2020년, 코이카)
합계출산율	2.4명(2020년, 코이카)
실업률	6.7%(2022.06., 통계조사센서스총국)
국내총생산	389.9억불(2021, 세계은행)
1인당 GDP	5,823달러(2021,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2.8%(2022.09., 중앙은행)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인구10만명)	22.6명(2020.05., 세계보건기구)
물가상승률	8.3%(2022.12.02., 중앙은행)
평균연령	26세(2021, 통계조사센서스총국)
지니계수	51.6(2017, 세계은행)
주택보급률	수도권 94%(2021, 통계청)
부패인식지수	세계 128위/180개국(2021, 국제투명성기구)
인간개발지수	0.728(103위) (2021, 국제 연합 2022년 개발 계획보고서)
민주주의지수	결함 있는 국가, 202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발표)
기준금리	8.5%(2022.12.20.,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85.5억불(2022.11., 중앙은행)
법인세율	10%
개인소득세율	10%
부가가치세율	10%

5 파라과이와 한국의 지리정치적 관계

- 1962년 6월 15일 양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음
- 이민국에 따르면 파라과이에는 약 24,191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음
 - 1964년 대한민국에서 온 첫 이민자들이 파라과이 땅에 도착했고,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파견대가 연이어 도착했음
- 파라과이 농촌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인 이민자들은 경제, 사회, 문화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
 -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최초의 한국인들에게 직면했는데, 그 중 하나는 언어였고 또 다른 근본적인 것은 농업 작업을 위한 도구의 부족이었음
 - 이것은 생존을 추구하는 원래의 경제 업무에서 벗어나 도시와 교외 지역의 상업 및 섬유 활동으로 나타남
- 1964년부터 1988년까지 파라과이의 반공 정책으로 인해 좋은 정치적 유대가 양국의 관계를 특징지었음
 - 국교가 수립되기 전 파라과이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물적 자원을 가지고 한국에 지원해준 11개국 중 하나였음
-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각종 부처와 60여 개의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그중 24개는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병과 관련한 정책이었음
- 지난 5년간 인프라 관련 협력은 다음과 같음
 - 1. 파라과이에 도로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한 도로 기술 역량 강화, 2019년 1월1일 집행, 도로 기술센터 건설, 장비 및 인적 능력 구축
 - 2. 민간 항공 개발 기본 계획 수립. 2014년 1월1일(현재 종료됨), 민간 항공 발전을 위한 정치적 전략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함
 - 3. 파라과이의 철도망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2012년 1월 1일 완료, 국가의 주요 생산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지선 건설의 기반과 조건을 부여

- 4. 파라과이 국도 제1, 제2, 제6, 제7호선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2012년 1월1일 완료, 파라과이와의 접근성 향상과 파라과이 내에서의 교통 비용을 최소화함
- 5. 파라과이 그란 아순시온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 2017년 1월1일 완료, 파라과이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 정비계획 수립
- 6. 환경개선 기본계획(마스터 플랜) 2017년 1월1일 완료, 파라과이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물폐수 및 폐기물 부문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 이 협력의 총액 USD \$12,706,012

○ 아순시온 시:

- 1. 아순시온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ATMS, Advaned Traffic Management System) 구축. 2013년 1월1일 완료
- 2. 2020년 1월1일의 가정 및 대규모 가정에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

→ 이 협력의 총액 USD 614,000

□ 우리나라와 관계(출처: 외교부)

○ 파라과이는 1962년에 대한민국과 수교하였음

- 대한민국과 문화협정(1973), 과학·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81), 사증면제협정(1982), 투자보장협정(1992), 범죄인 인도협정(1996) 등을 체결함
-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정책을 취하고 각급 국제무대에서 적극 지지해왔으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 특히,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진출 및 경제,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외교관계
 - 수교 일자 : 1962.06.12.
 - 공관 창설 : 1976.03.21.

- 투자 및 기업 진출 현황 (2020년 기준)
 - 투자 : 1,235만불(2020년 신고기준 누계)
 - 진출 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일성건설, THN 등

- 2020년 교역 현황
 - 수출액 : 8,700만\$, 수입액 : 8,400만\$
 - 수출품목 : 자동차, 알루미늄판 등 공산품
 - 수입품목 : 사료, 동 스크랩 등 1차 산업 품목

- 2021년 교역현황
 - 수출 : 1.21억불(자동차, 알루미늄판 등 공산품)
 - 수입 : 0.57억불(사료, 동스크랩 등 주로 1차산품)

- 교민현황
 - * 우리 교민현황 : 약 5천명(변동적임)
 - 1965 대파라과이 이민 시작
 - 우리나라 체류 파라과이인 : 약 99명

- 우리 ODA 중점협력국으로, 연간 약 1천만불규모 무상원조 시행
 - * 현 대사
 - 주파 : 우인식 대사(제15대, 2019년 11월 부임)
 - 주한 : 공석(2021년 10월 현재)

○ 주요 인사 교류현황

- 방한

1990.06.	Andrés Rodríguez 대통령
1992.04.	Alexis Frutos 외교장관
1992.09.	Usbaldo Scavone 산업통상부장관
1996.02.	Oviedo 육군 참모총장
1996.07.	Juan Carlos Wasmosy 대통령
2002.03.	José Moreno 외교장관
2004.05.	José Argaña 여성부장관
2005.05.	Carlos Walde 대통령 경제수석
2005.10.	Victor Bogado 하원의장
2007.04.	Gloria Penayo 영부인(비공식)
2008.03.	Victor Nuñez 대법원장
2008.06.	Fernando Lugo 대통령 당선인
2008.10.	Miguel López 대통령 비서실장
2009.04.	Félix Bogado 공공사업 통신부 행정차관(KDI 연수과정)
2009.05.	Carmelo Caballero 내무차관, Viviano Machado 경찰청장
2009.11.	Ticio Escobar 문화장관
2010.01.	Héctor Lacognata 외교장관
2010.05.	Francisco Rivas 산업통상부장관
2010.06.	Efraín Alegre 건설장관
2010.09.	Dionisio Borda 재무부장관
2010.11.	Miguel PerICTo 대통령 비서실장 겸 수석장관
2012.05.	Fernando Lugo 대통령
2014.05.	Ramon Jimenez Gaona 공공사업통신부장관
2014.07.	Jose Molinas 기획청장관
2014.10.	Enrique Bordon 소비자청장
2015.03.	Dulcidio De La Guardia 경제장관
2016.01.	Diogenes Martinez 국방장관
2016.05.	Soledad Nuñez 주택청장관
2017.06.	Enrique Riera 교육부장관
2017.09.	David Ocampos 정보통신기술청장
2017.10.	Gustavo Leite 산업통상부장관
2018.01.	Guillermo Sosa 노동고용사회부장관
2018.05.	Eladio Loizaga 외교부장관
2019.06.	Juan Delgadillo 외교부차관
2019.10.	Carla Bacigalupo 노동고용사회부장관

2019.11. Peralta Vierci 정보통신부장관
 2021.09. Oscar Salomon 상원의장, Arnoldo Wiens Purksen 공공사업통신부장관
 2021.10. Luis Castiglioni 산업통상부장관
 2022.07. Carlino Velázquez 공공사업통신부 차관

- 방문

1998.08. 정원식 대통령 특사
 2001.01. 이만섭 국회의장
 2003.06.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2004.06.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2005.05. 국회 통외통위 위원단
 2007.01. 문재인 대통령 특사
 2008.08. 오명 대통령 특사
 2009.11. 오명 건국대총장
 2010.01.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2010.0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대표단
 2010.01. 국회 사절단(김정훈, 김성식 의원)
 2010.04. 2022 월드컵유치교섭단
 2010.08. 정몽준 FIFA 부회장
 2010.08. 박일환 대법관
 2010.12. 오명 전 건국대총장
 2011.01. 김황식 국무총리
 2011.01. 이사철·조문환 의원
 2011.02. 조현재 녹색사업단장
 2013.08. 정문헌 대통령 특사
 2014.08. 정갑윤 국회부의장
 2016.07. 박병석 국회부의장
 2017.04. 최상목 기재부 1차관
 2018.08. 우상호 대통령 특사
 2019.07. 김태년 한-파라과이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
 2022.04 윤성원 국토부 차관

- 기타 : 정상회담

2008.06. 이명박/루고 대통령 당선자(서울)
 2012.05. 이명박/루고 대통령(서울)

□ 주요 협정 현황

- 문화협정 (1973)
- 과학기술협력협정 (1975)
- 무역협정 (1981)
- 사증면제협정 (1982)
- 투자보장협정 (1992)
- 범죄인인도협정 (1996)
- 청년봉사단 파견협정 (1996)
- 지방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위한 EDCF차관 지원협정 체결
- EDCF 차관 시행약정 (2000)
-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설립 양해각서 (2009)
- 무상원조협정 (2011)
- 외교통상부와 OEI 파라과이사무소간 인턴 파견 양해각서 (2011)
- 한국수자원공사와 파라과이 환경청간 물 환경 개선 협약 (2015)
- 한·파라과이 국방협력 양해각서 (2016)
- 한·파라과이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2017)
- 한·파라과이 항공협정 (2021)
- 한·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 (2021)

(출처: 주 파라과이대사관, KITA, 한국수출입은행)

□ 한-파 교역규모

- 수출: US\$146백만 (2017년), US\$151백만 (2018년), US\$111백만 (2019년), US\$87백만 (2020년), US\$121백만 (2021년), US\$37백만 (2022년 4월)
- 수입: US\$99백만 (2017년), US\$46백만 (2018년), US\$80백만 (2019년), US\$84백만 (2020년), US\$57백만 (2021년), US\$5백만 (2022년 4월)

□ 한-파 주요 교역품

- 수출: 승용차,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조가공품, 화물자동차, 전선, 합성수지, 의약품, 제어용케이블, 취미오락기구, 농약 등
- 수입: 사료, 동피밋스크랩, 연초류, 알루미늄피밋스크랩, 기타농산 가공품, 기타목재류, 당류, 육류가공품, 채유종실, 원목 등

□ 교민 5,000명 (2022년 기준)

□ 한-파 교역 동향

1. 한-파라과이 수출입 동향

(1) 개관

- 2021년 對파라과이 수출은 전년대비 38.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2.1% 감소했음
- 2022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파라과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2.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對 파라과이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년도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수지
2018	151,274	3.8	45,710	-53.7	105,564
2019	111,368	-26.4	79,543	74.0	31,825
2020	87,464	-21.5	84,033	5.6	3,431
2021	121,082	38.4	57,043	-32.1	64,039
2022(4월)	37,191	4.4	5,415	-82.3	31,776

(2) 한-파라과이 주요 교역 품목

- 주요 수출품(한국→파) :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농약, 화장품, 합성수지, X선 및 방사선 기기, 기타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축전지 등
- 주요 수입품(파→한국) : 동괴 및 스크랩, 육류가공품, 연초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당류, 기타목재류, 원목 등
- 파라과이에서는 기아, 현대 자동차의 인기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타이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타석유화학제품 및 의약품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여 왔음

<對파라과이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27,607	-41.0	38,884	40.9	17,171	71.8
2	7420	자동차부품	8,781	-36.9	15,529	76.9	4,010	-17.7
3	7412	화물자동차	4,042	-65.3	8,172	102.2	3,018	5.0
4	2261	농약	0	0	2,561	0	1,640	337.2
5	2273	화장품	954	-25.8	1,633	71.2	1,142	144.4
6	2140	합성수지	2,018	59.3	3,233	60.2	1,047	6.2
7	5142	취미오락기구	1,689	-39.2	2,897	71.6	1,010	311.9
8	2290	기타 정밀화학제품	2,940	226.0	2,815	-4.3	947	-16.5
9	2262	의약품	2,933	572.8	3,141	7.1	921	17.3
10	6212	알루미늄조 가공품	9,599	245.0	12,951	34.9	604	-85.0
총 계			87,464	-21.5	121,082	38.4	37,191	4.4

(자료: KITA 무역통계, 2022년 4월 기준)

<對파라과이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6221	동괴 및 스크랩	10,895	159.3	13,831	26.9	2,649	-43.0
2	0241	육류가공품	41	-37.0	267	547.9	705	1,364.5
3	0154	연초류	1,169	-45.4	1,347	15.2	668	27.3
4	6211	알루미늄 및 스크랩	878	167.4	684	-22.1	550	96.9
5	0158	당류	383	163.9	305	-20.5	270	7.8
6	0319	기타 목재류	123	-25.8	316	157.2	199	-9.2
7	0311	원 목	93	0	116	24.9	125	8.4
8	0115	채유종실	235	173.3	143	-39.2	115	214.4
9	4412	직물제 의류	5	79.2	76	1,338.0	102	639.4
10	0169	기타 농산가공품	17	-26.3	643	342.0	10	-51.7
총 계			84,033	5.6	57,043	-32.1	5,415	-82.3

(자료: KITA 무역통계, 2022년 4월 기준)

6 투자 인센티브

□ 요약

- 기업과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1991년 투자법에 규정된 동일한 자유, 혜택,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운영됨

□ 투자법

- 1991년, 투자법(법117/91호)는 파라과이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모든 투자에 중요한 요소인 법적 확실성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통과됨
- 투자법은 파라과이의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장려할 목적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함. 투자법의 여러 조항들 중에 투자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 또는 회사는 모든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보증, 권리 및 의무를 가져야 함(특별 대우나 차별은 없다)
 - 재산 소유권은 국가 헌법 및 적용 법규에 의해서만 제한되며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증됨
 - 그러나 자유로운 환전의 국가정책은 모든 환전, 송금 또는 양도 운영을 보증하지만 해당 국가 세법의 지배를 받음
 - 자유무역의 국가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 보증됨:
 - (i) 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는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상업화의 자유;
 - (ii) 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과 수출의 자유

- 투자법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들의 내국인 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어떠한 사업 운영에도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파라과이의 중앙은행 조직법 제489/95호: 원래 투자법 제117/91호에 의해 예견되었던 특정 측면이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현재 중앙은행 조직법 489/95호에 의해 더 명시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 투자법 제47조는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국가정책을 보장
 - 즉, 제3자와 이러한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업은 현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외화로 지불하기로 합의된 의무는 현지법(법률 제489/95호 제51조)에 따라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법률 제60/90호

- 이 법은 국유 또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투자자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에 따라 투자를 하고 다음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여야 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증가
-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
- 수출 촉진 및 수입 대체 촉진
-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원자재, 노동력 및 국가 에너지 자원의 더 크고 더 나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통합함

□ 자본에 대한 투자 및 수익 재투자

-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이 법의 수혜자들은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유형이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수혜자는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뿐만 아니라 외국 대주단의 대출 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와 해외송금 및 지급에서 면제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앞서 언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청구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급권자는 청구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법 제5542/15호

- 이 법은 특히 파라과이 또는 수입 원자재에 부가가치를 줌으로써 파라과이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 공장 설립 또는 기타 생산 활동과 관련된 국내 또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보호
-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 또는 외국인 투자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를 하고, 다음 요건을 완료해야 함
 - 대량의 노동력을 요구 및 제공하고 중간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산업화를 통한 원자재 부가가치 부여
 -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손상을 방지
- 일단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파라과이 정부와 투자자는 공공 행위를 통해 체결
 - 이 계약은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총 금액을 통합해야 하는 기간을 결정함
 - 이 기간은 미화 5,000,000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이하, 미화 5,000,000달러 미만 투자 시 2년 이하로 함
 - 이 법의 수혜자는 또한 비과세, 10년간 소득세 세율의 변동성 등 투자 자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분배에 대한 추가 소득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

출처:

<https://www.paraguay.gov.py/estado/poder-legislativo>
<https://www.heritage.org/index/country/paraguay>
<https://tsje.gov.py/listado-de-agrupaciones-politicas-2019.html>
<https://www.dgeec.gov.py/Publicaciones/Biblioteca/atlas-demografico/Atlas%20Demografico%20del%20Paraguay,%202012.pdf>
<https://www.dgeec.gov.py/news/news-contenido.php?cod-news=402>
<http://portal.mspbs.gov.py/digies/wp-content/uploads/2020/01/Indicadores-Basicos-de-Salud-IBS-2019.pdf>
http://hdr.undp.org/sites/all/themes/hdr_theme/country-notes/es/PRY.pdf
<https://www.dgeec.gov.py/news/news-contenido.php?cod-news=447>
https://www.conacyt.gov.py/sites/default/files/upload_editores/u294/libro_proteccion_social.pdf
<http://embajadadeparaguay.ec/index.php/informacion-general/politica-exterior>
rieved 11, 2020, from <https://leyderecho.org/paraguay-sistema-legal/>
<https://www.pj.gov.py/contenido/11-historia/11>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py/Documents/about-deloitte/Deloitte%20PY%20-%20Haciendo%20Negocios%20en%20Paraguay%20-%202020%20-%20ESP.pdf>
<https://www.jica.go.jp/paraguay/espanol/activities/activity08.html>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69967/gross-national-income-per-capita-paraguay/>
<https://erc.undp.org/evaluation/documents/download/12436>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p/paraguay/PRY.pdf>
[https://www.oecd.org/development/mdcr/countries/paraguay/Vol_2_Executive_Summary_and_Overview_\(English\).pd](https://www.oecd.org/development/mdcr/countries/paraguay/Vol_2_Executive_Summary_and_Overview_(English).pd)
<https://tradingeconomics.com/paraguay/labor-force-total-wb-data.html>
<https://www.lonelyplanet.com/paraguay/background/other-features/e7b24fb8-edb4-4664-8dd3-76d6264b0639/a/nar/e7b24fb8-edb4-4664-8dd3-76d6264b0639/363374>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351989415300147>
<https://www.fomin.org/en-us/HomeOld2015/News/PressReleases/ArtMID/3819/ArticleID/12946/Innovative-weather-index-insurance-help-small-growers-in-Paraguay-mitigate-climate-risk.aspx>
<https://www.paraguaymike.com/english/is-paraguay-for-you/>

□ 투자 장려분야

- 투자장려 분야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립생산
- 관련법규 : 시행령 제 21944/98호 및 시행령 제 406/98호
- 적용대상 품목 :
 - 제87류에 포함되는 모든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및 기타 육상 운송차량 및 그 부품, 악세서리
 - 제87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부품 및 악세서리
- 동 법은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적용됨
 -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증대 실현
 - 신규 고용의 창출
 - 수출의 증대 또는 수입의 대체
 - 생산성 향상 및 원자재, 노동력, 전력 자원의 활용 촉진을 가능케 하는 기술 보유
 - 투자 위원회 및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상기 대상 분야에 규정된 재화의 생산 또는 산업용 플랜트에 대한 투자 실시 등
- 혜택
 - 관련 품목의 생산을 위한 자본재, 원자재, 부품, 중간재 등의 수입 시 관세 및 기타 특별세 면제
 - 완제품 최종 가액의 2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IVA) 부과
 - 동법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 시 수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
 - 투자법(Ley60/90)제5호에 규정된 혜택의 10년간 부여
- 국산 부품 사용 의무
 - 동법의 수혜 기업은 점진적으로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증대 시켜야 함
 - 상공부는 최초 연도의 최소 국산부품 사용 비율 및 향후 적용 방안을 수립 (파라과이 부품산업의 현실을 감안, 조립 품목별로 탄력성 부여)
- 환경보호 및 안전 의무
 - 동법의 수혜 기업은 현존하는 환경보호 및 안전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상공부는 동 사항을 감독
 - 특혜의 철폐 또는 감축

- 수혜 기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본재,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사용 시 면제된 관세의 전액 납부 및 관세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상공부의 인가 후 12개월 기간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의 전액 납부. 단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일부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 Mercosur 원산지 규정
 - Mercosur지역에 수출시에는 Mercosur원산지 규정에 따라 파라과이산 부품(또는 역내 부품) 사용비율 50%를 충족시켜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95% 감면)
- Chaco 지역 등 8개주에 투자시 10년간 면제
- 회사의 설립 및 등록, 주식의 발행 및 양도, 채권,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구입 및 매각시 면세
- 투자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원자재, 중간재 및 기타 물품의 수입 시 면세
- 농업 또는 공업 분야의 생산 사이클과 관련한 고정자산의 최초 설치 시 관세 및 부가세(IVA) 면제
- 상표, 특허, 의장, 공업디자인 등 외국으로부터 도입 기술에 대한 로얄티 지급시 5년간 면세
- 적법 투자활동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급 및 영수, 어음 발행 시 등에 인지세 면제 등

(출처: 주파라과이대사관)

II. 환경분석

1 정치 동향

□ 요약

- 파라과이는 매우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임
 - 35년간의 권위주의적 독재 이후 파라과이는 1992년 6월 헌법에 수립된 민주적인 정부 체제로 전환함
 - 1989년 독재정권이 종식된 이후 주요 정당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년 동안 좌파정당(나중에 탄핵됨)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국립공화당-파르티도 콜로라도당(ANR 또는 콜로라도당)”
 - 비록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7명이 콜로라도당의 일원이었지만, 그들은 거의 항상 야당 의원들에게 내각 직위를 제공하는 연립 정부를 구성함
- 파라과이 불안의 주요 원인은 농민들(캠페시노)에 의한 토지 분쟁과 토지 및 국가의 경제 통제(자유시장 체제 종료) 요구, 정치적 부패 또는 빈부간의 큰 분열 증상 등임
 - 1996년 쿠데타 시도, 1999년 부통령 암살과 8명의 반정부 시위대, 2004년 전 대통령의 딸 납치와 그 이후의 살인이 모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함
 - 1993년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1명은 1999년 암살 사건으로 사임했고, 1명은 2012년 토지 분쟁으로 무장 경찰과 농장 노동자 간의 치명적인 충돌로 법적 절차를 거쳐 탄핵됨
-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부패와 싸우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꾸준한 파라과이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
 - IMF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요 세제 개혁이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감소시킴
 - 한때 비리가 의심되는 대법관 6명이 해임되기도 했음

□ 파라과이 정치약사

1. 파라과이 약사

(1) 스페인 식민지 시대

- 1525년 금광을 찾아 파라과이강을 표류하던 포르투갈인 Alejo García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은 1537년 스페인 Juan de Salazar에 의해 시작됨
- Juan de Salazar는 파라과이강변 교통 중심지를 “Nuestra Señora de Asunción” 이라 명명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함

(2) 독립

- 1811년 5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5인의 집정위원회에 의해 통치가 시작됨
- 1814년에 집권한 Rodríguez de Francia는 1840년 사망 시까지 27년간 외국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학자와 종교를 탄압하는 등 독재체제 아래에 쇄국 정책을 시행함
- 1844년 신헌법에 의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Carlos Antonio López 대통령은 1862년까지의 재임기간 중, 남미 최초의 철도 건설, 영농개혁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파라과이를 남미의 주요 경제 강국으로 국력을 크게 신장시킴

(3) 3국 전쟁 (Guerra de la Triple Alianza)

- 1862년 Carlos Antonio López 대통령이 지병으로 사망 후 그의 아들 Francisco Solano López가 권력을 승계받아 1870년 3국 전쟁에서 사망 시까지 2대 대통령으로 파라과이를 통치함
- Francisco Solano López 대통령의 무리한 국력 신장 정책으로 인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국경분쟁이 야기되는 등 관계가 악화됨
- 우루과이 내전을 둘러싸고 파라과이는 우루과이 정부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반군 세력을 지지함
- 당시 강대국이던 파라과이를 견제하는 3개국에 의해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개국을 상대로 1864년 전면전을 강행함

- 동 전쟁(1864~1870)에서 파라과이는 성인 남성의 90%가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영토의 4분의 1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빼앗김
- 1887년 파라과이 양대 정당인 공화국민연합당(ANR)과 급진정통자유당(PLRA)이 창당되었으나, 1916년까지 22인의 대통령이 쿠데타 등에 의해 경질되는 등 정정불안이 지속됨

(4) 차코 전쟁 (Guerra de Chaco)

- 북부 차코지역 영토분쟁으로 1932년 볼리비아가 파라과이를 침공하면서, 1935년 종전 시까지 볼리비아와 “차코(Chaco)” 전쟁을 치름
- 미국 및 중남미 국가들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었으며, 전쟁에서 승전한 파라과이는 북부 차코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인정받음
- 차코 전쟁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한 Higinio Morínigo 장군은 8년(1940-1948)간 군사독재로 파라과이를 통치하면서, 도로 건설 등 국가복원에 꾸준히 힘씀
 - 하지만 반대 세력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경질되었으며 이후에도 1954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됨

(5) 35년간의 군부독재 시기

- 1954년 5월 Alfredo Stroessner 장군이 파라과이 양대 정당 중 하나인 공화국민연합당(ANR)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함
 - 1989년 망명 시까지 반대 세력 탄압 등 철저한 군부독재 체제하에 35년간 장기 집권하였음
- 1989년 2월 3일, Andrés Rodríguez 장군이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Stroessner 대통령을 축출하고, 동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993년 8월 14일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음

(6) 민간정부 출범

- Andrés Rodríguez 대통령의 민간정부 정권 이양 공약에 따라 1993년 5월 실시된 선거에서 재계인사인 Juan Carlos Wasmosy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파라과이 역사상 최초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음

(7) 61년간의 단일정당 집권 종식

- 2008년 4월 20일 실시된 대선에서 ‘변화를 위한 애국연합(APC, 야당연합)’의 가톨릭 주교 출신인 Fernando Lugo 후보가 집권당인 공화국민연합당(ANR)을 물리치고 승리함에 따라 1947년 이래 61년간 지속된 ANR당의 재집권이 종식됨
- Lugo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재집권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제1야당인 급진 정통자유당(PLRA)을 주축으로 한 29개 군소 야당 및 민간 사회단체의 연합 및 지지에 기인함

(8) Fernando Lugo 대통령 탄핵과 외교적 마찰

- 2012년 6월 중순, 경찰과 농민의 충돌로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 Fernando Lugo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됨
- 2012년 6월 22일 파라과이 의회는 Lugo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부통령이었던 Federico Franco가 대통령직을 승계함
- 남미 국가들은 파라과이 의회의 대통령 탄핵을 쿠데타로 규정, 다수의 남미 국가들이 파라과이의 2013년 대선까지 외교단절을 선언함
 - 또한, 이로 인해 파라과이는 2012년 7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 자격이 정지됨. 2014년 1월 회원국 자격이 회복됨

(9) Mario Abdo Benítez 대통령 취임 (2018. 8. 15)

- 2018년 8월 15일 중도우파 성향의 Mario Abdo Benítez 대통령 정부가 출범
- Mario Abdo Benítez는 Alfredo Stroessner 군사독재정권(1954년~1989년)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9번째 대통령임
- Mario Abdo Benítez는 건설사업가 출신이며, 2013년 상원의원에 당선돼 2015년 상원의장직 수행하였음
 - 그의 부친은 1954~1984 기간 파라과이를 통치했던 독재자 Alfredo Stroessner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음
- Mario Abdo Benítez는 취임사에서 빈곤퇴치, 부패척결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전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유지함

- 공화국민연합당(ANR)은 1947년부터 2008년까지 61년간 장기 재집권했으며, 2008년 4월 대선에서 가톨릭 주교 출신의 중도좌파 후보 Fernando Lugo에게 패해 권력을 내주었다가 2013년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음

□ 최근 정치동향

1. 권위주의

- 파라과이는 평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나라로서 권위주의적인 인물들에 의해 지배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파라과이의 권위주의는 스페인의 태도, 적대적인 이웃들 사이의 고립, 역사적으로 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된 인구들 사이의 정치적 미숙함과 순진함에서 비롯됨
- 파라과이는 선거에서 상대방이 승리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음

2.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 1989년 이후 전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민주주의 체제의 생존이었음
 - 35년간의 독재와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국민들은 분쟁 해결과 시위 등록 측면에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고수해왔음
 - 민주주의 규칙에 대한 민간인과 정치 엘리트 간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낮은 상황

3.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

- 토지 소유권과 엘리트 권력에 기반한 전통적인 후원자/고객 관계에 뿌리를 둔 정치적, 사회적 배제는 파라과이의 민주주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임
 - 높은 수준의 빈곤, 불평등, 그리고 특히 농촌 빈민들 사이에서 물, 건강, 교육,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림

-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실질적인 민주주의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나타냄
- 이러한 배제의 요인들은 또한 고객주의와 후원,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 그리고 신속한 개혁을 약속하는 권위주의 및/또는 포퓰리즘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잠재적으로) 강화함
-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제도의 일상적인 기능에서 완전히 이익을 얻고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권을 약화시킴
- 파라과이의 민주주의 통합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과 그 대표자들이 국민과 그들의 선거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행동하고,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얻으려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 그 대신, 그들(정당 및 개인)과 그들의 동맹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관, 지위,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국가를 포착하려고 함
- 절실히 필요한 정치 및 사회경제 개혁에 대항하는 기득권을 가진 강력한 엘리트들이 포함됨

4. 정치의 역사

- 알프레도 스트로스너 장군은 1954년 5월에 권력을 잡음
- 정부의 가혹한 내부 보안 조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내내 정권에 대한 반대가 침묵을 지키도록 보장함
- 1984년 아르헨티나가 민간 민주 통치로 복귀한 영감과 함께 국내 반대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약간 완화되자 1980년대 중반 일부 반대파 의원들은 대담해짐
- 언론계, 야당, 노동계, 학생, 농민, 로마 가톨릭교회 대표들은 파라과이의 정치 체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
- 1989년 2월 3일, 스트로스너는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로 전복됨
- 로드리게스는 콜로라도당 후보로서 그해 5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쉽게 대통령직을 얻었고, 콜로라도당이 의회를 장악함
- 1989년 5월, 새 대통령 아래 파라과이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긴 과정을 시작함

- 그러나 1991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은 아순시온을 포함한 몇몇 주요 도시 중심지에서 승리했다. 대통령으로서 로드리게스는 정치, 법률, 경제 개혁을 시행하고 국제 사회와 화해를 시작함
-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대륙의 공동시장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립회원국으로 인정받음
- 1992년 6월 헌법은 민주적인 정부 체제를 확립하고 기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1993년 5월 9일, 파라과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선거를 실시
 - 후안 카를로스 와스모시 콜로라도당 후보가 국제 관측통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평가한 파라과이의 거의 40년 만에 첫 민간 대통령으로 당선
- 새로 선출된 다수 야당 의회는 이전의 콜로라도당이 지배했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철회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빠르게 보여줌
- 1995년 군대에는 심각한 불안의 징후가 있었으며, 와스모시 대통령은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 최고 사령부의 재편을 단행함
- 1996년 4월 말, 와스모시 대통령과 인기 있는 리노 세자르 오비에도 실바 장군 사이에 와스모시의 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대립이 일어남
- 오비에도는 와스모시의 사임을 요구했고, 그에게 미국 대사관에 임시 망명을 요구하도록 강요
-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지원으로 파라과이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며, 1996년 4월 당시 육군 원수 리노 오비에도가 와스모시 대통령을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부함
- 오비에도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콜로라도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1996년 쿠데타 시도에 참여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은 대법원에 의해 쫓겨나고 감금되었음
- 그의 러닝메이트인 라울 쿠바스 그라우는 콜로라도당 후보가 되었고 5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

- 1999년 콜로라도당의 보수파 지도자 루이스 마리아 아르가나 부통령 암살과 오비에도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8명의 학생 반정부 시위대의 살해 사건이 있었음
- 많은 사람들은 쿠바스 그라우 대통령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암살의 선동자라고 느낌
- 시위대는 쿠바스 그라우의 사임을 요구했고, 쿠바스 그라우는 1999년 3월 사임하고 브라질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함
- 루이스 곤살레스 마크치 상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맡아 쿠바스의 임기가 끝남
 - 곤살레스 마크치는 자신의 정부에서 내각의 직책을 세 정당의 고위 대표들에게 제안하였고,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을 증명하는 연립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이어짐
 - 부패와 가혹한 분열은 파라과이 정부를 특징짓고 있었음
 - 그들은 선거가 더 민주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능적인 민주적 통치 기간으로 정착하지 못함
 - 2002년 농민, 노동조합원, 좌파 단체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비난하고 정부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으며 곤살레스 마크치 정부는 많은 부패 혐의를 받음
 - 부패한 행정부로 널리 여겨졌던 마크치는 2003년 2월 부패와 잘못된 관리 혐의를 포함한 상원 탄핵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2003년 4월, 콜로라도당 후보 니카노르 두아르테 프루토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됨
 - 두아르테 행정부는 부패를 공격하고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록을 세움
 - 그는 취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파라과이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를 부분적으로 안정시키고,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음
 - 그러나 암살 음모의 계속되는 소문은 파라과이의 정치적 불안의 유산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함

- 두아르테는 야당이 장악한 의회와 건설적으로 일하면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대법관을 공직에서 해임하고 주요 세계 개혁을 시행함
- 두아르테 정부 들어 거시경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떨어졌고,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체불액을 정리함
- 2004년 9월 21일, 무장 괴한들이 라울 쿠바스 전 대통령의 딸 31세 세실리아 쿠바스를 납치했으며 살해됨
- 두아르테 대통령에게는 쿠바스 납치에 대한 좌파의 개입이 “마지막 지푸라기” 였던 것으로 보임
- 2003년 쿠바 의사들의 시골에서의 활동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골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다른 시도에 대한 그의 동맹국들의 초기 경고는 두아르테에게 거의 뚜렷한 인상을 주지 않았음
- 2004년 캄페시노 소요가 커지자 두아르테는 강경 노선을 취했고 쿠바스의 납치와 함께 국내외 좌파들이 그의 정부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확신함
- 2004년 6월, 오비에도는 브라질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파라과이로 돌아와 1996년 쿠데타를 모의한 죄로 투옥됨
- 1998년 대법원을 무시하고 리노 오비에도를 감옥에서 석방한 쿠바스 전 대통령의 법령을 비롯해 2008년 두아르테가 오비에도를 다시 석방하기 위해 대법원을 조작한 것 등 공개적인 헌법 위반 발생
- 2007년 11월, 오비에도의 범죄 혐의는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고, 그는 2008년 4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음
- 2008년 4월 20일, 야당 연합을 대표하는 전 로마 가톨릭 주교 페르난도 루고가 대통령에 선출됨
 - 국가선거재판소(TSJE)에 따르면 루고는 40.8%의 득표율을 기록했음. 콜로라도당 후보 블랑카 오벨라르가 30.6%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UNACE의 리노 오비에도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
 - 루고는 부패의 감소와 경제적 불평등을 그의 우선 과제 중 두 가지로 지목함
 - 2012년 6월, 의회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을 직무 수행의 부진으로 탄핵하고 해임함

- 그의 탄핵은 쿠루과티 지역의 마리나 쿠에에서 300명의 중무장한 경찰관과 70명의 땅 없는 캄페시노 사이의 격렬한 대립으로 진행됨
- 캄페시노들은 스트로스너가 새로운 주인 블라스 리켈메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 전에 이 땅이 국가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을 점령
- 점령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 끝나자, 11명의 캄페시노(농민들)와 가장 젊은 18세의 루치아노 오르테가 그리고 6명의 경찰관이 사망
- 파라과이의 대개 우파 성향의 의회는 이 사건을 현대 역사상 파라과이의 최초의 진보적인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이용함
-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상 요건을 따랐지만, 주로 탄핵 속도가 비상해 논란이 일었으며, 최고 선거 법원(TSJE)은 또한 탄핵의 타당성을 인정함
-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였던 페데리코 프랑코 부통령이 2012년 6월 22일 취임하여 2013년 8월에 끝난 대통령 임기를 마침
- 루고 전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계속했고 2013년 선거에서 5년 임기의 상원으로 선출됨
- 2013년 4월 21일, 콜로라도당의 호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인정된 선거에서 당선됨
- 유럽 연합, 미주 기구(OAS), 남미 국가 연합(UNASUR)의 국제 관측통들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평가함
- OAS와 EU 선거관찰 보고서는 높은 투표율과 4월 21일 선거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진행을 강조함
- 2015년 11월 15일, 파라과이는 미주기구(OAS), 남미국가연합, 미주선거 조직연합의 국제 옵서버들과 함께 전국적인 다당제 지방 선거를 치렀음
- 현정권은 파라과이의 집권당인 콜로라도당의 후보가 16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96%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
- 주요 콩 생산국의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5년간 이어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 이 나라의 선거 재판소에 따르면, 46세의 전 상원의원인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가 46.7 퍼센트의 표를 얻었음
- 그의 주요 라이벌인 중도좌파 GANAR 연합 알레그레 출신의 에프레인 알레그레 변호사는 42.6%의 표를 받음

2 경제 동향

□ 요약

- 2019년 상반기 파라과이는 주요 교역국들, 특히 아르헨티나와의 실적 악화와 악화된 기후 조건 때문에 경기 침체를 겪음
 - 실업률은 14.5%에 달했고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4%로 낮췄으며, 이 비율은 2020년 내내 그대로였음
 - 2019년 하반기에는 농업이 반등하고 실업률이 12.9%에 달했으며, 2019년 내내 외환보유액은 신중한 수준을 유지했음
 - 파라과이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은 $4 \pm 2\%$
 - 재정책임법은 적자 한도를 1.5%로 정하고 있지만 위기 때는 적자 한도를 3%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빈곤률은 2018년 24.2%에서 2019년 23.5%로 떨어짐
 - 2018년과 2019년 도시지역의 빈곤률은 약 17%에 달함
 - 농촌 빈곤률은 2018년 34.6%에서 2019년 33.4%로 떨어짐
 - 농업은 비공식적인 농촌 노동자의 거의 절반(60만명)을 차지함
 - 전체적으로, 1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 인구의 약 23%인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음
- 2020년 3월,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병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구이동 통제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25%로 인하했다.
 - 신용 구조 조정 및 연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급 규칙 완화
 - 의회는 16억 달러 증가된 차입 한도 및 최대 4년간 재정 책임법의 유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위기 재정 패키지를 승인함
 - 건강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출
 - 비정규직 보조금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우선 순위가 아닌 지출 라인에서 재할당

-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 유예
- 위기 대책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4%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2021~2022년 성장률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상업, 서비스, 건설 부문에서 실업과 과소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파라과이는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 특히 아르헨티나와의 실적 악화와 기후 악화로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반등해 실업률이 12.9%에 그침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에 따라 정책 금리를 4%로 낮췄고 2020년 내내 금리를 유지함
 - 게다가 2019년 내내 외환보유액은 신중한 수준을 유지함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빈곤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3.5%에 달함
 - 2020년 2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2.4%로 파라과이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 $4 \pm 2\%$ 와 일치함
- 2020년 3월,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병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
 -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2.25%로 인하함
 - 신용 구조조정과 연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충당금 규정을 완화함
- 의회는 차입 한도 16억 달러 증액과 최대 4년간 재정 책임법 (FRL) 유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反)위기 재정 패키지를 승인해 위기 때 적자 한도를 GDP의 1.5%에서 3%로 늘릴 수 있도록 했음
 - 건강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출
 - 비정규직 보조금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우선 순위가 아닌 지출 라인에서 재할당
 -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 유예

- 위기 대책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4%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2019년 성장이 정체된 후 파라과이가 강력한 회복 경로를 밟고 있을 때 COVID-19 세계적인 유행병은 파라과이를 강타
 - 글로벌 경기침체는 2020년 GDP 1.2%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 후,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성장은 4%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세계 시장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하방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빈곤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성장이 정체된 후 경제 회복의 순간에 COVID-19가 파라과이 경제를 강타함
 - 주요 교역국, 특히 아르헨티나 등의 실적 부진과 악천후로 2019년 상반기(전년 대비 -3%)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었으나, 좋은 날씨와 함께 농업 생산이 반등하면서 하반기(전년 대비 +3%)부터 회복세로 돌아섬
 -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서도 2019년 상반기 실업률과 과소 고용률을 합한 비율이 14.5%에 달한 뒤 하반기에는 12.9%로 후퇴함
 -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4 \pm 2\%$)보다 낮은 대역에 근접하면서, 파라과이 중앙은행(BCP)은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치하는 좀 더 완화된 자세로 전환됨
 - 2019년 동안 BCP(파라과이 중앙은행)는 정책금리를 누적 125bps 인하해서 4%로 낮춤
 - 2020년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2019년) 동기 대비 2.4%였음. 외환 보유액은 2018년 아르헨티나 위기 초기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신중한 수준을 유지
- 당국은 2019년 상반기 불황을 감안해 재정규정 탈출 조항을 발동해 재정적자를 제한함(재정책임법(FRL)은 위기 시 적자 한도를 GDP의 1.5%에서 3%까지 늘릴 수 있음)
 - 이에 중앙정부의 예산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2.9%의 적자로 집행됨

- 경상지출은 8.2% 증가했지만 비록 낮은 기준으로 일지라도 자본지출은 28.9% 증가함
- 의회는 재정책임법에 일치하게 국내총생산(GDP)의 1.5%의 적자로 2020년 예산법을 승인함



그림 16: GDP비율로서 파라과이의 과세 결과

- 경제 침체와 함께 빈곤 감소는 계속되었지만,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됨
 - 이러한 배경과 진행 중인 Dengue 발병에 대항해 왔던 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함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인구이동 통제를 시행함
 - BCP(파라과이 중앙은행)는 정책금리를 2.25%로 175bps 인하했고, 신용구조조정과 연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총당부채를 일시적으로 완화함
- 의회가 승인한 재정 패키지에는 보건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출, 비공식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우선적 지출 라인으로부터의 재할당, 세금지불 지연에 대한 벌금 유예 등이 포함됨

-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차입 한도를 16억 달러 증가시키고 FRL(재정책임법)을 최대 4년간 유예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 2020년 경제 동태는 코로나19 발병 대응으로 부각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 수확의 ‘정상화’ (1~2월 고빈도 데이터로 나타냄)로 2020년 1분기 호조를 보인 뒤 향후 2분기에는 경제가 강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팬데믹의 확대를 늦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결과로 외부 수요와 특히 서비스 분야의 내수의 감소에 의해 침체가 추진될 예정
 -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당국의 경제 대책은 충격을 완화시키겠지만 이를 완전히 보완하지는 못할 것임
- 2021-2022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성장률이 4%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목표와 FRL상한선을 향한 점진적인 복귀에 고정되는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의 도움을 받았음
 -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2021년 목표 범위(4%)의 중반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 앞으로 빈곤 감소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상되는 글로벌 불황에 직면하여 더 높은 사회적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상업, 서비스, 건설 분야에서 실업과 과소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 소득은 특히 도시지역의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가족 기반 농업의 성과는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
 - 또한 서비스업에서 보다 강력한 노동 소득 증가가 필요하여 도시지역 소득분배 최하위 계층의 생계가 개선되어 세계적인 유행병의 영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 파라과이의 은행 부문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노출이 적은 반면, 수출과 송금을 통한 실물 부문 연계는 더 강함
 - 더욱이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출의 집중은 성장과 빈곤을 농산물 상품 시장의 변동과 날씨 관련 충격(2019년)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망

- 경제는 2020년 1분기(4.4%)의 성장률과 대조를 이루며 GDP가 전년(2019년) 동기 대비 6.5% 감소해 2분기에 두드러지게 수축
 - 팬데믹과 관련 억제책의 영향으로 가계 지출과 투자 활동 모두 분기 내 급감함
 - 고정자본 형성과 정부 소비는 소심하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성장에 외부 부문이 긍정적으로 기여함
-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가 점차적으로나마 2020년 3분기에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 비록 파라과이가 파라과이의 지역 동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지만, 2020년 경제는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한 타격과 그와 관련된 제한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
- 2021년에는 가계 및 자본지출 회복과 국제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견고하게 회복되어야 함

□최근 경제정보:

- GDP 하락이 적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0.5%에서 1% 사이일 것으로 예측
 - 페냐는 방코바사의 GEN 채널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송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에서 “2020년 말 6%와 향후 4%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발언함

- 달러 가격이 PYG7,100에 도달하고 2021년에는 환율이 PYG7,200선에 진입하는 반면 파라과이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훨씬 좋아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페냐 장관은 “구조적 요인(일차 부문의 높은 참여율)과 위급사태 (농업 부문의 반등) 조합으로 파라과이가 지역 내 모든 국가 중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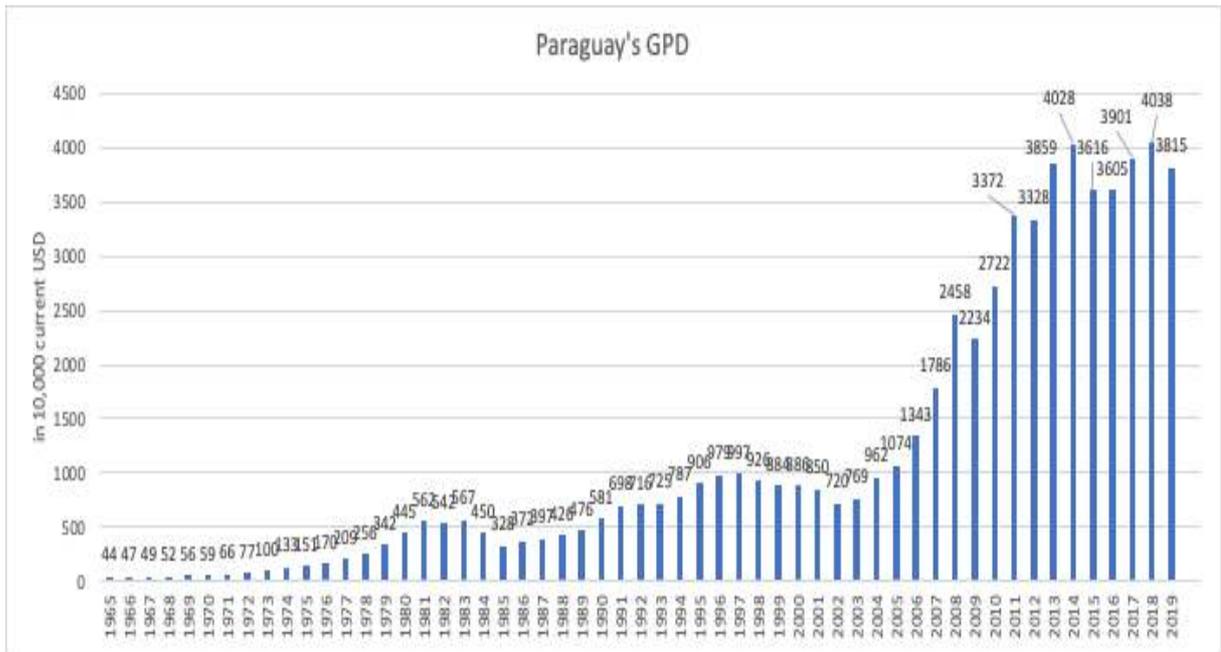


그림 17: 1986년부터 2019년까지 GDP

□ 2022년 9월 경제동향

- 재무부, 부채 상환을 위해 2023년 예산안의 10% 집행 예정
- ※ 주요 경제전망: 총 예산은 147.9억불, 재정적자는 GDP 대비 - 2.3%, 인플레이션 4.1%, 달러 환율은 1달러/7,098과라니, 세수 45.5억불로 전망
 - 2023년 면세액 5.8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8월 기준 재정적자 GDP 대비 -1.2%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함
- 중앙은행, 8월 기준 누적 인플레이션 7.2%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함
 - 7월 기준 가내대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69.6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함

- 남미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9.5(월)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 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
 - 자금세탁, 탈세 등 검거 대비 처벌 건수 및 수준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음
 - 자금 동결, 압류 등 금융적 제재가 미비한 수준
- 파라과이 산업연맹(UIP), 제조업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에 밀수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촉구
- 국립마킬라 수출위원회, 8월 기준 마킬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6.7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함
- 산업통상부(MIC), 9년8일-9월9일 Invest in Paraguay 비즈니스 포럼 개최함
 - Abdo 대통령, 파라과이가 역내 경제통합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중심축이 될 것이며,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2022년 파라과이 경제 동향(주요 경제 전망 및 경제지표 등)

가. 주요 경제 전망

- IMF는 지속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경제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22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을 0.3%로 예상하고, 2023년에는 4%대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은행은 파라과이의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을 당초 4%에서 0.7%로 대폭 하향 조정함
- 중앙은행(BCP)은 관광업 등 서비스 분야 수요 증가와 함께 1/4 분기 민간소비는 3.3%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은 2% 하락했다고 발표함

나. 주요 경제지표

- 통계청(IN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공식 고용은 전체 노동인구의 64.2%인 1,805,425명이었음
 - 2022년 1/4분기 파라과이 실업률은 8.5%로 역내 국가 중 브라질, 콜롬비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세수는 3억5,500만 달러(작년 동기대비 26% 증가)를 기록함
-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PM)에 따르면 파라과이가 역내 통화 중 달러 대비 가치가 가장 안정적인 통화라고 하였다.
 - 2022년 5월 기준 국가별 월간 통화 가치 변동률: △ 칠레 3.0%, △ 콜롬비아 7.5%, △ 브라질 5.8%, △ 우루과이 0.8%, △ 파라과이 0.3%, △ 페루 0.02%
- 중앙은행(BCP)은 2022년 5월 기준 월간 물가상승률 0.2% 및 금년 누적 물가상승률 5.4%를 발표함
 - 2022년 5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은 11.4%로, 2022년 4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인 11.8%보다 하회함
- ECA International 국제 데이터 분석 기업이 실시한 중남미 주요 도시 물가 조사에 따르면 아순시온은 중남미에서 물가가 저렴한 도시 3위(*1위, 메데진, 2위 싄타크루스)를 기록
 -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2위는 몬테비데오가 차지
-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CONASAM)의 결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1.4% 인상안(대통령령 7,270호)을 공포하였음
 - 월급은 2,289,324파라니→2,550,307파라니로 인상, 일당은 88,051파라니→98,089파라니로 상승함
- 동물검역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파라과이 육류 63%가 남미 역내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국제 가격 인상으로 소고기 수출액이 7% 증가하였으나, 수출량은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2022년 5월 기준 금년 소고기 수출 127,397톤(6억 8,350만 달러)이었음

□ (파라과이) 주간 경제동향 (2022.11.25.)

- ECLAC, 2022년 주재국 빈곤층 23.4%, 극빈곤층 6.9% 기록 전망
- Itau 은행, 2022년 주재국 경제성장률 -0.5% 기록 전망 발표
- Fitch Rating 국가신용도평가기구, 파라과이 신용도 평가 결과 BB+ 유지한다고 발표함
 - 2023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 5.8%로 전망함
- GV재단, 남미 주요 국가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10월 기준 파라과이는 13.6점 기록
 - 주요 남미 국가 평가 결과: △파라과이 13.6, △아르헨티나 -4.0, △브라질 30, △우루과이 -14.4, △칠레 -1.7, △페루 7.8
- 산업통상부(MIC), 2022년 농축산계 수출 작년 대비 12% 증가한 38.1억불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기준 실업률 6.3% 기록할 것으로 발표함
 - 인구조사 94% 도달 및 2023년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대통령실, 개인소득세 납세자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식료품, 의약품) 확대안을 거부함

□ 파라과이 경제 현황과 전망

1.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파라과이 경제는 2021년, 4.2% 성장하였는데, 파라과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20년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1차 산업인 축산업의 성장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건축업의 성장으로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1차 산업의 경우, 축산업(6%)과 임업/광업/어업(6.6%)은 성장하였지만, 농업(△16.5%) 부진으로 총 △4.1%의 성장률을 보였음

- 2차 산업의 경우, 전력산업이 부진(△8.6%)했지만, 제조업(6.6%)과 건설업(12.8%)이 성장을 주도했다고 발표함
- 2022년 5월 기준, 파라과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기존 6.75%에서 7.25%로 상향하기로 발표함
 - 22년 5월 기준, 2022년 파라과이 인플레이션은 연간 1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기본 식료품, 유가, 서비스 물가는 4월 기준, 2.3% 상승세를 보였음
- 2021년 12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Fitch, Moody's 및 2022년 5월 S&P사는 파라과이 신용등급을 모두 '안정(Stable)' 등급으로 평가함
 -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시경제 정책과 낮은 국가부채 등이 주요 요인임
 - 국채는 현재처럼 해외시장에서 투자 등급 대우를 지속하여 받을 것으로 전망됨

<파라과이 주요 경제지표 변동 추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1인당 명목GDP(USD)	5,792	5,451	5,017	5,282	5,368
명목 GDP(백만달러)	40,692	38,757	36,146	38,839	40,147
경제성장률(%)	3.7	0	-0.6	4.2	0.2
물가상승률(%)	3.9	2.8	2.2	6.8	8.5
실업률(%)	5.56	7.2	*8.2	8.1	8.5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7,969	7,900	9,490	9,946	9,388(5월)
외채잔액 (백만달러)	6,402	7,229	10,182	11,450	11,778(4월)
대미환율 평균(과라니)	5,960	6,453	6,900	6,885	6,826(4월)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 통계청)

*주: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일시 발생한 실업제외

○ 파라과이 경제성장률 및 명목 GDP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 코트라 무역관 자료 종합)

○ 2021년 경제현황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2021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2020년 경제실적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2020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0.6% 기록했다고 발표함
- 1차 산업의 경우, 농업(9%)과 축산업(5%)의 약진으로 총 7.1%의 성장률을 보임
- 2차 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과 전력산업이 부진했지만, 건설 부문에서 9.8%의 성장을 주도해 전체 0.4% 증가했다고 발표함
- 또한 2021년 파라과이 경제는 4%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이후 2020년 4분기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2019년 경제실적

- 2019년 상반기 부진으로 인해 전년(2018년) 동기 (1.2%) 대비 높은 성장률 (2.8%)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제로에 그쳤으며 공공부채 87.4억 불 기록

- 파라과이 공공부채는 87.4억 불 (GDP대비 23%), 정부 투자액은 9.06억 불을 기록함
- 동 투자액의 47%는 IDB 및 국채 발행으로 확보되었으며, 이 중 79%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집행됨
- 파라과이 중앙은행, 2019년 주요 경제 지표 발표내용:
 - 2019년 수출은 12.7억 불을 기록
 - 달러 화폐가치가 8% 상승
 -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
 - 2019년 인플레이션은 최근 10년간 최저치인 2.8%를 기록
 - 2019년 외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고 발표
- 2018년 경제실적
 - 남미 최고 수준인 4.5% GDP 성장률이 기대되었으나, 3.7% 성장에 그쳤음
 - 서비스업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호텔 및 레스토랑, 가정 내 서비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산업별 현황과 전망

< 주요 경제 부문별 성장률 >

(단위 : %)

구분	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잠정)	2022년 (전망)
재화	농업	3.4	-4.4	9.0	-16.5	-21.5
	축산업	-3.2	1.2	4.7	6.0	-1.5
	임업	1.1	-1.1	0.9	6.6	7.6
	어업	1.1	-1.1	0.9	6.6	7.6
	광업	1.1	-1.1	0.9	6.6	7.6
	제조업	2.4	-1.2	-1.2	6.6	0.4
	건설업	0.3	2.5	10.5	12.8	4.0
	재화총생산액	3.2	-0.2	-0.5	3.8	0.0
서비스	전력소비, 물소비	1.9	-11.5	-2.3	-8.6	-0.7
	교통업	1.4	0.5	0.9	7.1	0.0
	통신업	5.1	4.6	6.1	4.5	3.5

구분	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잠정)	2022년 (전망)
	상업	4.6	-1.6	-7.7	15.2	-6.3
	금융업	4.5	4.8	2.2	2.4	4.0
	부동산업	3.3	1.8	0.6	2.6	5.0
	회사 서비스	3.0	1.0	-11.3	10.0	8.0
	호텔 및 레스토랑	8.0	5.4	-32.0	19.4	17.0
	가정내 서비스	7.3	5.7	-12.2	17.8	9.6
	공공서비스	4.3	4.3	6.4	-2.9	1.0
	서비스총생산액	4.5	2.5	-3.1	6.8	2.2
세금	부가가치세	3.3	-2.7	-5.1	9.0	3.3
*양국 합작 수력 발전소	전력생산	3.2	-0.4	-0.8	4.2	0.2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 2022.05)

*주. 양국합작 수력발전소 전력생산은 브라질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따이푸(Itaipu) 수력발전소 및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스레타(Yacyreta)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일부분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판매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수요부문>

(단위: 백억 과라니,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민간소비	3,993	6.58	4,166.3	4.34	4,104.7	-1.48	4,616.5	12.47
정부지출	802.5	6.00	853.4	6.34	946.9	10.94	1,155.3	22.01
고정자본	1,196	9.35	1,219.4	1.96	1,407.5	15.42	1,660.8	18.00
수출	2,191.6	5.75	2,124.3	-3.07	2,152.3	1.32	2,255.1	4.77
수입	2,253.3	10.18	2,314.6	2.72	1,974.3	-14.70	2,882.3	45.99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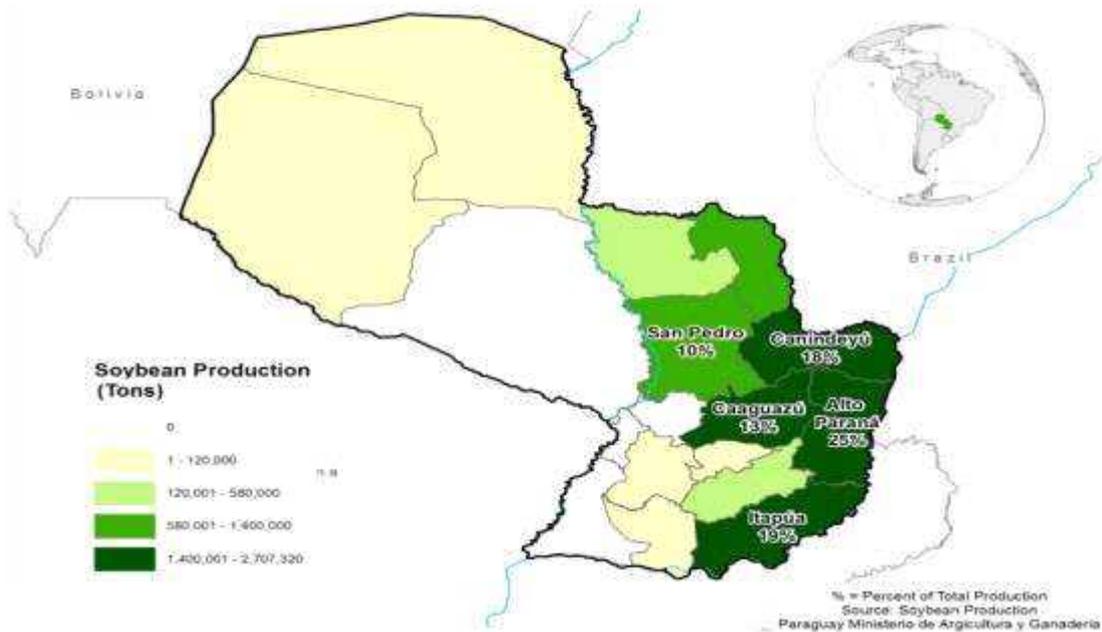
주: 2021년 수요부문 통계수치는 잠정 수치임.

□ 농업 및 목축업

- 2021년 기준 파라과이 농업 분야는 GDP의 7.0% 차지함
- 주요 농산물로는 대두, 옥수수, 참깨, 밀 등이며 특히 대두는 2021년 세계 6위의 생산량을 기록
- 파라과이 곡물 수출 및 상업협회 CAPECO에 따르면 대두의 경우 2020/2021년 총 9.4백만 톤 이상을 생산했으며, 수출은 6.3백만 톤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함
- 축산업은 2021년 파라과이에서 GDP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에 하나였음
- 하지만, 2022년도에는 그 성장이 미세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국제가격, 북미 시장의 수요 여부, 그 외 지속적인 가뭄이 이어진다면 축산업에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생산량 및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지역별 파라과이 대두 생산량>

Paraguay Soybean Production by Department



(자료: 미국 농무부 USDA)

< 파라과이 소고기 생산, 공급, 수요 통계 > (단위: 천톤)

분 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상)
생 산	610	560	530	555	610	570
총 수입	1	17	5	4	6	10
총 공급	611	577	535	559	616	580
총 수출	380	365	320	371	470	430
총 국내소비	231	212	215	188	146	150
총 유통	611	577	535	559	616	580

(자료: 미국 농무부 USDA)

- 파라과이는 총 17개의 주로, 동부 지역(14개의 주)과 서부지역 (3개의 주)으로 나뉘어 있음
- 동부지역은 파라과이 전체의 39%, 서부는 61%의 영토 차지
 - 서부지역은 축산업이 활성화된 지역(2020년 통계 동부 730만 마리, 서부 660만 마리)임
- 2021년은 파라과이 축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한 한해였음
 - 동물검역청 2021년 육류 수출 현황 발표에 따르면, 총 2,179,878마리를 도축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15.2% 증가한 수치임
- 파라과이산 육류는 약 60개국으로 수출되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5.2% 성장
- 주요 수출대상국: 칠레 36.7%, 러시아 18.82%, 브라질 10.42% 등

□ 건설업

- GDP의 7.8%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정부 주도의 공공인프라 건설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 건전성 계획으로 국가 프로젝트 발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문 주도로 4.5%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파라과이 정부는 재정 준칙을 운용 중으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2024년까지 공공 프로젝트 발주를 최소화 예정
 - 2024년 GDP의 2%까지만 건설 인프라 공사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민간부문 건설은 주택구매 금융상품이 보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음

□ 물가

- 파라과이는 2021년 6.8%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 2020년 2.2%, 2019년도 2.8%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음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2022년 인플레이션 예측을 8.2%, 관리 목표는 4.0%로 발표하였음
 - 가격 상승 : 연료, 육류, 주류, 가스, 자동차, 가구, 의료, 교통비, 교육비용 등
 - 가격 하락 : 곡물

2. 수출입 동향

(1) 개관

- 파라과이는 남미국가 중 자유무역주의 추구에 앞장서는 국가로서 수입 제한은 거의 없으며, 누구든지 수입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이 가능
 - 가국내 산업의 현지 생산이 적음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파라과이에서 수입 규제사례는 거의 없으며, 정부조달 시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 공동으로 적용하는 보호 무역주의 조치 가능성만 있음

< 파라과이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1년	14,025	21.5	13,086	29.9	939
2020년	11,494	-9.3	10,035	-18	1,459
2019년	12,701	-8.1	12,250	-5.1	451
2018년	13,819	3.1	12,918	12.1	901
2017년	13,396	11.8	11,524	17.7	1,872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 2021.12.)

주: 수출입액은 재수출 및 임시 수입 포함

□ 수입동향

- 파라과이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인도 등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수입량이 많으며,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권 국가가 높은 순위에 있음
 - 2021년 한국은 파라과이 주요 수입 국가 중 9위를 차지했으며 약 1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음. 비중은 약 1% 점유율로 비중이 크지는 않음
- 수입 품목은 고형 연료 외에는 휴대용 전화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비디오 게임 등 전자기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승용차 및 화물차, 비료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코로나19 이후 살충제 수입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청(DNA), 2021년 주요 국가별 수입 발표:
 - 주요 수입국: △1위 중국 46억 불 △2위 브라질 32억 불, △3위 아르헨티나 20억 불, △4위 미국 11억 불, △5위 인도 5억 불, △9위 한국 1.87억 불
- 파라과이 자동차기계 수입협회(CADAM): 2022년 3월 기준 신차 수입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8,031대 발표
- 주요 모델별 수입 순위:
 - △1위 현대 HB20 6.65%, △2위 토요타 Hilux 6.47%, △3위 쉐보레 Tracker 6.19%, △8위 기아 Tucson 2.70% 등

* 자동차 및 트럭 전체 수입량: 4위 현대, 5위 기아

<파라과이 주요 수입대상 국가들>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점유율(%)
1	중국	4,106	3,035	4,691	31.13
2	브라질	2,567	2,733	3,234	21.46
3	아르헨티나	1,823	1,588	2,017	13.39
4	미국	2,049	1,061	1,102	7.31
5	인도	208	233	524	3.48
6	독일	366	308	415	2.75
7	일본	325	266	270	1.80
8	러시아	134	126	188	1.25
9	한국	192	151	187	1.25
10	멕시코	192	164	187	1.24

(자료: Penta-transaction, 2021.12.)

□ 수출동향

- 파라과이의 주요 수출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러시아 등으로 인근국이자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한국은 파라과이 주요 수출 국가 중 점유율 0.21%로 25위를 차지함
- 수출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파라과이 곡물 수출협회(CAPECO): 파라과이는 전 세계 29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음
 - 수혜국은 브라질, 칠레,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등이 있음. 옥수수 수출 전년 대비 17.5% 감소한 2.53백만 톤 기록 발표
 - 주요 (옥수수) 수출대상국: 1위 브라질(66%), 2위 칠레(14%), 3위 한국(8%), 4위 우루과이 (5%)

<파라과이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점유율(%)
1	아르헨티나	2,699	2,900	3,789	37.17
2	브라질	1,352	1,664	2,520	24.72
3	칠레	505	663	951	9.34
4	우루과이	455	457	567	5.57
5	러시아	333	242	380	3.73
6	미국	139	188	229	2.25
7	볼리비아	81	77	182	1.79
8	대만	74	120	179	1.76
9	네덜란드	43	158	171	1.69
10	이스라엘	121	111	147	1.45

(자료: Penta-transaction, 2021.12.)

3 사회 동향

□ 사회

- 파라과이의 역사 대부분 동안 농촌과 도시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있었음
 -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주로 아순시온에 있는 도시에서 살았고, 친척 관계와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었음
 - 비록 대중이 농촌에 살았지만, 지주(상업 농민)와 소작농(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사이에는 분열이 존재했음
- 모든 계층의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가족은 사회적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음
- 대부분의 파라과이인들은 과라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공공 및 사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영
- 파라과이 사람들은 “조파라”라고 불리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함
 - 과라니어는 1967년 헌법에서 국어로 인정되었다. 과라니어로 많은 뮤지컬과 연극 작품이 제작됨

□ 교육

- 1870년에는 인구의 약 14%가 문맹이었음
 - 2012년까지 파라과이는 초등 교육 87%, 중등 교육 65%의 순 등록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에는 35%의 등록률만이 등록됨
- 2018년 기준 15~24세 문맹인구는 2만3천명 이상으로 68%가 남성이고, 15세 이상 문맹 인구는 29만3천명 이상이며, 47%가 남성임

□ 기술 접근성

- 파라과이 인구의 약 96%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24%만이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며 20%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음
- 도시 인구의 29%에 비해 농촌 인구의 7%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음
- 지난 15년간 강력한 경제 성장과 괄목할 만한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한 파라과이는 2030년까지 더 번영할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이 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함
- 개발에 대한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파라과이는 여러 제약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 구체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개방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
 - 파라과이는 또한 추가적인 사회 발전과 포용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빈곤 감소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음
 - 절대 빈곤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12%에서 4%로 감소했으며, 이는 2030년까지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게 하는 속도임
 - 전기, 향상된 위생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확산되고 있음

□ 사회적 관계

- 식민지였던 파라과이는 생산적인 광산, 전략적인 항구, 수익성이 좋은 농장 농업이 부족했음
 - 식민지 시대의 대부분을 거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제국의 낙후 지역으로 낙후되었음
 - 이 지역의 파라니어를 사용하는 인디언들은 주로 스페인 정착민들과의 높은 결혼율과 첩의 신분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 끌어들였는데, 이 과정은 몇 세대 안에 메스티소 사회를 형성함
 - 그 결과 문화적 통합에서 지배적인 언어는 파라니어로 남았고, 지배적인 사회 제도와 문화는 히스패닉으로 남음
 - 남아 있는 소수의 히스패닉 지배자들은 3국 동맹 전쟁의 격변으로 대부분 제거되었고, 메스티소 농부들의 동질적인 인구를 남김

- 16세기 중반 예수회가 철자법을 발전시킨 후 쓰여진 형태를 포함했던 과라니어는 파라과이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음
 - 과라니어는 파라과이인들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으며, 1967년 헌법에서는 과라니어를 국어로 인정하고 있음
 - 과라니어 극장은 파라과이의 작품과 유럽 고전 번역이 모두 공연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인기를 끌었으며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로 된 가사는 파라과이 문화의 특징임
 - 사회언어학자 조안 루빈은 파라과이를 “과라니어를 사용하는 국가” 로 묘사했음
 - 스페인어-과라니 이중언어 사용 빈도가 높아 각 언어는 뚜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 스페인어는 16세기부터 공용어였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정부, 교육, 종교의 언어로 남아있었으나, 모든 계층의 파라과이 사람들은 대부분 과라니어를 사용함
- 언어 사용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함
 - 과라니어는 보다 친밀한 맥락에서 적절하며 스페인어는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됨
 - 그것은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존중을 암시하며 상류층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특징임
 -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파라과이 사람들은 1960년대까지 과라니어를 사용함

□ 코로나19 대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 파라과이는 전염병 기간 동안 전염병 곡선과 싸우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임
 - 일단 의무적인 검역과 후에 국경 폐쇄가 결정되자, 공중 보건 사회 복지부(MSPyBS)는 훨씬 더 철저한 국가 입국 통제와 함께 이주 초소에서 건강 경계를 강조함
 - 의심스러운 사례들은 의무적으로 통보되었고 여행자들은 보건 당국에 자진 신고되었으며, 군사 기지에 격리 수용소가 설치되었음

- MSPyBS는 환자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며 알림과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보낼 수 있는 지리 지역화된 앱을 준비함
- 검사에 관해서는, 검역 시작에서 파라과이는 매일 30개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국립 호흡기 및 환경 질병 연구소(INERAM)와 같은 보건소의 경우, 알버디 구립 병원, 이타우구아 국립 병원, 열대 의학 연구소 등이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조정됨
- MSPyBS의 자료에 따르면, 두 달 동안 73개의 중환자실이 추가 되었으며, 72개 보건직에는 2,389명의 의료인이 편입되었음
- BCP의 입출력 매트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은 1.61의 곱셈 인자를 가지고 있음
 - 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제품에 대한 총 효과는 Gs 1.61임
 - 이는 기업과 사람들은 은행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분석
 - 또한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날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관찰되지 않음
- 따라서, 경제 활동의 감소를 줄이고, 그것과 함께, 일자리 감소, 금전적, 재정적, 재정적 필요함
 - 금전적, 재정적 자극은 경제의 신용 방해를 피하기 위해 결정적임
 - 재정 부양책은, 처음에는, 기업과 사람들을 위한 세금 경감책으로 주어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비공식적인 직업을 주로 가지고 있는 인구에서 더 취약한 부문으로 이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공공 서비스 지불은 연기됨
- 현재의 시나리오는 기업이 지출과 단기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는 폐업과 일자리 감소를 악화시키고, 제품의 잠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경제적 손실과 고용에 대한 영향

- BCP의 성장 전제를 기반으로, 두 시나리오(팬데믹 이전과 팬데믹)에 대해, COVID-19 세계적인 유행병의 결과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서 받는 것을 중단할 금전적 가치를 예측함
 - 이와 관련하여, 추정치는 이러한 전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도 다양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총 30억8,700만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됨
 - 수익 부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기록적인 수확을 거둔 농업 부문이 유일할 것임
 - 가장 큰 손실은 식당 및 호텔 부문에서 발생할 것임(8억3,800만 달러). 제조업(4억6,800만 달러); 가정 서비스(3억1,300만 달러)와 상업(2억9,800만 달러)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두 서비스 부문에 속함
 - 또한, 예상 손실이 적은 생산적인 활동으로는 임업, 어업 및 광업(500만 달러), 통신(700만 달러), 가축 사육(1,100만 달러) 등이 있음
 - 가축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생산자들이 먹이를 줄 적절한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수의 동물을 도살 처분하도록 할당했기 때문임
 - 게다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해 세수는 2억 9천 2백만 달러 감소할 것임
- 2019년 4분기 경제 3차 부문이 214만6,533명을 고용했고, 2차 부문이 66만785명을 고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상품으로 표현되는 손실은 노동 시장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2차, 3차 분야에 취업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함
 - 이와 관련해 노동사회보장부(MTESS)의 수치는 약 22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의 63%). 일자리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의 위험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부문은 제조업, 상점, 식당, 호텔,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임

-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관찰될 수 있음
 - 실제로, 노동력에서 여성의 약 78%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52%임
 - 여성의 3차 분야 참여도가 높기 때문이며, 실제로 여성들은 건설, 운송, 저장 및 통신,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임
- 특히 민간 부문 근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큰 위험은 3차 부문과 제조업에 있음
 - 전체 민간 부문 근로자 수에서 61%가 업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조치(정지 또는 해고)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 90만 명의 직원에 달함
- 정식 근로자의 비율은 69%
- 노동부는 비상법으로 최장 6개월간의 근로계약 일시중단을 달성함
- 파라과이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망연구소 (IPS)는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COVID-19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관찰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되는 주요 사회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중산층의 위축: 소득 감소, 소비 감소, 더 저렴한 제품과 브랜드로의 전환, 중산층의 위축
 - 취약 계층의 취약성과 규모 증가: 소득과 소비의 감소로 인해 만들어진 중산층으로부터 온 취약 계층 증가
 - 빈곤 증가: 취약 계층의 몰락과 기존 빈곤의 심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의 심화, 사회적 촉진 과정의 중단
 - 사회적 불평등 증가: 소득과 서비스 접근성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증가
 - 교육 격차의 확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과 기술 장치의 차이로 인해 교육격차 확대
 - 소득격차 증가: 다양한 사회 집단들 중에서 거의 모든 범주에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격차 증가

- 공공 정책에서의 희소한 접근: 성별, 아동기 및 노인에 대한 공공정책에서의 희소한 접근
- COVID-19의 사회적 영향 중 하나는 소득 감소와 다차원 빈곤 지표에 대한 저조한 성과로 인해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화일 것으로 추정됨

□ 성별

- 종종 원격 근무가 추가되어야 하는 생산적, 재생산적 업무의 곁질로 여성의 노동 시간이 늘어났음
- 가정폭력 콜센터 전화 건수 증가(2019~2020년 78% 더 증가)는 경제적·사회적·개인적·개별적·가족적 건강 등 서로 다른 불확실성의 복잡한 연속이 만들어낸 가족 내 스트레스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

4 산업 동향

□ 요약

- 파라과이의 경제는 10년 이상 적절히 자유로웠음
 - 비록 이 지역의 느린 성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간 GDP 성장은 안정적이었음
 - 파라과이의 2020년 경제 자유 점수는 63.0점으로, 세계 80위였음
 - 2021년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00위이내에 들지 못했음
 - 정부 지출을 더 잘 통제했기 때문에, 경제자유점수는 1.2점 증가했고 미주 지역 32개국 중 15위로 전체 점수가 지역과 세계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음
- 정부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마약 조직들의 증가하는 힘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 법치

- 법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지속되는 문제들은 주로 파라과이의 경제적 자유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정부는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세금과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그 제안들은 노조와 좌파 반대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4가지 자유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일관된 부동산 조사와 등기소 부족으로 종종 부동산 권리 및 계약을 불안한 상태로 두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 취득이 어려워짐
 - 사법부는 명목상 독립적이지만 돈세탁, 마약 밀매, 기타 범죄 행위, 특히 브라질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때때로 판사를 위협하며, 부패방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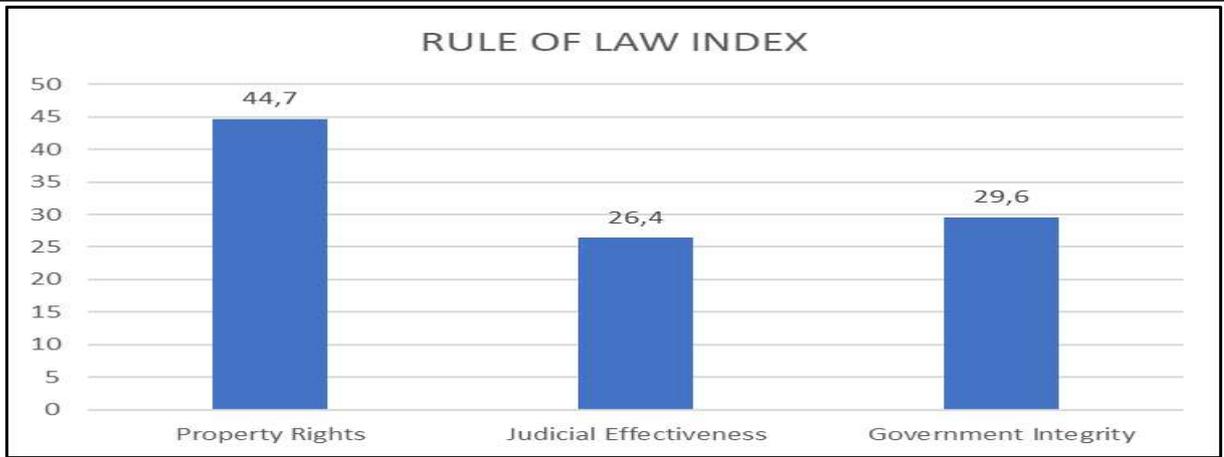


그림 18: 파라과이 법치 지수

Property rights(재산권), Judicial Effectiveness(사법효과), Government integrity(정부청렴도)

□ 정부 규모

○ 최고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10퍼센트임

- 다른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가 포함되며 전체 세금 부담은 국내 총소득의 13.8%에 해당됨
- 지난 3년간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9.5%에 달했고 예산적자는 평균 GDP의 0.8%에 달해 공공부채는 GDP의 21.6%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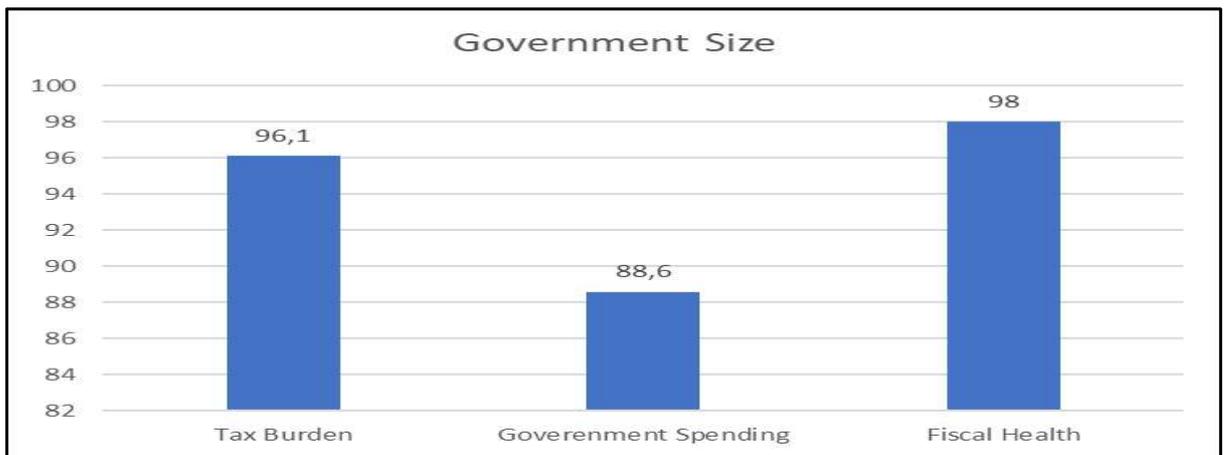


그림 19: 파라과이 정부 규모

Tax burdern(세금부담), Government spending(정부지출), Fiscal Health(재정건전성)

□ 규제 효율성

- 구조 개혁의 느린 속도는 기업가 정신에 악영향을 미쳤음
 - 장기 정규직 해고의 어려움으로 인해 규모가 큰 비공식 부문의 한 지표인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임시’ 인력 채용을 부추김
 - 정부는 공공 운송, 연료 수입 및 유통, 통신, 주류 및 시멘트 분야에서 전기 요금을 설정하고 국영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함



그림 20: 파라과이 규제 효율성

Business Freedom(사업자유), Labor Freedom(노동자유), Monetary Freedom(금전자유)

□ 공개시장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총액은 GDP의 69.8%에 해당됨
 - 평균 적용 관세율은 4.8%이며, 16건의 비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대부분이 민간 투자에 개방돼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도 공식적으로 보장되지만 전반적인 투자체제는 효율성이 떨어짐
- 금융 서비스와 중개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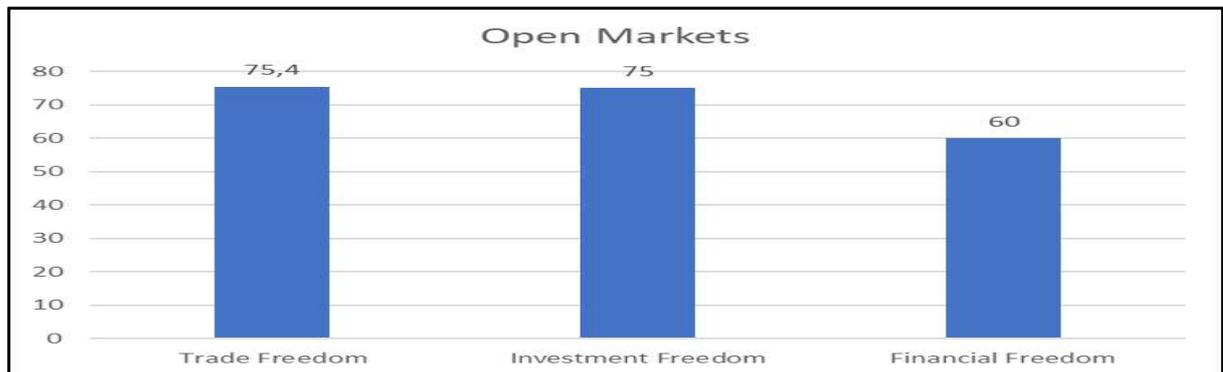


그림 21: 파라과이 시장 자유

파라과이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추구한다. 바스 B. 바커와 토비아스 로이, IMF 서반구 부서. 2020년 7월 2일.

Trade Freedom(무역자유), Investment Freedom(투자자유), Financial Freedom(금융자유)

- 파라과이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나 다른 충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에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RFI(신속 금융수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을 요청했음
 - 2억 7400만 달러의 대출이 2020년 4월 말에 승인되었고 다른 국제 기구들의 도움으로 보완되었음

□ 다음은 무엇인가?

- 경제 회복이 강화되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재정적자는 GDP의 1.5%인 재정 책임법의 상한선으로 돌아가야 하며, 완충장치를 재건하는 것과 국민과 경제를 계속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
-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출과 더 강한 수익을 모두 갖는 것이 중요함
 - 파라과이의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거의 비슷하고 다른 신흥 국가들보다 훨씬 낮음
 - 작년(2019년)의 세계개혁은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었지만, 국내 세입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할지도 모름
- 부유한 나라들과의 소득격차가 계속 좁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코로나19 이전에도 파라과이의 미래 성장은 지난 15년보다 더 느려짐
 - 그 성장의 추진체 중 일부(농산물 가격 상승과 경작지의 급속한 확장)가 힘을 잃었기 때문임
- 실질소득 성장은 빈곤의 급격한 감소에 기여하면서 GDP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던 2000년대에 비해 급격히 이미 둔화되고 있음
 - 그것은 콩 가격의 상승으로 설명되며 파라과이가 수출되는 콩 1톤당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빈곤률을 더 느리게 하락하게 하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음
-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성장 자극을 가까스로 가지고 있지만, 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보고서는 강력한 통치, 좋은 기업 환경, 인적 자본이 가난한 나라들이 더 빨리 더 높은 소득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함
-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다른 신흥 국가들에 비해 이 지표들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도전들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COVID-19와 관련된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함
- 단기적으로, 이 계획은 더 높은 공공 투자를 추구함(이는 고용에 도움이 된다)
- 비공식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및 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이전(소득과 소비를 안정시키는 것)
- 이 계획은 또한 공무원 개혁, 재정 책임법의 재검토, 국가의 행정 개혁, 그리고 더 나은 공공 조달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한 구조 개혁을 제안함

□ 파라과이 산업동향

□ 1. 파라과이에서 가장 큰 산업

- 파라과이는 중간 소득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GDP는 1986년 약 34억 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583억 달러 수준이었음
- 파라과이의 경제는 농산물에 크게 의존한다. 일부는 콩과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출함
- 정치적 불안정과 결합된 소수의 광물 자원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70년 수력 발전 가능성, 농작물 수출, 건설, 농업 식민지화 등으로 1970년대의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가 1980년대로 접어들었음

- 농업 경제가 국가의 중심에 있었고, 낮은 세금 징수와 함께 이 과도한 의존은 경기 침체를 촉진했음
- 파라과이는 광대한 수력 발전과 젊은 인구와 같은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중임

□ 2. 농업

- 연간 국내총생산의 약 20%는 파라과이 노동력의 45% 고용을 책임지는 농업에서 비롯됨
 - 이 산업은 콩과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 식민지화가 재배를 위해 더 많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속한 발전을 목격함
- 파라과이는 충분한 기초 식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음
 - 밀, 옥수수, 카사바는 파라과이의 주요 식량 작물이며 대두 생산은 1960년대에 촉진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장 두드러진 작물이 되었음
 - 이탈리아-파라과이 회사 그룹은 아순시온 (Asuncion) 근처에 1,000만 달러의 면화 공장과 가공된 면화 수공을 건설했으며 주로 브라질과 이탈리아로 수출함
- 브라질 투자자들은 다른 면화 공장을 건설하고 개조함
- 파라과이는 또한 커피, 감귤류, 땅콩, 쌀, 사탕수수, 수수, 콩, 고구마를 생산함
 - Chaco 지역은 동부 평원뿐만 아니라 유제품 및 목축 산업의 본거지임
- 파라과이의 삼림은 연료 목재와 목재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킴
 - 목재 수출로 인해 한때 풍부한 삼림이 감소했음

□ 3. 제조업

- 전국의 첫 번째 제조업은 가죽을 가공하고 수많은 케브라초 나무 생산과 풍부한 소에서 가죽을 만드는 것이었음
 - 프란시아 독재 시절 번창했던 섬유와 같은 소규모 제조, 파라과이의 섬유 및 가죽 하위 분야는 가죽 가죽 및 면화 섬유의 가용성으로 뒷받침됨
- 목재 생산 및 가공은 파라과이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임
 - 파라과이의 원목 수종은 독특한 목재를 가지고 있으며 1,800만 헥타르 이상의 열대 우림을 자랑함
 - 이 목재 재료는 건물 및 목공 구성품, 목재, 마루판 목재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변환됨
- 국내 제약 업계는 꾸준히 성장해 현재 70%의 지방 소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분야는 외국 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의약품 수출도 하고 있음
 - 파라과이의 주요 제조 품목은 식품 및 음료, 비금속 광물, 종이, 가죽 및 모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설탕 수출국이며, 또한 상당한 시멘트 생산 부문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수입은 파라과이의 섬유 부문을 위협하고 있음

□ 4. 에너지 산업

- 수력 발전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90%의 전기를 수출하며 파라과이 전력의 거의 100%를 차지함
 - 파라과이의 수력 발전 댐은 코퍼스 크리스티, 이타이푸 댐 및 야시레타댐임
 - 이 댐들은 파라나와 파라과이 강을 따라 존재하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으로 설립됨

- 국가 전기 관리국은 전국 전력 시장을 세대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감독
 - 단지 2개의 회사만이 국유 기업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배전하기 위한 양허를 가지고 있음
 - 이타이푸(Itaipu) 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3.3 기가 와트 (GW)의 발전 용량을 자랑함
 - 파라과이는 2004년 댐 전기생산량의 50%에 불과한 16%를 소비했으며 나머지는 브라질로 보내졌음
 - 야시레타(Yacyretá) 댐은 900 메가 와트(MW)의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 파라과이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60% 이상이 아순시온 지역에서 사용됨
 - 주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41%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력은 각각 18.3% 및 26%이다. 파라과이 거주자의 거의 90%는 2005년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음

□ 5. 서비스업

- 국가 GDP의 약 51%는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함
 - 파라과이가 파라나와 파라과이 강에서 깊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과 운송이 가장 중요한 하위 분야임
 -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강은 경제에 특히 중요함
-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품목을 수입하여 재수출을 하는 것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다른 서비스 하위 분야는 아직 파라과이의 GDP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역사와 독특한 민속 예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 농업 및 가축 양육에 종사하는 농촌 시설은 스포츠, 휴식 및 현장 활동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을 환영함
 - 이 시설들 중 하나는 아순시온에서 291km 떨어진 아그로가나데라 제주(Agroganadera Jeju; Jeju Agricultural Farm, 제주 농업 농장) 강 여행과 낚시를 위한 일류 조건을 제공함

□ 6. 은행 업무 및 재원

- 광범위한 부패 보고서가 다수의 주요 은행들로 하여금 영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했을 때부터 은행 부문은 1995년의 유동성 위기로부터 계속 회복하고 있음
- 외국 기업은 파라과이의 금융기관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 파라과이 공화국의 중앙은행은 1995년에 목격된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를 예방하는 임무를 추진중임
 - 수다메리스 은행(Sudameris Bank)은 파라과이 내에서 운영되는 기관들 중 하나임
- 파라과이의 주식 시장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가족 운영 사업의 전통이 1990년대에 낮은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1993년 이래로 운영되어 왔음
 - 파라과이에는 또한 중앙은행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대규모 신용조합 산업이 존재함

□ 2021년 파라과이 산업 개관

- “인구 700만 명의 작은 내수시장, 농축산업 수출 호조 지속 전망, 중요한 비중 차지”

1. 산업 구조

- 파라과이의 산업 구조는 크게 농업, 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으로 구분됨
 - 2020년도 파라과이의 GDP는 약 356억 달러로 파라과이 중앙은행 BCP에 따르면 서비스업 48.8%, 제조업 18.3%, 농림축산업 10.8%, 기타(건설 및 세금) 13.9%를 차지했음. 농축산업은 수출 1위 산업을 기록하고 있음
- 파라과이 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축산업으로, 대두, 소고기 등 주요 수출 품목 상당수를 생산하면서 파라과이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 국가신용등급은 2021년 5월 기준 ‘투자’ 등급 아래인 ‘안정’ 등급을 유지 중
 - 국채는 현재처럼 해외시장에서 투자 등급 대우를 지속하여 받을 것으로 전망됨

<산업별 부가가치 점유율 비교>

구분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재화	농업	6.4	3.4	-4.4	9.1	-7.0
	축산업	2.9	-3.2	1.2	4.7	12.0
	임업	-1.7	1.1	-1.1	-4.3	5.5
	어업	-1.7	1.1	-1.1	-4.3	5.5
	광업	-1.7	1.1	-1.1	-4.3	5.5
	제조업	6.2	2.4	-1.2	-0.5	8.5
	건설업	3.5	0.3	2.5	12.6	14.0
	재화생산총액	8.5	3.8	-6.1	8.8	4.1
서비스	전기 및 수도	-2.5	1.9	-11.5	-1.8	-6.6
	교통업	7.8	1.4	0.5	1.1	8.8
	통신	5.5	5.1	4.6	6.3	5.5
	상업	9.6	4.6	-1.6	-7.8	9.5
	금융업	1.5	4.5	4.8	4.0	4.0
	부동산업	4.7	3.3	1.8	0.5	2.7
	회사서비스	3.8	3.0	1.0	-11.9	6.1
	호텔 및 레스토랑	6.8	8.0	5.4	-30.7	6.5
	가정내 서비스	5.6	7.3	5.7	-14.7	10.0
	공공서비스	1.6	4.3	4.3	5.2	-2.7
	서비스생산총액	5.2	4.5	2.5	-3.3	4.8
세금	부가세	8.1	3.3	-2.7	-3.9	4.4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 (BCP) (2021년 9월 확인치)

2. 산업정책

- 파라과이는 자국 내 생산제품이 적고 재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함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생산설비 이전 등 소규모 투자를 통해 각종 생필품, 건축용품,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는 경제 개발 10년 계획 (2020~2030년)을 시행 중에 있음

○ 농목축 가공업 및 임업

- 대두 등 곡물 및 유지작물은 파라과이 경제의 핵심산업이지만, 농업기술 미비로 주변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농산물 가공 분야 투자를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목축환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목축 및 피혁가공 분야도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파라과이 북·남부지방에 총 1,000만ha 상당의 천연림을 보존하고 있으며, 410만ha 규모의 재조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파라과이 소고기 생산, 공급, 수요 통계>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생산	610	560	530	1,000	1,200
총 수입	1	17	5	3	3
총 공급	611	577	535	1,003	1,203
총 수출	380	355	320	350	500
총 국내소비	231	212	215	670	680
총 분배	611	567	535	1,020	1,380

자료: 미국 농업청 (USDA) (2021년 10월 확인치)

○ 건설업

- GDP의 7%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정부 주도의 공공 인프라 건설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2020년 인프라 투자금액 10억3,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증액함
- 파라과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건설분야 건축자재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9.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정부 추진 프로젝트로 농촌 지역 5,800호 주택 건설, 교통망 정비, 지방 포장도로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계획을 발표함
- 더불어 파라과이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PPP (민관협력사업)의 절차 간소화 시행령을 공포했음 (2020.10)

○ 자동차 산업

- 파라과이의 자동차 산업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자동차부품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자동차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 중 한국 기업이 파라과이에 최초로 투자 진출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브라질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음

* 파라과이 자동차용 케이블 투자진출 기업: THN, FUJIKURA, YAZAKI, LEONI 등

3. 산업 육성책

-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 유치, 수출증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2000년부터 보세가공 무역제도인 ‘마킬라 제도 (법령 1067/97)’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임시 수입을 허용함
- 완제품을 생산해 재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생산된 제품 중 10% 범위 내에서 관련 관세 및 세금 납부 후 국내시장 판매도 허용함
- 마킬라 제도를 통해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면세 혜택, 낮은 에너지 요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C) 내에 ‘마킬라 수출진흥 위원회 (CNIME) 를 운영 중에 있으며, 파라과이 국경지대에서 성행하는 밀수 등 지하경제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마킬라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 파라과이 마킬라 수출협회 (CEMAP) 에 의하면 2020년 마킬라 (보세가공) 활용 수출액은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1년도에는 7억3,000만 달러 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렇게 마킬라 제도로 생산된 수출품의 대부분은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9%는 태국,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CEMAP에서는 마킬라 엑스포를 주최하는 등 마킬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음

4. 규제산업

- 파라과이 정부는 대부분 산업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규제 및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의 수입규제 또는 금지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법률 No.1095/84에 있는 품목들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No.1095/6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수입제한 품목 내 제품 수입이 가능함
-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파라과이의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 진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될 수 있음
 - 수입금지 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조류, 중고 신발, 중고 의류, 위험산업 폐기물 등 임
 - 수입제한 품목으로는 식료품, 마약 및 유사약품, 주사기와 주사침 등이 있음

자료: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파라과이 마킬라 기업 상공회의소 (CEMAP), 파라과이 중앙은행 (BCP),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2021.11.10.)

□ 2022년 산업구조 전망

제조업(19.9%), 상업(10.3%), 공공행정(9.3%), 농축산업(9.2%), 건설(7.8%), 전력생산(7.3%), 금융(5.5%), 가정 내 서비스(5.1%), 교통(3.9%), 통신(2.8%), 요식/숙박(1.9%), 기타

(출처:파라과이 중앙은행(BCP), 파라과이 통계청(DGEEC))

□ **교역 규모 변화**

- 수출: US\$13,396백만 (2017년), US\$13,819백만 (2018년),
US\$12,701백만 (2019년), US\$11,494백만 (2020년),
US\$14,025백만 (2021년), US\$4,275백만 (2022년 4월)
- 수입: US\$11,524백만 (2017년), US\$12,918백만 (2018년),
US\$12,250백만 (2019년), US\$10,035백만 (2020년),
US\$13,086백만 (2021년), US\$4,557백만 (2022년 4월)

□ **주요 교역품**

- 수출: 곡물(대두, 옥수수, 쌀, 밀), 육류, 가죽, 목재, 양모, 사탕수수, 전력, 플라스틱 원료, 섬유 원단, 조제 사료
- 수입: 연료, 전기 전자,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방역제품, 건설자재, 식음료, 타이어 등

5 ESG 관련 동향

□ 요약

- 파라과이는 지난 60년 동안 막대한 삼림 벌채로 고통을 받아왔음
 - 입법과 국제 협정을 통해 이러한 광범위한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
 - 게다가 1992년 헌법은 환경 보호와 개조를 위한 틀을 마련함
 - 이러한 조치들은 새로운 규제 조치가 시행된 세기가 바뀔 때까지 대부분 무시되었고 시민들과 NGO들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함
- 현재 파라과이의 환경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파라과이의 환경정책

- 지난 60년 동안 널리 퍼지고 통제되지 않은 삼림 벌채 관행은 이 남미국가의 동부 지역인 파라과이의 오리엔탈 지역을 파괴시킴
 - 1945년에는 880만 헥타르(2,174만 5,273에이커)의 숲이 이 지역을 뒤덮었지만, 오늘날에는 160만 헥타르(395만 3,686에이커)도 채 남아 있지 않음
- 민간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국가 경제의 기반인 제품 수출을 위해 목재를 사용하는 것과 파라과이를 뒤흔든 환경 악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조화시키는 법안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함
-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기본협약(FCCC)과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BD)은 파라과이가 비준한 두 개의 매우 중요한 국제협약임
- FCC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회의(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됨
 - 파라과이는 이 협정을 자연의 풍부한 자원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정부와 비정부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함

- 또한 파라과이는 1993년에 환경보호법으로서 CBD를 채택함
 - 이 협정은 생물 다양성 또는 “해양과 다른 종류의 물 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지 생태계, 그리고 자연 부분의 생태학적 복잡성을 포함한 모든 원천의 생물 다양성” 을 보호함
- 1992년 승인된 파라과이의 국가 헌법은 “사회적 관심의 우선 목표: 인간과의 화해, 보존, 개조, 환경 개선” 으로 규정함
 - 제8조에서 그 문서는 “유전자 자원과 기술의 교섭, 국익 보존” 에 대한 규제를 명령함
 - 이 기본 규정을 완성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CBD에 열거된 모든 목표를 포함하는 유일한 입법인 1992년 야생동물법임
- 파라과이의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법안은 1999년 파라과이가 FCC에 관한 교토 의정서에 서명할 때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음
 - 그 결과 1999년 12월 15일, 파라과이 가입 운영 사무소(OPIC)가 FCC와 관련된 관리와 조치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됨
- 2000년에 이 과제는 새로 창설된 환경부 장관으로 재배정됨
 - 이후 환경부 장관은 국가 환경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최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장관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무국은 설립 이후 강력한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연간 예산 자금이 부족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환경 허가증 부여와 관련된 여러 부패 사례를 야기함
-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과 국제 사회의 도움, 입법 조치 덕분에 최근 상황은 줄어들고 있음
 - 매우 효과적인 환경 옹호 캠페인을 통해 국가 및 국제 수준의 비정부 기구가 큰 기여를 함
 - 게다가, 환경 관련 정부 경력은 개발 과정에 있다. 환경 범죄는 최근 형사입법에 포함됐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 검사가 만들어졌음

- 지난 5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법은 ‘산림파괴 제로’와 ‘환경서비스의 평가와 응보’임
 - 이 조치들은 부패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부터 보호받는 야생 지역을 선언함
 - 또한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은 “국제적 중요한 습도와 관련된 협약”과 수자원 보존에 관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협약인 “Cuenca del Plata 협약”에 의해 보호됨
- 이 두 가지 법률은 합리적인 자원 활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함
 - 또한 브라질과 공유된 이타이푸와 아르헨티나와 공유된 아시레타의 수력 발전 댐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점 역할을 함
 - 실제로 수력 발전 회사의 환경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은 쿠엔카 델 플라타 협정이 유일함
- 2004년 지하수법은 향후 합리적인 물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승인됨
-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파라과이의 환경 상황이 점진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는 것
- 밀레니엄 목표를 위한 캠페인(Plan Umbral)의 제안된 목표는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었으며, 목표의 90%를 완수함. 향후 목표는 보다 효과적인 규제 및 활용 관행을 요구하는 것임

□ 환경 규제 및 지속가능성

-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콩과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남아메리카의 농업 생산량이 급속히 확대됨
- 세계 4위의 콩 수출국이자 전 세계 10대 소 생산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압박의 대상이 되었음
-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남아 있는 숲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지역 인구 사이의 농약 사용과 토지 분쟁을 제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에 대한 요구가 생겨남

-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대규모 농업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모두 농업 분야의 투자자들에게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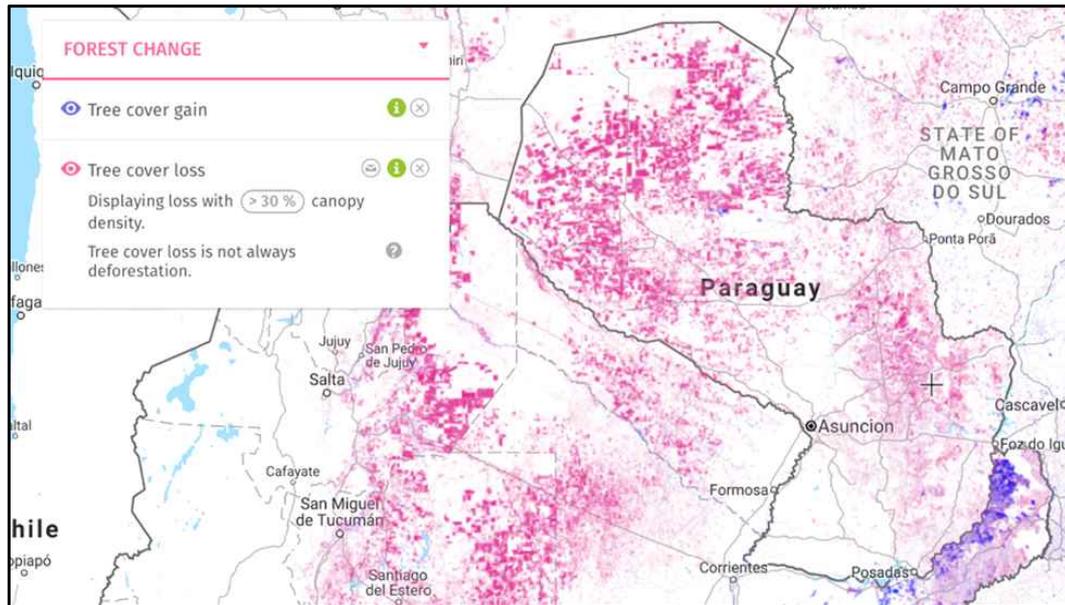


그림 22: 파라과이 보호된 지역들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파라과이에서 변경된 총 나무 범위는 5,099,895헥타르의 손실과 51,023헥타르의 이익을 포함

□ 지속가능성

- 2004년, 파라과이는 대서양 숲에 “산림 벌채 제로” 법을 제정함
 - 이 특별한 생물 군락 숲의 100%가 보호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규제가 심함
 - 파라과이의 나머지 6개의 생물 군락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걸쳐 있는 차코 지역에 속함
 - 2007~2008년 개발된 차코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사항만 담고 있으며 대서양림 수준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음
 - 대서양림에서 그러한 법이 제정된 지 5년 만인 2009년 차코에 대해 “산림벌채 제로법”이 제안되었으나 거부됨

- 2010년 대서양 지역의 삼림 벌채를 감시하기 위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은 벌금, 매우 높은 부패 수준으로 공공 규정의 집행이 현저하게 낮음
 - 대서양 숲의 100%가 보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의 숲만이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단속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규정에 의해 명시된 50%의 보호와 비교하여 숲의 25%만이 효과적으로 단속되는 차코 지역에서 훨씬 더 낮음
 - 두 지역에서 삼림 벌채가 면밀히 감시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 능력은 현저히 부족함
- 전반적으로, 삼림 벌채 규제의 위험은 주로 이윤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에 있음
 - 수요가 다소 일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산림 보호구역의 조성으로 인한 가용 토지 공급 감소는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따라서 농업 회사의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적발될 위험이 낮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이행 제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음
 - 차코 바이오메스와 같은 '녹화 피난처'로 운영을 옮기면, 더 규제된 지역에서 운영과 관련된 거래 및 기회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속 가능한 모범 사례의 채택을 촉진하고 공급망 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RTRS와 같은 다수의 인증 프로그램이 등장함
 - 실제로, 이 자발적인 프로그램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살충제의 사용과 만연한 삼림 벌채가 수그러들지 않는 동안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 RTRS 프로그램은 파라과이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요구가 성장할 경우, 농산물에 고무 스탬핑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입증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럽 위원회는 2011년에 RTRS를 인가하여 EU 바이오 연료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증된 콩을 승인함
- 그린 워싱 프로그램은 환경 관행 주변에 연막을 만들거나 소비자들이 탄소 발자국에 특히 민감한 프리미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위험 완화 전략으로 입증될 수 있음

□ 사회적 갈등

- 세계적인 농산물 수요 증가는 파라과이 농부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쳤음
 -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공장 농업은 전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발전하여 250만 에이커를 콩밭으로 만들어 많은 수의 자급자족 농부들과 소규모 소실업가들을 대체함
 - 환경 및 토지 이용 규제가 없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MNC)는 특히 유동적인 상황
 - 한 토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들은 새로운 지역 주민을 방해하고 위협에 빠뜨리면서 쉽게 다른 곳으로 사업을 옮길 수 있음
 -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여, 캄페시노 농민들은 농업 거인들의 침해에 저항하고 강력한 환경 개혁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이해관계 세력으로 부상함
- 콩 생산량이 많은 몇몇 지역에서는 살포 관행을 규제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78%의 가정이 농작물에 살포하는 데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이 건강 위기는 지역 농부들이 기후 변화와 농작물 손실의 결과로 입은 막대한 부채와 결합되어 캄페시노의 급진화를 부추겼음
 - 최근 소규모 농부들은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규모 농부들의 부채를 면제하고, 더 큰 환경 규제를 발동하고, 지역 농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음
 - 만약 정부가 농약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토지를 둘러싼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운영 비용은 상승할 것
 - 다국적 기업(MNC)의 이동은 제한될 것이고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음

III. 사업 여건

1 인프라 여건

□ 요약

- 파라과이의 인프라 요구는 특히 교통과 공중 보건 및 품질 측면에서 엄청나며, 전력 생산은 견실하지만 국내 배전은 매우 열악함
- 파라과이의 인프라를 개선하면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을 촉진할 것임

□ 인프라 부족과 인프라 투자의 부족

- 파라과이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인프라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는 공공 투자 노력을 배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파트너들에 비해 상당한 “인프라 적자”에 직면해 있음
 - 다른 지표들도 인프라 요구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교통, 공교육 및 보건에서 부족한 실태(그림 23 참조)
 - 주요 예외는 대규모 국가 수력 발전 용량을 감안할 때 전력 생산이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 배전은 열악하며(그림 25 참조). 인프라 품질도 다른 신흥 시장에 비해 좋지 않음
- 파라과이의 경우 공공 부문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 중 하나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공부채와 함께 매우 강력한 공공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년간 다른 부문에 비해 거의 투자하지 않았음
 - 높은 인프라 지출이 두드러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파라과이는 양과 질 면에서 인프라 요구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음
 - 투자 자본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파라과이의 공공 자본 저장은 GDP의 44%를 차지했는데, 이는 신흥 시장의 평균 79%,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84%와 비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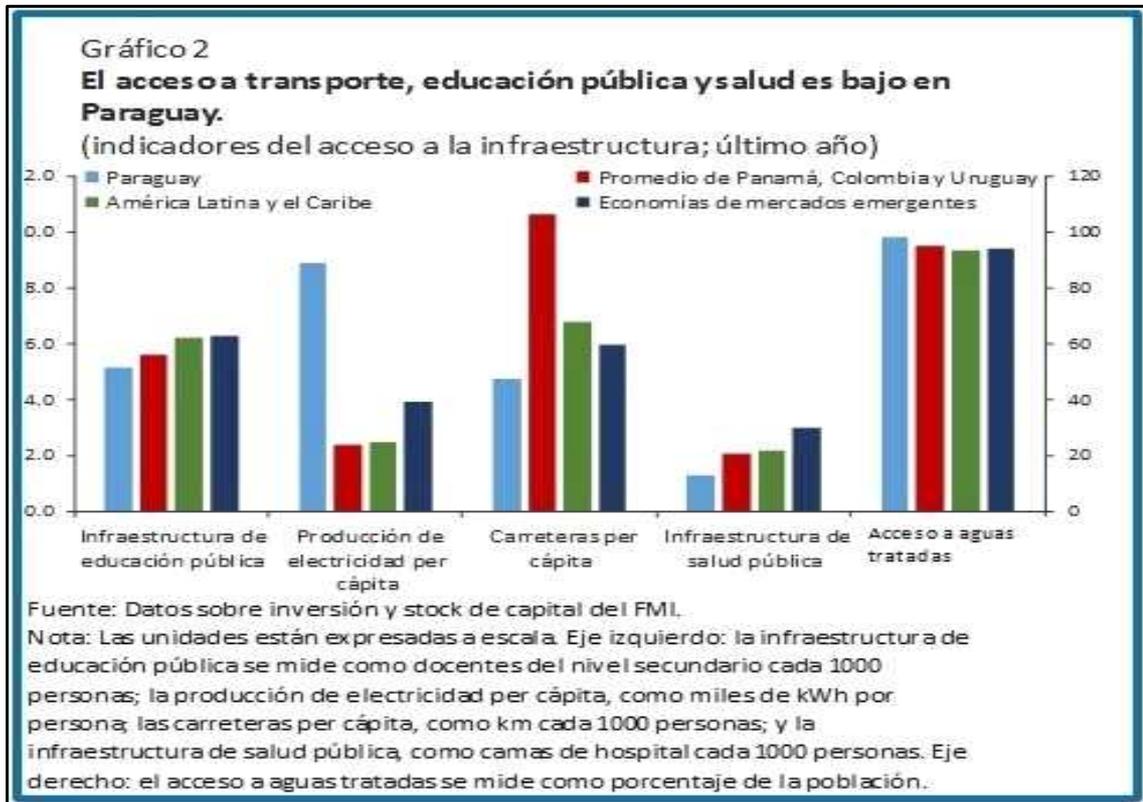


그림 23: 교통, 공교육 및 보건에 대한 접근

Grafico 2(그래프2)

El acceso a transporte, educación pública y salud es bajo en Paraguay (Access to transport, public education and health is low in Paraguay): 파라과이의 낮은 교통, 공공 교육 및 건강 접근성

indicadores del acceso a la infraestructura; último año (indicators of access to infrastructure; last year) :인프라 접근성 지표(작년)

Paraguay(파라과이)

América Latina y el Carib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Promedio de Panamá, Colombia y Uruguay (Panamanian, Colombian and Uruguay): 파나마, 콜롬비아, 우루과이의 평균

Economías de mercados emergentes (Emerging market economies): 신흥 시장 경제

Infraestructura de educación pública (Public education infrastructure): 공공교육 인프라

Producción de electricidad per cápita (Electricity production per capita): 1인당 전기 생산량

Carreteras per cápita (Roads per capita): 1인당 도로

Infraestructura de salud pública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공공보건 인프라

Acceso a aguas tratadas (Access to treated waters) :처리된 물에 대한 접근

Fuente: Datos sobre inversión y stock de capital del FMI (Flow: IMF investment and capital stock data) : 흐름- 국제통화기금 투자 및 자본 재고 자료

Nota: Las unidades estan expresadas a escala Eje izquierdo(Note: Units are expressed at left axis scale): 주) 단위들은 왼쪽 축에 표시된다.

la infraestructura de educacion publica se mide como docentes del nivelsecundario cada 1000 personas(the public education infrastructure is measured as secondary teachers per 1000 persons); 공공 교육 인프라는 1000명당 중등 교사의 수로 측정.

la produccion de electricidad per capita, como miles de kwh por persona las carreteras per capita, como km cada 1000 persona; y la infraestructura de salud publica, como camas de hospital cada 1000 personas. Eje derecho; el acceso a aguas tratadas se mide como porcentaje de la poblacion(per capita electricity production, such as thousands of kwh per person, per capita roads, such as km per 1000 people; and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such as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Right axis; access to treated waters is measured a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1인당 1000kwh와 같은 1인당 전기 생산량, 1000명당 km와 같은 1인당 도로, 그리고 1000명당 병원 병상과 같은 공공 보건 인프라; 오른 축은 처리된 물에 대한 접근이며 인구 비율로 측정

- 인프라 격차는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함
 - 새로운 인프라는 생산성(토지, 노동력 및 기타 물리적 자본)을 높여 새로운 투자 및 기타 생산 요소를 자극할 수 있음
 - 교통의 질이 좋아지면 노동자들의 노동력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로 조건이 갖춰져 있어 창업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공공투자를 늘리면 4년 뒤 생산량을 1/2%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수익률은 연간 15%가 될 것

□ 투자하기 위해 빛을 지고 있는가?

- 인프라 투자에 대한 파라과이의 높은 사회경제적 수익과 파라과이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공공 투자를 강하게 자극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채를 늘려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적어도 일부 유형의 프로젝트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이 선택 사항일 수 있음
- 그러나 파라과이는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근본적으로 공공부채의 증가와 이러한 자금의 운명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제동이 될 수 있음

- 더 많은 돈을 차입한다는 것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이나 금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파라과이의 공공부채의 적절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분석에 따르면, 파라과이 부채의 “위험이 없는” 수준은 GDP의 30%에서 45% 사이일 수 있음
 - 중요한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세대와의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투자에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있음
- 또한 부채 서비스 비용을 초과할 수 있는 수익을 프로젝트들이 제공하는 경우에, 현재 낮은 이자율 수준을 이용할 수 있음
 - 파라과이는 국제 국가 부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마지막 순위는 10년 만기와 5% 이자였음

□ 투자 효율성

- 파라과이의 낮은 공공 자본 수준은 수년간의 열악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을 반영하므로 파라과이는 가장 잘 수행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아래에 있음
 - 즉, 투자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음
 - 제한된 프로젝트 선택 및 평가 능력, 다년간의 예산 책정 프로세스의 부재 및 인프라 기업의 불충분한 규제, 관리의 병목 현상을 감안할 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범위가 있음
- 기관, 프레임워크 및 기본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이미 시작되었음
 - 그러나 위험 없이 돈을 빌리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우려하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실태

□ 주요 인프라 사업 동향(2017.6월)

1. 아순시온 국제공항 현대화사업 입찰

- 공공사업통신부(MOPC,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Communications)는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순시온 국제공항 현대화사업 유찰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MOPC는 감사원에 유찰권고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 사전심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동 권고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2. 9번국도 건설 사업계획

- MOPC는 중남미개발은행(CAF)으로부터 2.5억 달러를 지원받아 9번 국도(Transchaco) 건설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3. 공공사업통신부-주택청, Costanera Sur사업 MOU 체결

- 아순시온 강변 Costanera Sur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사업통신부, 주택청, Itaipu 수력발전소, 아순시온 시청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 계획을 발표함
- ※ Costanera Sur 개발사업: 3단계로 진행 예정인 동 사업은 총 예산 2.5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Colon길부터 Cerro Lambare까지 총 4km 4차선 도로 건립, △영세민 주거지 5천 가구 건립, △저지대 간척 등을 포함함

4. 아순시온 시청 교통체계 개선 계획

- 아순시온 시청은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통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함
- ※ 교통체계 개선 계획: △신호 대기시간 단축, △주요 도로 좌회전 금지, △교차로 개선, △주택가 도로를 일방도로로 변환, △주요 도로 불법주차 단속 강화, △차량 번호판(홀수, 짝수)으로 시내 운행 제한, △버스정류장 설치 등

□ 18억 달러 인프라사업 추진

- 파라과이 정부가 람바레(Lambare)강 수처리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18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함
- 파라과이 공공사업부(MOPC)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와 수자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 금액은 약 18억 달러로 추정됨
 - 재원은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일본국제협력단(JICA) 등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정부가 밝힌 프로젝트는 먼데이(Monday) 강 상수 시스템 건설, 람바레강 수처리사업, 양대양(Bioceanic) 고속도로 3구간 건설 사업 등임
 - 구체적으로 보면 먼데이강 상수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는 상수시설과 플랜트 건설, 상수관 연결,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등이 주요 과업이며, 약 2억 달러가 투입됨
 - 사업비는 IDB, JICA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IDB는 이미 75만 달러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람바레강 수처리 사업은 수처리 플랜트 건설과 이순시온 등 권역 내 지역 하수처리시스템 개선 작업을 주요 골자로 함
- 양 대양(Bioceanic) 고속도로 3구간은 총연장 219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됨
 - 재원은 다자개발은행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발주는 EPC 턴키 방식으로 추진됨

□ 대형 인프라 사업계획

- 파라과이는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 취임 이후 농업, 목축업 의존의 산업에서 벗어나 열린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해외투자를 흡수하고 있는 나라임

- 2014년부터 매년 10억 달러씩을 투자하여 17개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 3억 달러 이상의 고속도로 사업,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아순시온 국제공항 현대화사업, 25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수처리 사업까지 정부 발주공사가 대기 중에 있음
- 지난 2011년 일성건설은 파라과이에서 정부 공사로는 처음으로 국제경쟁 입찰이 진행된 카사파 시와 유티 시를 잇는 8번 국도 80킬로 도로공사를 입찰하며 파라과이는 물론 남미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였음

□ 파라과이 도로 품질 수준

-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 대륙 한 가운데 위치한 내륙국으로 물류의 90% 정도를 도로가 담당하지만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임
 - 도로품질 경쟁력도 세계 141개국 중 126위로 열악하며 향후 도로 포장 공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
-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파라과이 도로 관련 기술과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작했음
 - 이를 계기로, 파라과이 기술연구소 구축을 통한 한국형 도로 기술표준 도입으로 파라과이와 중남미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

2 한국 투자 현황

□ 요약

- 한국의 인프라 투자나 파라과이에 대한 다른 종류의 투자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 프레지던트 프랑코(파라나 강, 시우다드 델 에스테 근처)와 쿠루콰이티(파라과이 강)로부터 철도 시스템을 위한 사업타당성 차원을 위한 두 가지 협력 프로그램이 있음
- 앙카르나시온에서 아르티가스까지의 화물 철도 시스템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코이카의 자금 지원을 받음
- 한국 건설사 일성건설은 최근 PY8 도로에서 일했고 현재 이타푸아 수출회랑 도로에서 건설중임

□ 파라과이 인프라 시장 문(門)을 열다 : 파라과이 8번국도 건설 사업 한국 기업 단독 수주

- 지난 2014. 3.17.(월)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는 파라과이 까르떼스(Cartes) 정부(2013.8월 출범)의 주요 국책사업인 8번국도 건설 사업*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단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함

* 8번국도 건설 사업: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을 포함, 파라과이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8번국도 상의 까사파(Caazapa)시-주뜨(Yuty)시 간 80km 왕복 2차로 정비-건설 사업, 발주액은 8천만불 규모임

- 수주 기업: (주)일성건설
- 까르떼스 정부가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한 최초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인 파라과이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발주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한 최초의 사례
 - 또한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 건설 기술을 파라과이에 홍보·전수하는 한편, 물류 대부분을 도로운송에 의존하는 파라과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을 통해 금번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였음
 - 향후에도 기업가 출신인 까르페스 정부의 대형 인프라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임

□ 일성건설 소개

- 1978년 6월 일성건설(주)으로 설립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
- 일성건설은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산업단지 조성 등 토목공사와 아파트, 콘도미니엄, 건물 신축 등 건축공사, 녹지조성사업 등의 조정공사, 아파트 분양 사업 등으로 성장해온 종합건설 회사
- 최근에는 SOC사업, BTL 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 FED 공사, 해외공사, 환경 플랜트 공사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계열사로는 일성개발LLC, 유씨오 마케팅그룹(주)가 있으며, 현재 몽골, 파라과이, 미얀마에 종속기업을 두고 있음
 - 5개의 계열사로는 일성건설을 포함하여 Ilsung Development LLC, ISUB LLC, Ilsung Victoria Paraguay S.A., Ilsung Construction Myanmar co., Ltd가 있음

□ 일성건설 - 파라과이 8번국도 정비사업공사 수주배경 및 진행현황

- 일성건설은 2014년 남미의 파라과이 인프라시장에 진출하여, 파라과이 까르떼스(Cartes)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8번 국도 정비사업 공사에 단독 사업자로 선정됨
- 본 공사는 8,000만 달러 규모로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포함한 파라과이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8번 국도상의 까사파(Caazapa)시 ~ 주뜨(Yuty)시 간 80km 왕복 2차로 정비·건설 사업임
- 파라과이 까르떼스(Cartes) 정부가 국제 공개 경쟁 입찰로 발주한 최초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파라과이에서 당당히 대한민국 업체가 최초의 국제입찰경쟁 프로젝트를 수주함
- 경제적인 이득이나 손실을 떠나, 파라과이에 국제입찰로 진출한 외국 건설회사로서 파라과이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음

□ 일성건설 - 파라과이 추가공사 수주계획

- 현재 일성건설은 파라과이 8번국도 정비사업공사의 후속 공사로 도로 및 복합개발사업 등 파라과이 인프라 및 개발사업 등에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최근 입찰을 앞두고 있는 양 대양(Bioceanica)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Project Financing(PF) 형태로 파라과이에서 최초로 일성건설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도전하고 있음
- 이외에 최근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재원으로 발주된 7,000만 달러 규모의 도로공사에 지난달 입찰 참여하여, 현재 입찰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일성건설 해외 건설 계획

- 몽골 현지에서 일성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트루엘’을 내걸고 해외에서 성공적인 분양 첫 사례를 남겼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주차 빌딩 프로젝트의 분양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하와이 폐수처리 공장 프로젝트로써 호놀룰루 미25사단 주둔 지역 내에 당사의 폐수처리 공법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증플랜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말레이시아 Banting 지역에 팜오일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플랜트 제작(BPOM) 및 설치작업 완료하고 지역내 건설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중에 있음

□ 한국의 파라과이 경제교류 현황

1. 한국-파라과이 양자교류의 배경

- 한국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등의 협의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파라과이와의 정치·외교·경제적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협력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총 9년간 파라과이의 보건 의료체계 개선, 인프라 개발,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지원할 계획임
 - 이는 고성장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이 파라과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가적 개발정책의 시행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2. 한국-파라과이간 경제교류 현황

- 2020년을 기준으로 파라과이의 대(對)한국 무역수지는 1억 2,710만 달러(한화 약 1,5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한국은 중남미 국가 보건의료 체계 지원을 위해 5,300만 달러(한화 약 650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고,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사업을 추진해 파라과이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13억 원)를 지원함

- 우루과이 및 기타 중미지역에도 300만 달러(한화 약 37억 원)를 제공했음
-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라과이 인프라 사업의 사례로는 공립병원 개선 사업, 고속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4억 달러 규모의 체르카니아 아순시온 - 이파카라이(Cercanía Asunción - Ypacaraí) 철도선사업을 들 수 있음
- 또한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전파함과 동시에 특유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중
 - 현재 파라과이 계란 소비량의 30%가량을 한인 농가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지명도 높은 한국계 브랜드인 뉴트리후에보스(NutriHuevos)는 계란 생산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임
 - 직물류 제조기업인 김스타월(Kim's Towel)을 통해 파라과이산 원자재와 현지인력을 통해 국내시장에 수건을 공급하고 있음

3. 한국-메르코수르간 FTA 협상

- 파라과이는 아순시온 조약을 통해 남미 인구의 70%, 지역 전체 GDP의 68%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의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음
- 한국은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메르코수르(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나 태평양연합(회원국: 페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역내 협의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중에 있음
- 2005년에는 한국-메르코수르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됨
- 2018년부터는 FTA 체결을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2021년 6월과 8월에는 상기 FTA 관련 제6차 및 7차 회담이 차례로 개최됨
 -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앞으로 상품, 서비스, 정부구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해외투자,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쟁 등의 세부분야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한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는 기존의 농산품과 기타 유망상품의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시아권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됨

4. 중남미의 한국식 무역모델 도입방안

- 한국과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교역에 존재하는 물리적 도전요소로는 지리적 거리로 인해 물류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국이 강점을 지닌 디지털 과학기술분야를 바탕으로 파라과이를 비롯한 중남미에도 최신 거래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 정부는 2019년 10월에 한국식 디지털 무역체계를 서로 다른 시장과 중점분야를 지닌 여타 국가들로도 수출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인프라 건설계획을 발표함
- 만약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파라과이 등 중남미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제 교류를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현황

- 총 투자신고건수: 59건, 3,900만 달러 (2022년 1월 기준)

□ 한-파라과이 투자 동향

-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개방 국가이나, 지리적 원거리와 상대적 투자 우선순위 열위로 한국의 對 파라과이 직접투자는 미미한 상황
 - 대 파라과이 투자는 2011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파라과이 진출기업은 정보, 일성건설, 삼성전자, LG전자, 티에이치엔(THN), 건화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등이 진출 기업임
 - 티에이치엔(THN)에서는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 공장을 운영 중임

<연도별 한-파라과이 투자진출현황>

(단위: 천 달러)

년도	법인구분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6년 누계	현지법인	농업,임업 및 어업	5	3	6,100	12	1,775
	현지법인	제조업	11	3	3,870	13	2,564
2010	지사		1	0	31	0	0
2011	현지법인		1	1	90	1	90
	현지법인		1	0	50	0	0
	지사		1	0	0	0	0
2012	현지법인		2	1	133	4	133
	현지법인		1	1	500	1	45
	현지법인		1	0	500	2	30
	지사		1	0	0	0	0
2013	현지법인		3	0	608	3	608
	현지법인		4	1	2,216	7	626
	현지법인		0	0	0	4	230
2014	현지법인		1	0	380	3	380
	현지법인		1	0	300	0	0
	지점		1	1	200	1	200
	지사		1	0	0	0	0
2015	현지법인		1	0	634	2	634
	현지법인		2	0	600	1	300
	현지법인		2	2	1,588	2	1,000
2016	현지법인		2	0	1,265	2	735
	현지법인		1	1	253	1	253
2017	현지법인		1	0	286	1	286
	현지법인		1	0	10	0	0
2018	현지법인		1	0	650	2	650
2019	현지법인		3	1	2,034	3	788
	현지법인		1	1	360	1	360
2020	현지법인		1	1	770	2	579
	지사		1	0	25	0	0
	지사		1	0	90	0	0
2021	현지법인		3	0	8,732	2	705
	현지법인		1	0	7,597	1	7,597
	현지법인		4	0	11,000	4	11,000
합계			62	17	50,872	75	31,56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4월 기준)

3 주요 PPP 사업 전망

□ 공공사업부, 28억불 규모 인프라사업 추진계획 발표

- 파라과이 공공사업부는 Cartes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지난 2015.8.11(화) 지난 2년간의 성과 및 금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공공 인프라사업 추진계획 발표회를 개최함
- Gaona 장관은 최근 2년간 파라과이 공공인프라 투자 규모 및 집행률 증가 등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파라과이 정부의 노력을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중 국제입찰을 통해 총 28억불 규모의 아래 중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사 업 명	추진방식	사업규모
국도2, 7호선 확장사업	PPP	3.5억불
아순시온 공항 현대화사업	PPP	1.47억불
국도7호선 동부구간 사업(183km지점 이후)	PPP	1.2억불
파라과이강 개발사업	PPP	2억불
파-브 제2우정의다리 연결도로 건설사업	Project Financing	2.42억불
남미횡단도로 파라과이 구간 사업 (Carmelo Peralta ~ Lomo Plata구간)	Project Financing	3.15억불
국도9호선(Transchaco)개보수사업	Project Financing	3.83억불
아순시온 강변도로 남쪽구간 사업	Project Financing	2억불
Lambare, Luque, Roque Alonso지역 하수처리망 사업	Project Financing	4.25억불
기타 사업	PPP, PF, 차관 또는 정부예산	3.96억불
합 계		27.78억불

□ 5억달러 철도사업 국내기업 참여 청신호

- 총 사업비 5억달러 규모인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으빠까라이까지 약 43km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사업임
 - 건설기간은 5년이며, 민간이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민관협력사업 (PPP)으로 추진됨
- 5억달러 규모의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에 국내 한국 기업의 참여가 추진중에 있음
-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아르놀도 빈스 두르크센 파라과이 공공사업 통신부장관이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고 밝힘
- 양국은 이번 양해 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 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함
- 이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는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개발 협약서’ 를 체결함
 - 이후 KIND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2021년 5월 현지 보고회를 진행함



주: 아순시온 경전철사업 노선도. 붉은색은 복선, 푸른색은 단선.

- 현대엔지 · 현대로템 · LS일렉 · 계룡건설 등이 민관협력조직으로 참여함

□ 파라과이,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 활용 확대 예정

- 파라과이 정부가 앞으로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최근 파라과이 정부가 ‘파라과이 인프라 회의’ 를 개최했음
 - 프라모사스 장관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인프라 부문에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함
- 파라과이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과 턴키 입찰 방식을 주로 활용할 방침임
 - 프라모사스 장관은 해당 턴키 법안에 의거하여 파라과이 국내 자금은 물론 해외 기업과 기구의 자금까지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생산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파라과이는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 생산 방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국 - 파라과이 철도 협력 세미나 개최 안내 (2021.10.26, 화 이순시온 현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국토교통부,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및 파라과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 아 래 -
- 주 최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일 시 : 2021.10.26.(화), 14:00 ~ 17:00 - 파라과이 이순시온 현지 시간
- 장 소 : Paseo Galera 호텔 이벤트홀
- 참석자 : 국토교통부, KIND, 공공사업통신부, 파라과이철도청, 국내 및 현지 철도 관련 기관/업체 등

□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2020 프로젝트 발표

-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 ‘2020 파라과이 건설교통부 프로젝트’ 발표
- 파라과이 정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PPP 적극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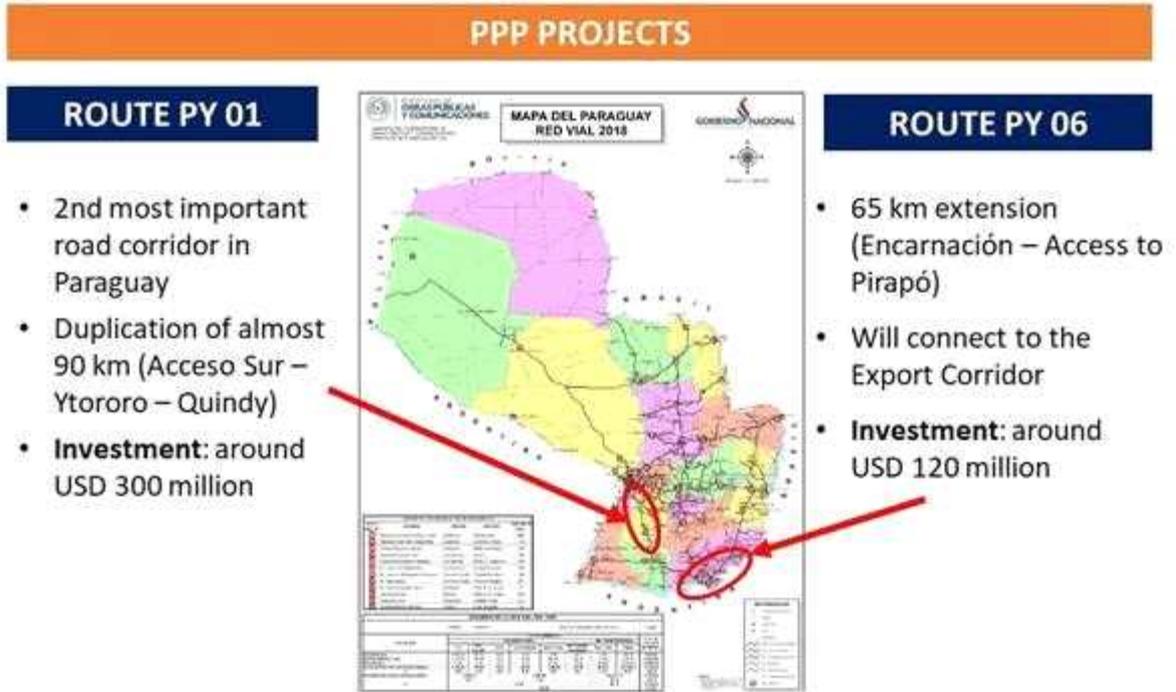
1.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2020 프로젝트 발표 개요

- 일시 : 2020년 11월 6일
- 주관 :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
- 방법 : 유튜브

2. 파라과이 정부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의 전략 프로젝트(DIPE)국 Jorge Vergara 국장은 민간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DIPE를 소개함
- 주요 업무는 PPP, 개발권, 턴키 프로젝트 그리고 파라과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
- 사업 구조화 단계에 있는 PPP(민관협력) 프로젝트
- 1) 1번, 6번 국도 프로젝트
 - 남부 고속도로라 불리는 파라과이 1번 국도는 국가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도로로 약 100Km의 도로를 두 배로 확장할 예정임
 - 약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이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로인 만큼 도로 폭 확장 및 순환도로 건설 등이 예산에 포함됨
 - 특히 수출 창구인 파라과이강의 항구들로 연결되는 주요한 출입 통로이므로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함
 - 보조 도로 확장과 더불어 도시 간 순환 도로 건설 또한 포함되어 규모는 약 1억 2천만~1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두 프로젝트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사업(PPP) 과정을 완료하기 위한 조사도 민간 분야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1번과 6번 도로 프로젝트>



자료: MOCP - DIPE 자료

○ 2) 10번 도로 프로젝트

- 10번 도로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 중이며 SAN CRISTOBAL에서 MBOCAYATY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임
- 현재 포장이 되어있는 45km부터 추가로 70km를 연장하고자 하며 해당 지역 도로의 이용률을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함
- 이 도로는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데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주요한 도로로 활용 계획임

○ 3) 페리 시스템 사업

- 아순시온 도심으로 시민들을 수송하는 페리 시스템 사업은 민간 제안(unsolicited proposal) 프로젝트로 발주 예정임
- 아직 비공개 단계에 있지만, 사업 규모는 약 8천만 달러로 예상하며, 10~12개의 쌍둥선을 혼잡시간대에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는데 10~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년간 유동인구는 약 6백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4) 파라과이강 교통신호등 설치와 준설공사
 -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물류 중심지, 물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야간 운항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신호 등 설치 등이 야간 운항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본 프로젝트는 민간제안사업이며 파라과이 영토에 속한 구간으로, APA 강과 아순시온을 잇는 구간이기도 함. 타당성 조사가 승인된 프로젝트이며 내년에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임

- 5) “북부 상하수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림삐오, 루께, 산로렌소 도시들을 위한 “북부 상하수도 파이프라인” 이라 명명하는 프로젝트가 있음
 - 이 프로젝트는 4억5 천만 달러의 투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10만 가구이며, 이 지역에 상수도과 하수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
 - 특히 림삐오 시 지역을 위한 사업이며 파이낸싱이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 민간 제안(unsolicited proposal) 프로젝트로 현재는 초기 단계인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으나, 시기에 맞추어 발주할 예정

- 6) 까빠아따시 하수도 공사 및 수처리 플랜트
 - 본 프로젝트는 파라과이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인 으빠까라이 호수 주변 아레과, 산베르나르 디노, 피서지 및 관광지로 그 주변 위생 설비공사 계획에 통합되어 있른
 - 지금은 초기 단계이며, 프로젝트 금액 책정 등 그 밖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가는 단계에 있음
 - 이 프로젝트 또한 PPP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다른 PPP의 시발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음

○ 7) 6개도시 통합 처리 플랜트

- 남부 지역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한 3개의 통합 플랜트 프로젝트도 있음
- 1단계 넴브와 산안토니오 시 지역에 약 2억 달러 규모의 제안이 들어와 있으며, 여기에는 식수 공급에 관한 모든 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 2단계 빌레타와 3단계 누에바 이탈리아 시를 위한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들의 사업 규모 책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중에 있음
- 현재 2개 프로젝트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속에, 남쪽에만 약 4억 달러로 투자가 책정돼 있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8) 근교철도 사업

-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1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지원이 승인된 아순시온과 루계를 잇는 약 15km 구간의 경전철 프로젝트임
- 첫 단계는 약 3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고, 이후에는 으빠까라이 시까지 30km 구간을 연결하는 근교철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음

○ 9) 턴키 금융 프로젝트 (EPC-F)

- 아직 EPC-F(턴키-금융) 방식으로 진행할지, MDB 중 의논중이나, 해당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레퍼런스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파라과이가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양 대양을 이을 수 있는 대륙 간 고속도로이기 때문
- 현재는 까르멜로베랄타에서 로마빨라따까지 첫 번째 구간이 마무리 중이며 다음 단계인 마리스칼에스띠가리비아에서 뽀소온도까지 연결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보고 있음
- 해당 사업은 322km를 잇는 약 5억 2천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임

<턴키 프로젝트>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



GOBIERNO
NACIONAL



Paraguay
del Sur

10

PROJECTS WITH FUNDING (LAW 5074)

ROUTE PY 15 CENTINELA – POZO HONDO (2ND PHASE)



- 322 km of asphalt pavement
- It will allow regional integration and be part of the **Bioceánico Highway** that will connect the Atlantic to the Pacific Ocean, going through Brazil, Paraguay, Argentina and Chile
- The project's reference design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 **Investment:** USD 520 million

○ 10)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도로 프로젝트

- 다음 프로젝트는 3천만 달러에 30km 구간인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임
- 남쪽에서 북쪽을 잇는 곡창지대의 6번 도로와 이어지는 도로 공사로 여러 주를 연결하며 곡창지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예정임
- 이 구간과 연결되는 도시는 주로 농업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도로포장은 농업생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지켜보고 있음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도로 프로젝트>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



GOBIERNO
NACIONAL



Paraguay
del Sur

11

PROJECTS WITH FUNDING (LAW 5074)

ROUTE NARANJITO – NUEVA AURORA



- 23 km of asphalt pavement in both rural and urban sections
- The project's reference design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 **Investment:** around USD 30 million

○ 11) 시사점

- 따라서 파라과이에서 PPP 사업이 어떠한 사업 기회가 될지 판단은 다소 이른 감도 있음
- 하지만 파라과이 정부가 외국기업의 PPP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라과이 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유리한 30년 운영 조건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
- PPP 사업이 아직 도입단계인 국가인 만큼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국가임

□ 도로공사·KIND, 3억 달러 규모 파라과이 1번국도 사업 정조준

- KIND,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방문
- 도로공사와 1번국도 PPP사업 예비사업주 구성 협의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3억 달러(약 3,902억원) 규모의 1번국도 사업을 정조준함
- 2022년 7월8일 업계에 따르면 KIND는 지난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를 방문해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수주와 특별법 통과 지원을 위한 고위급 면담을 실시함
- 특히 KIND는 이번 출장시 한국도로공사 파라과이 법인을 방문해 발주 예정인 1번 국도 민관협력사업(PPP) 예비사업주 구성을 협의함



자료: 파라과이 1번과 6번 도로 프로젝트. (사진=파라과이 건설교통부 MOPC-DIPE)

- 코트라는 파라과이 정부가 외국기업의 PPP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 파라과이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유리한 30년 운영 조건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파라과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PPP 프로젝트 추진

- 전략 프로젝트 국장 Econ. Jorge Vergara는 2022년4월13일 공공사업통신부장관 Arnoldo Wiens에게 2022년 6월말 이전에 수행될 route PY01의 이중화의 PQ 초청 초안을 보고함
- Public-Private Partnership 법률 No. 5102/2013을 규제하고 이전 규정 (Decree No. 1350/14)을 무효화하는 법령 No. 4183/2020은 사전심사 단계이며, 통과한 입찰자만이 올해 2022년 12월 입찰에 참여 가능
- 공공사업통신부(MOPC) 책임자와의 회의 후 Vergara는 프로젝트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전 자격을 위한 사양의 초안과 개요에 대해 작업 중이라고 밝힘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에 따르면 Paraguari에 대한 이중화 도로 및 Quiindy에 대한 도로개선 투자비는 3억달러에서 3억5천만 달러가 될 것임

□ 대만이 금융지원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 추진

- Cruce Tres Bocas 프로젝트는 135미터 고가도로 및 Asunción 남부 접근로 근처 원형 교차로 건설을 위해 1,900만달러 투자함

□ 2021년 파라과이 인프라 투자 목표 25% 하향

- 당국은 지난해(2021년) 인프라 투자에서 기록적인 미화 10억 달러에 도달한 후 공공 지출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함

□ 파라과이, CAF, Fonplata 자금 지원 도로 공사 입찰 개시

-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는 라틴 아메리카 개발 은행 CAF와 리버플레이트 유역 개발 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일부인 카자파 및 과이라 부서의 보조 도로 88.5km를 개선하기 위해 2,450억 과라니(미화 3,600만 달러) 입찰에 착수함

- 두 개의 컨소시엄이 파라과이와 브라질 사이의 세 번째 교량 건설을 위해 경쟁
 - Carmelo Peralta(파라과이)와 Puerto Murtinho(브라질) 도시를 연결하는 Bioceanic Bridge 건설 프로젝트에 파라과이, 브라질 등 총 5개 기업으로 구성된 2개 컨소시엄으로부터 경제적 제안(가격제안)을 받음
 - 이들의 가격은 이번 입찰초청 기준가격보다 5%, 8% 각각 저렴했음
 - Tecnoedil Constructora SA, Cidade LTDA 및 Paulitec Construções 회사로 구성된 PY-BRA는 이중 국적 컨소시엄임
 - 입찰가는 616,836,755,744 과라니 및 Ocho A. SA and Constructora Queiroz Galvão SA로 구성된 Consorcio Puente Bioceánico의 입찰가는 637,862,511,336 과라니
 - 이 입찰의 기준 가격은 671,497,551,420 과라니로 설정되었으며 제안 유지보증비율(입찰보증율)은 3%임

□ PY13 Capiibary route section 포장 PPP 사업

-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는 PY13 Capiibary route section 포장 공사를 위해 민간 파트너를 구하는 입찰 공고를 발표함
- 이 section(구간)은 33.02 킬로미터이며 San Pedro와 Caaguazú의 여러 커뮤니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함
- 해당 프로젝트는 두 개의 공구로 나누어지며, 1공구(Lot 1)는 20미터 교량을 포함하여 해당 구간의 17.6 킬로미터이고 2공구(Lot 2)는 해당 구간의 9.3킬로미터와 지선 13호선에서 지선 1호선까지 5.9킬로미터 경로를 포함함
- 예상 투자비는 124.699 십억 과라니화 (17.45 백만달러)이며, 입찰서 제출 기한은 2022년 5월 25일임

□ 파라과이 민관협력시장 분석

- 민관협력 사업환경:
 - 2013년 파라과이는 공공 인프라개발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두 가지 규제제도를 제정함
 - 법률 제5102/2013호(공공민간파트너십[PPP 또는 P3]법)
 - 법률 제5074/2013(턴키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

- 터키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은 운영과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민간 자금 조달과 건설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함
 - 정부의 지급 의무는 마일스톤이 완성되면 발행되며 국가 보증으로 부여됨
- 이에 따라 P3법(PPP법)은 인프라 프로젝트와 서비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민관협력관계를 규제함
 - 프로젝트는 정부의 주도로 제시될 수 있지만 민간 당사자도 제시할 수 있음
 - 2020년 법령은 사전자격(PQ)의 의무적 성격과 경쟁적 대화 단계 등 P3(PPP)사업의 실행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였음
- 기술기획국의 PPP프로젝트 부서는 모든 관련 정부기관에서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정부조직임
 - 계약행정부와 재무부도 PPP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가장 큰 부족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주요 계약행 정부는 공공사업통신부이며, 법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모든 PPP의 개발과 실행을 담당함
 - 운송(교통)
 - 도로 및 고속도로
 - 강 준설 서비스
 - 강의 통신수단
 - 공항 인프라
- 계약 행정부는 PPP 조정부서와 협력하여 PPP 계약을 구성, 수여 및 실행하고 계약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행사하며 당사자들의 의무 준수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재무부는 PPP에 대한 제안과 위험평가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향후 지급액이 국가예산에 포함되도록 보장함
 - 또한 PPP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및 유동성 보장만을 목적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그 신탁기금에 대하여 재무부가 수탁자의 역할을 함

○ 주요 기회

- 파라과이는 다음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지원을 받음: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 세계은행(World Bank)
 - 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 일본 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FONPLATA Development Bank; Río de la Plata Basin Financial Development Fund로 알려졌던 FONPLATA 개발은행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의 남미 하위지역의 5개 국가가 결성한 다자간 금융기관임
- IADB는 국가의 주요 전략적 다자 파트너이자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임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부분의 사전 타당성 연구는 IADB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
- 파라과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캐나다 기업은 IFI 자금 지원 입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음 업체와 관계를 구축해야 함
 - PPP 프로젝트에 관련된 8개의 주요 현지 건설회사 (오초A, 테크노에딜, TOCSA, 콘크리트-믹스, 에코미파[엠프레사 컨스트럭토라 미네라 파라과이 S.A., 로기오 포함); OchoA, Tecnoedil, TOCSA, Concret-Mix, Ecomipa [EmpresaConstructoraMineraParaguayaS.A.], Roggio.
 - 지역 법률 고문(예: 페레레 또는 리비에르 구기아리); Ferrereor Livieres Guggiari
 -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주요 공공부문 담당자
 -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파이프라인의 부족은 국제기업의 시장 개입을 억제함
 - PPP 프레임워크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더 복잡한 프로젝트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향이 뚜렷함

□ 어려운 문제점:

-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경쟁력 지표에서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음
- 세계은행의 사업하기2020(Doing Business 2020) 순위는 파라과이를 사업하기 쉬운 190개국 중 125 개국으로 평가함
- 2019년 세계경제 포럼 세계 경쟁력 지수는 파라과이를 141개국 중 97위로 평가함
- 사법적 불안과 부패는 파라과이의 투자환경을 방해함
- 많은 투자자들은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고 긴 관료적 절차, 제한된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것에 좌절함
-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년 부패지수는 파라과이를 180개국 중 137위로 선정했음

4 아웃소싱 예측 현황

□ 요약

-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관련된 다자개발은행(MDB)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계약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수 있음
- 대규모 공공사업의 입찰에 있어서 공공사업통신부(MOPC)는 재정적 능력, 물질적, 그리고 이전 경험의 높은 긴급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대기업이어야 한다고 요구함
 - 그러나 이들 대기업은 결국 자신들이 수주한 입찰공사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함
- 반면,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조달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입찰은 외국 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함
 - 한국 기업이 다자개발은행(MDB)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반 시설 (Infrastructure) 공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파라과이 기업과의 제휴나 컨소시엄을 추천함

5 PPP법 제5102/2013호에 따른 자금 조달 인프라 프로젝트

□ 요약

- 향후 몇 년 동안 PPP 프로젝트를 위한 몇 가지 기회가 있음
- 1. 파라과이 1번 도로 (PY01): 남쪽 접근로- Ytororo(쥬토로로) - Quindy(퀸디) 구간 약 90 km 이중 도로(2배로 확장도로) 건설
- 2. 파라과이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로 회랑: 투자액 약 3억 달러
- 3. 파라과이 6번 도로 (PY6)
 - Encarnación(엔카르나시온)에서 Pirapo(피라포) 접근로까지 Route 6번 (60km)의 개선, 이중화 및 운영: 수출 회랑과 연결될 것임
 - 수출 회랑은 건설 중이며 파라나 강과 평행하게 흐름: 투자액은 약 1억 2,900만 달러
- 4. 아스팔트 도로포장 115km
- 5. 파라과이 10번 도로(PY10):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제 품
 - 운송비에서 상당한 감소가 있으며 이 지역 경제에 직접 혜택을 발생시킴. 투자액은 약 1억 2,000만 달러
- 6. 강 운송을 위한 웨리 시스템 - 아순시온 메트로폴리탄 지역. 분석 단계에 있는 민간 제안 프로젝트, 민간제안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는 기밀
- 7. 리오 파라과이 수로(Rio Paraguay waterway): 준설, 신호 및 유지관리 공사가 요구될 것임. 본 프로젝트는 구조화 단계에 있고 민간 제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료는 기밀
- 8. 음용수 및 위생하수 시스템 건설
 - 10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림피오, 루퀘 및 산 로렌조 시에 처리 및 배분 플랜트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투자액 4억 5,000만 달러

- 9. 카피아타(Capiata)시의 위생 하수처리 및 폐수 처리 플랜트(준비중):
 - 단기 목표로서 설정된 이파카라이 분지 호수를 위한 포괄적인 하수처리 계획, 하수처리 프로젝트는 카피아타 하수처리 위원회 그리고 미래에 해당 시의 다른 제공자들을 수용할 확장 가능한 지평선을 가진 잔류 폐수를 위한 처리 플랜트를 위해 계획됨
 -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조달 방법과 총액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계획은 초기 단계에 있음
- 10. 경전철 프로젝트(Asuncion - Luque) :
 - 아순시온-루케 간 15km 경전철 프로젝트가 구조화 중임
 - 프로젝트는 약 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그림 24: 파라과이의 큰 상세한 행정구역 및 도로 지도

6 에너지 분야 투자기회

□ 요약

- 향후 몇 년 동안 다자개발은행(MDB) 자금으로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음
- 2014-2023년 기간을 위한 단기 및 중기 발전 및 송전 마스터플랜은 국가의 상호연결 시스템(SIN)에서 모든 필요한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기술적인 계획 조사의 종합을 제시함
- 기술 연구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발전 및 송전사업 계획이 획득되고 이는 시스템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국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 계획은 전력 공급의 신뢰성 향상을 독점적으로 지적하는 작업을 뒤로 하고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작업 계획의 정의는 고려된 위상적인 구성, 신뢰성 요구사항, 발전소의 품질 및 가용성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우세한 요인은 수요 증가 시나리오임
-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난 5년간 9.4%, 지난 10년간 7.1%의 추세 성장과 최근의 고온이 고객의 소비 습관에 미치는 영향, 전력의 변압·송전·배전 제한에 대한 미충족 수요뿐만 아니라 특정 안전 여유를 가진 계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채택됨
- 선택된 시나리오에서 높은 GDP의 파라과이는 산업화의 과정을 시작했다고 여겨지며, 그 분야의 수십 년의 침체 이후, 전통적인 모델의 단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몇 년 동안 총 자본 투자의 지속적인 성장은 소규모 전기 집약적 산업(총 약 250MW)의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추가되어야 함

- 민간 부문의 기대치 회복, 지난 10년간 50% 안팎의 중산층 성장, 인프라 공공 투자, 대형 쇼핑몰·호텔 대규모 건설, 국가 금융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최근 5년간 연평균 12% 안팎) 등이 향후 10년간 총 국내 생산품의 높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임
- 또한 제시된 공사 계획이 법령 7406호에 따라 이미 파라과이 전력공사(ANDE)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력의 점진적인 증가 기간을 갖는 일부 전기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 시장에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공사를 구성함

□ 1.1 발전 공사

- 예상되는 발전 공사에는 2014년 아카라이 수력발전소 제3, 제4그룹에 대한 적절한 현대화 및 재전력화 작업의 완성이 포함됨
- 2015년까지 발전소 제1그룹과 제2그룹에서도 유사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이 시기에 고려된 가장 중요한 발전 공사는 위구아수 댐의 기계화이며, 2018년에 시운전이 계획되어 있고, 피크 시간대에 각 100MW의 발전기 2대가 연간 184GWh의 에너지를 발생시킴
 - 두 발전소에서 예상된 공사는 이원화 발전소의 에너지 계약과 파라과이 전력공사(ANDE)의 발전 비용을 최적화하여 2023년까지 발전 예비 마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함

□ 1.2 송전공사

□ 1.2.1 500 kV 네트워크

- 공사계획에는 주로 현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석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규모 500kV 공사 세트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건설이 이루어짐

- 1. LT 500 kV Yacyretá(야시레타) - Ayolas(아올라스), 제2 라인 (16km), 2000 MVA 용량 (2016년)
- 2. LT 500 kV Ayolas(아올라스) - Villa Hayes(빌라 헤이스) (347km) 2000 MVA 용량, and Villa Hayes substation(빌라 헤이스 변전소) 확장, 500/220 kV - 600 추가 MVA 용량의 변압기뱅크 설치 (2016년)
- 3. LT 500 kV Right Margin - The Cedrales(세드랄레스) (25km) 2000 MVA 용량, 및 변전소 The Cedrales 500 kV, 초기 500/220 kV 변압기 용량(2 x 600MVA), 총 1200 MVA 용량(2017년)
- 4. LT 500 kV Ayolas(아올라스) - Trinidad(트리니다드) II (129km) 2000 MVA 용량 및 변전소 Trinidad II 500 kV + 초기 500/220 kV 변압기 용량(600 MVA) (2017년)
- 5. LT 500 kV 섹션화 Ayolas(아올라스) - Villa Hayes(빌라 헤이스) 및 Eusebio(유세비오) 변전소 건설, Ayala(아알라) 500 kV 초기의 500/220 kV 변압기 용량 600 MVA (2018년)
- 6. LT 220 kV 섹션화, 이중의 terna Coronel Oviedo(테르나 코로넬 오비에도) - Guarambaré(과람바레)
- 7. LT 500 kV Right Margin - Villa Hayes(빌라 헤이스), 제2 라인 (348 km), 2000 Mva. 용량 (2019년)
- 8. Villa Hayes(빌라 헤이스) 변전소, 제4 자체 변압기뱅크 조립 500/220 kV - 600 MVA (2020년)
- 9. Eusebio Ayala(유세비오 아알라) 변전소, 제2 자체 변압기뱅크 조립 500/220 kV - 600 추가 MVA 용량 (2020년)
- 10. Ayolas(아올라스) 변전소, 제3 자체 변압기뱅크 조립 500/220 kV - 375 MVA (2020년)
- 11. LT 500 kV Ayolas(아올라스) - Eusebio Ayala(유세비오 아알라), 제2라인 (225 km), 2000 MVA 용량 (2022년)
- 12. Carayao(카라야오) 변전소, 500 kV 야드 건설 및 2개의 자동변압기 건설 및 조립 초기 500/220 kV 변압기 용량 (2 x 600) MVA 용량, 총 1200 MVA (2023년)
- 13. 라인 500 kV Right Margin - Carayao(카라야오) (210km), 2000 MVA 용량, 및 위치 대응, 제2라인 섹션 500 kV Right Margin - Villa Hayes Carayao(카라야오) 변전소(2023년)

□ 1.2.2 220 kV 네트워크

- 공사계획에는 송전 시스템의 작동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새로운 220kV 라인을 포함함
 -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공 및 재전력 작업을 언급할 수 있음:

□ Sistema Central(중부 시스템)

- LT 220 kV 이중 3상 라인 Carayaó(카라야오) - San Estanislao(산에스타니스라오) (47km) (2022년)

□ Sistema Sur(남부 시스템)

- LT 220 kV 캄비레타의 알리멘타시온 LT 220 kV의 일부로부터 이중 3상 라인

□ Coronel Bogado(코로넬 보가도) - Trinidad(트리니다드) (25 km) (2014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Ayolas(아올라스) - Coronel Bogado(코로넬 보가도) (65km) (2015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Coronel Bogado(코로넬 보가도) - Trinidad(트리니다드) (53km) (2015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Santa Rita(산타리타) - María Auxiliadora(마리아 오실리아도라) (110km) (2017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Villalbín(빌랄빈) - Villeta(빌레타) II (200km) (2020년)

□ Sistema Este(동부 시스템)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Itakyry(이타키리) - Catueté(카투에테) - Salto del Guairá(살토 델 과이라) (145km) (2014년)
- LT 220 kV Acaray(아카라이) - Microcentro(미크로센트로) (5.4km 이중의 3상 라인 (공중구간) 1.3km, 하나의 3상 라인 (지하구간) (2015년)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Acaray(아카라이) - Pte. Franco (피테 프랑코) (10 km) (2015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Kilómetro(킬로메트로) 30 - Santa Rita(산타리타) (45km) (2016년).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Margen Derecha(마르젠 데레차) - Itakyry(이타키리) (71km) (2017년)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Los Cedrales(로스 세드랄레스) - Pte. Franco(피테 프랑코) (10km) (2017년)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Pte. Franco(피테 프랑코) - Paranambú (파라남부) (39km) (2017년)

□ Sistema Metropolitano(메트로폴리탄 시스템)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Villa Hayes(빌라 헤이스) - Puerto Sajonia(푸에르토 사조니아) (25km) (2014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San Lorenzo(산 로렌조) - Barrio Molino(바리오 모리노) (10km) (2015년)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Limpio(림피오) - Luque(루퀘) - San Lorenzo(산 로렌조) (25km) (2016년)
- LT 220 kV 이중의 3상 라인 Villa Hayes(빌라 헤이스) - Puerto Botánico(푸에르토 보타니시오) (18km), 푸에르토 보타니코(Puerto Botanico) 변전소부터 파르퀘 카발레로(Parque Caballero) 변전소까지 (7.5km)에 도선을 설치(2016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Guarambaré(과람바레) - Villeta(빌레타) II (12km) (2017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San Lorenzo(산 로렌조) - Villa Aurelia(빌라 아우렐리아) (8.5km) 공중 구간(2.3km)와 지하 구간 (2017년)

□ Sistema Norte(북부 시스템)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Itakyry(이타키리) - Curuguaty(쿠루과티) - Capitán Bado(카피탄 바도) - Cerro Corá(세라 코라) (330 km) (2014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Horqueta(호르퀘타) - Concepción(컨셉시온) II (45 km) (2016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Cruce Bella Vista(크루체 벨라 비스타) - Bella Vista Norte(벨라 비스타 노르테) (80km) (2016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Villa Hayes(빌라 헤이스) - Concepción(컨셉시온) II (200km) (2019년)

□ Sistema Oeste(서부 시스템)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Concepción(컨셉시온) II - Pozo Colorado(포조 콜로라도) - Loma Plata(로마 플라타) (280km) (2021년)
- LT 220 kV 하나의 3상 라인 Vallemí(발레미) II - Toro Pampa(토로 팜파) (130km) (2021년)

□ Sistema Central(중부 시스템)

- LT 220 kV Carayaó(카라야오) - San Estanislao(산 에스타니스라오) 47km를 210에서 270 MVA로 용량 강화. (2014년)
- LT 220 kV San Estanislao(산 에스타니스라오) - Santa Rosa(산타 로사) 96km를 210에서 270 MVA로 용량 강화. (2014년)
- LT 220 kV Cnel. Oviedo(코로넬 오베이도) - Cnel. Oviedo(코로넬 오베이도) II 48km를 210에서 350 MVA로 용량 강화 (2022년)

□ Sistema Sur(남부 시스템)

- LT 220 kV San Patricio(산 파트리시오) - Cnel(코로넬) Bogado(보가도) 64 km를 165에서 250 MVA로 용량 강화 (2014년)
- LT 220 kV Ayolas(아올라스) - San Patricio(산 파트리시오) 43 km를 250에서 375 MVA로 용량 강화 (2017년)
- LT 220 kV Aydas(아올라스) - Villalón(빌랄론) 121km를 210에서 350 로 용량 강화 (2020년)

□ 1.3 변전소(Substation) 확장 및 건설공사

- 공사계획에는 아래에 요약된 상당한 수의 새로운 배전 센터가 포함되어 있음

□ Sistema Central(중부 시스템)

- Barrio San Pedro(바리오 산 페드로):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5년)
- Vaquería(바퀘리아):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5년)
- Coronel Oviedo(코로넬 오비에도) II: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9년)

□ Sistema Sur(남부 시스템)

- Cambyretá(캄비레타): substation(변전소) 220/66/23 kV, transformation(변압기) 220/66 kV- 60 MVA 용량과 220/23 kV - 41.67 MVA 용량 (2014년)
- Fram(프람): substation(변전소) 66/23 kV, 30 MVA 용량 (2016년)
- María Auxiliadora(마리아 오실리아도라):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2017년)
- Costanera(코스타네라): substation(변전소) 66/23 kV, 60 MVA 용량 (2019년)
- Yuty(유티): substation(변전소) 66/23 kV, 30 MVA 용량 (2020년)
- Pilar(필라르) II: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2021년)

□ Sistema Este(동부 시스템)

- Ciudad del Este(시우다드 델 에스테): substation(변전소) 66/23 kV, 60 MVA 용량 (2014년)
- Catueté(카투에테):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4년)
- Salto del Guairá(살토 델 과이라):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80 MVA 용량 (2014년)

- Curuguay(구루과티):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4년)
- Parque Industrial(파라퀘 산업단지): substation(변전소) 220/66/23 kV, transformation(변압기) 220/66 kV 60 MVA 용량과 220/23 kV의 41.67 MVA 용량 (2014년)
- Microcentro(미크로센트로): substation(변전소) 220/66/23 kV, transformation (변압기) 220/66 kV 60 MVA 용량과 220/23 kV의 80 MVA 용량 (2015년)
- Mallorquín(말로르퀸):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5년)
- Santa Rita(산타 리타):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41.67 MVA 용량 (2016년)
- Kilómetro(길로메트로) 7: substation(변전소) 220/23 kV, 80 MVA 용량(2017년)

□ Sistema Metropolitano(메트로폴리탄 시스템)

- Fernando de la Mora(페르난도 데 라 모라): substation(변전소) 66/23 kV, 90 MVA 용량 (2014년)
- Barrio Mburucuyá(바리오 음부루쿠야) : substation(변전소) 66/23 kV, 90 MVA 용량 (2014년)
- Mariano Roque Alonso(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substation(변전소) 66/23 kV, 100 MVA 용량 (2014년)

□ 1.4 보상 변전소

-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반응성 보상은 송전 시스템 작동을 최적화하는 도구가 됨
 - 이러한 의미에서 공사계획서는 과람바레 변전소에 220 kV의 전압레벨에서 SVS(정적 반응 보상 시스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반응성 시스템 수요의 성장에 수반하고 SIN 변전소의 변환 용량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23 kV의 축전기뱅크에 633 MVar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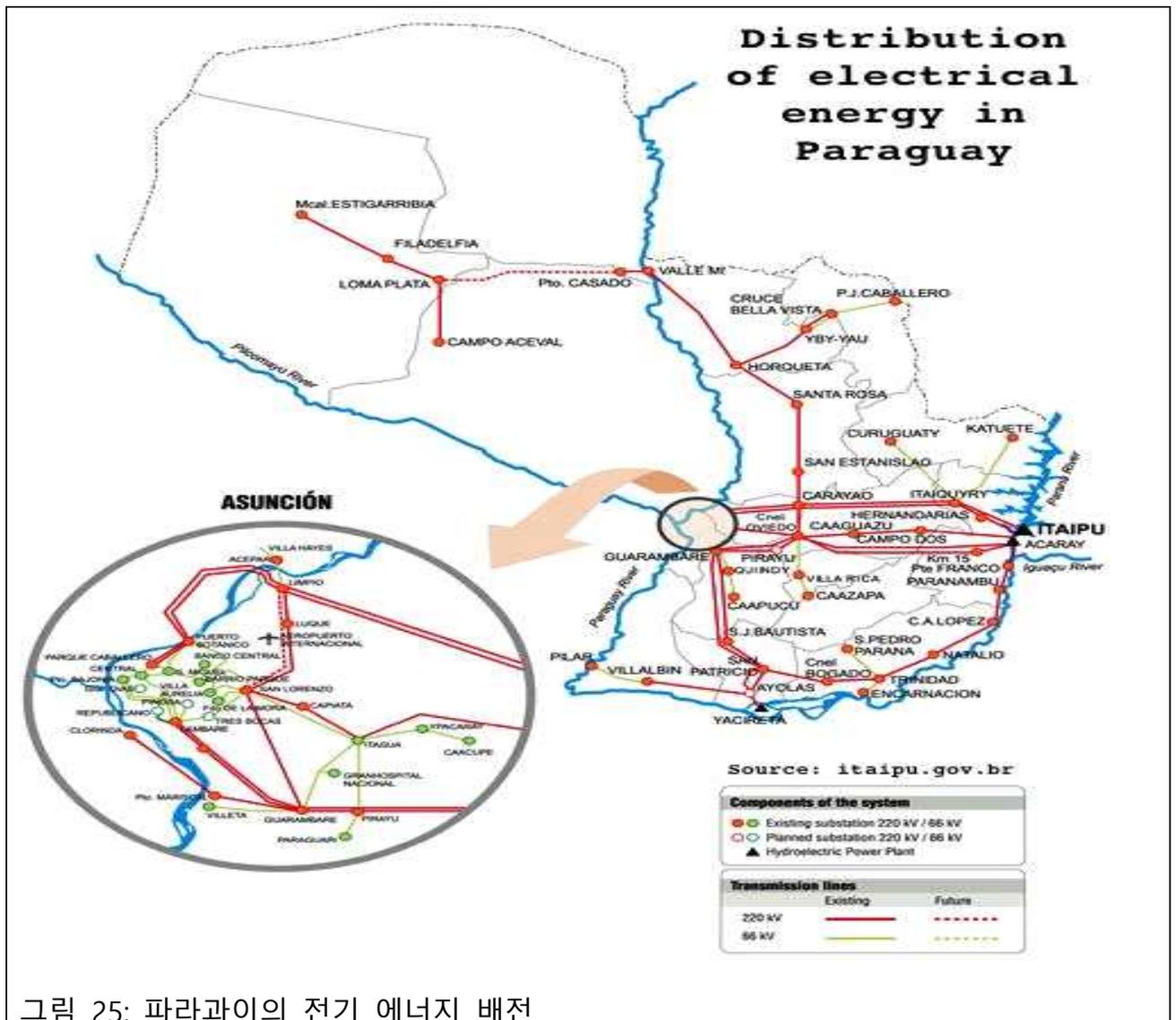


그림 25: 파라과이의 전기 에너지 배전

IV. PPP 법적 프레임워크

□ 주요 법적 프레임워크는 다음으로 구성됨 :

- 법 제5102/2013호 - 공공 인프라 투자 촉진, 상품과 서비스 확장 및 개선
- 법 제5567/2016호 - 법 5102/2013호 일부 수정
- 법령(Decree) 제1350/2014호 - 법 제5102/2013호의 규정(regulation)
- 법령(Decree) 제4183/2020호 - 법령(Decree) 제1350/2014호 폐지

□ 위에서 그렇게 언급된 것들은 다음에 의해 보완될 수도 있다:

- 법 제921/1996호 - 신탁 및 수탁업무에 관하여
- 법 제2051/2003호 - 공공조달에 대해서
- 법 제125/1992호, 법 제6380/2019호에 의해 수정 - 파라과이 조세법
- 법 제6490/2020호 - 공공투자에 대하여
- 법 제4758/2012호 - 국가 공공투자개발기금 및 교육 및 연구 우수를 위한 기금(FONACIDE)을 만들었음
- 법 제1183/1985호 - 파라과이 민법
- 법 제5810/2017호 - 증권시장에 대하여
- 법 제1535/1999호 - 국가 재정관리에 대하여

1 PPP 법적 프레임워크 및 주요 기관

- 아래에 언급된 프로젝트들은 계약 당국과의 계약을 구성, 선정, 수여 및 공포하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음 :
 - 파라과이 강과 다른 항해 가능한 강의 수로, 준설, 신호 및 항행 가능성의 유지
 - 국제 공항들
 -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복구 및 유지관리
 - 철도 서비스 건설, 확장, 운영
 - 국내 및 국제 교량 건설 및 유지관리
 - 음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및 위생
 - 전력 발전, 송전, 배전, 판매
 - 공화국 수도 및 수도권(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도로 인프라
 - 사회 인프라, 병원, 보건 센터, 학교, 교도소
 - 계약 당국이 참여하는 개선, 설비(장비) 및 도시개발
 - 수로, 파이프라인, 오일 파이프라인, 알콜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
 - 사업 및 기업의 목적에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 국가가 당사자인 사업
 - 시멘트 생산 및 거래
 - 탄화수소, 연료 및 윤활유 생산, 정제 및 거래
 - 원거리 통신 서비스
 - 집행부는 집행할 특정 사업의 조건, 내용, 조건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명시할 수 있음
 - PPP법에 따른 사업은 6개월마다 파라과이 의회에 보고될 예정

□ 주요 기관들

- 계획,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 장관 (스페인어로 STP¹)
 - 공공 민간 참여 프로젝트 총무국 (스페인어로 DGPPPP²)
 - 공공-민간 참여 프로젝트 부서(스페인어로 UPPPP³)
- 재무부
 - 국가 공공 투자 시스템(스페인어로 SNIP⁴)
 - 공공사업통신부(스페인어로 MOPC)
- 프로젝트 당국 집행 위원회 구성
 - 재무부 장관
 - 공공사업통신부(MOPC) 장관
 - 계획,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 장관(STP)의 사무총장
- 집행부(executive power)
 - 가능하게 하는 법률 및 규정 지원 - section 4.1, PPP 프레임워크 참조

2 파라과이의 일반적 PPP 구조

□ 파라과이의 PPP 구조

- 사업을 수주한 입찰자는 민관참여 계약이 체결될 파라과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야 하며, 이 중 수주한 입찰자가 대주주(최소 51%)가 됨
- SPC의 유일한 목적은 주어진 공하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양(시방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1) Secretaría Técnica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Económico - STP(경제개발계획기술국)

2) Dirección General de Proyectos de Participación Público Privada - DGPPPP(민간 공공 참여 프로젝트 총국)

3) Unidad de Proyectos de Participación Público Privada - UPPPP (민간 참여 프로젝트 단위)

4) Sistema Nacional de Inversión Pública - SNIP(국가 공공 투자 제도)

- SPC의 존속 기간은 적어도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에 2년을 더하고 수행된 공사와 서비스의 보증 기간이 지속되어야 하는 기간이 될 것이며 SPC의 주식은 관련 공공 기록에 등록될 것임
- 회사 주식에 대한 시공자의 양도는 계약행정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 반면, 어떠한 형태의 활동의 하도급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체제에 따라 허용될 것임
- 계약 집행 기간 동안 계약 관리국은 각 건설 단계와 운영단계에서 이행보증 설정뿐만 아니라 다음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을 요청할 것임:
 - 제3자 보험, 건설 위험,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및 입찰 문서에 정해진 기타 유형의 보험
 - 통제와 관련해서는 계약행정기관이 기술, 법률, 경제, 재무, 회계, 환경 분야에서 특히, 외부감사, 성과 및 품질평가, 검사,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통제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됨
- 민관협력의 유형
 - PPP에는 a) 공공 이니셔티브(발의) 프로젝트와 b) 민간 이니셔티브(발의) 프로젝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a). 공공발의 프로젝트들:
 - 정부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행을 민간 참여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임하며, 관련 공공기관은 관심 있는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후속하여 PPP 부서에 제출함
 - a.1. 공공 주도로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계약 관리국은 이 결정을 PPP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의 이름, 전화 및 이메일 주소
 - 프로젝트 개요
 - PPP 부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재무부에 전달해야 함

- 공공-민간 참여 프로젝트의 조정자로서 STP의 장관 사무총장은 프로젝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집행부에 의해 정의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계약 행정 당국, 재무부 또는 관련된 다른 기관을 소집해야 함

a.2. **예비 타당성** : 계약행정청은 첫 번째 평가를 위해 PPP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경제개발계획기술국(STP)에 제출하며 그것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함:

- 비용 편익, 시장, 기술, 리스크, 법률, 경쟁, 조직, 경제 및 재무 분석
-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수익성에 대한 지표
- 공공 조달 및/또는 관리의 다른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 민관 참여를 사용하는 편의성을 정당화해야 하는 금전적 가치(민자사업 적격성, VfM, 사업가치), 질적, 양적 가치에 대한 예비 연구
- 계약이 개발되는 동안 회계연도의 예산 및 재정적 영향의 추정뿐만 아니라 및 국가가 계약할 의무
- 프로젝트의 주요 환경 영향 및 이러한 영향과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예비 평가
- 프로젝트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메커니즘 완화와 가능한 보상으로 프로젝트의 환경 연구
-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타당성 조사가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부터의 제안이 수반됨

○ 예비 타당성 연구의 방법론과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개발계획기술국(STP)의 PPP 부서 및 재무부의 공공투자총국과 조정되어야 함

a.3.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 : PPP 부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행정당국의 제안에 기초한 타당성 조사의 방법론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의견을 발표할 것임

- 의견이 호의적일 경우 PPP 부서는 의견서 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 사본을 재무부에 송부해야 함

- 재무부의 평가는 국가 공공 재정, 사회적 수익성 및 이니셔티브의 금전적 가치(민자사업 적격성, VfM, 사업가치)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다른 측면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함의를 고려해야 함
- 거부된 연구들은 계약행정당국에 반환될 것이며, 이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개편될 것임

a.4.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PPP 부서와 재무부의 호의적인 의견과 함께, 계약행정당국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하는 타당성 조사를 제출해야함

- 기본 엔지니어링 조사
- 수요 조사
- 사회적 평가
- 부지 연구
- PPP 프로젝트의 예산 영향 추정 재무 업데이트
- 환경 및 피해 완화 메커니즘의 확립으로 PPP 프로젝트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영향을 설정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연구
- 해당할 때 보상
- 수용 및/또는 토지 해제에 대한 연구
- 법률적 의견
- 사용자들의 서비스 수준과 기술적인 이행을 위한 대안 조사
- 사업 디자인 구조
- 경제적-재무적 조사
- 위험 평가 및 배분(할당)
- 확정 및 우발적 약정 또는 부채의 평가
- 민자사업 적격성(VfM, 사업가치) 조사 업데이트

- 프레젠테이션이 행정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PPP 부서는 그것을 거절할 것임
 - 프레젠테이션이 불완전할 경우, 프레젠테이션 미실행으로 인해 보류된 것에 대한 패널티 하에서 계약행정당국은 PPP 부서가 이 목적을 위해 설정한 기간 내에 누락된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함
 - 프레젠테이션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PPP 부서는 20일 이내에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의견서를 발행함
 - 그 다음에는 의견서 발행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타당성 조사 사본을 재무부에 송부함
 - 재무부는 타당성 조사 접수일로부터 계산하여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영업일 기준 20일 연장 가능) 발행되어야 함
- 공기업평의회는 공기업과 국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공 유한기업 및 공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PPP 사업 분석에 개입할 것임
- 재무부가 유리한 실행 가능성 의견을 발표할 경우 SNIP 코드가 발행되며, PPP 부서는 검토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
 - PPP 프로젝트의 승인은 법령(Decree)에 의해 행해질 것임

□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

b.1. 입찰자 사전적격심사(PQ)

- 계약행정당국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단계들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사전 계약행정당국이 기능적 요건과 서비스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및/또는 기술 대안이 있음
- 민간 참여자가 설계 및/또는 기술을 정의할 책임이 있는 PPP 계약의 경우 사전 적격심사 기준은 사전적격심사 과정에 신청한 예비 디자인을 제출할 의무를 설정할 수 있음
- 적격심사 기준들에서 정해진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관심 있는 당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적격심사에 초청할 것임
 - 사전적격심사는 법적 측면, 재정 또는 기술적 능력, 과거에 시행된 다른 공사의 경험 및 결과만을 문의할 수도 있음
 -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들만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b.2. 사전적격심사의 입찰 조건들을 위한 초청의 내용

- 사전 적격심사 요청에는 최소한 사전 적격심사 문서의 철회 또는 획득 기간과 장소, PPP 프로젝트의 주제 또는 대상 사전 적격심사 문서에는 다른 사항들 중에서 PPP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설명과 목표; 사전 적격심사 단계, 사전 적격심사 요건 등이 포함됨
-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각 제안자가 자금을 조달한 예비 기술 프로젝트를 제시할 의무를 포함할 수 있음
 - 배경 제시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 적격심사 문서를 획득한 관심있는 입찰자들은 사전 적격심사 문서를 획득한 모든 입찰자들에게 회람에 명료화를 통하여 답변을 전달하게 될 것임

- 계약행정당국은 사전 적격심사 문서를 명확화 회람을 통해 명확화, 수정, 개정 또는 추가할 수도 있음
- 계약행정당국은 사전 적격심사 서류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관심 있는 입찰자들을 사전 적격심사를 할 것임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입찰자들 및/또는 예비 기술 프로젝트가 해당한다면, 설정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찰자들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음

▶ 입찰 및 낙찰 절차는 표준 국제 입찰 절차를 구성할 수도 있음

3 외국인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 파라과이의 투자환경[Investment Environment of Paraguay]

가. 일반환경

1) 투자국의 지리적 이점

- 파라과이는 내륙국이므로 강(파라과이강, 파라나강) 물류 시스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남미에서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
-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에 남미 대국이 위치해 있어 주변국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제조업 진출도 가능함

2) 투자 매력도

- 파라과이는 경제안정과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투자 건전성이 높은 국가임
- IMF의 Stand-By Arrangement(SBA)협정을 준수하며,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신규 차관을 위한 평가 기준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상업,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종류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마킬라 제도 활용은 파라과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며, 마킬라 산업 법안에 따라 자본, 부품 등의 임시수입에 대해 대외관세가 면제됨
 - 수출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제조단계에서 정부 금융지원도 제공되며, 임시 수입에 대한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시수입 법안도 존재함
- 정치 안정
 - 대내적으로는 1993년 초대 민선 대통령으로 후안 카를로스 와스모시가 당선된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해져 왔음
 - 대외적으로도 파라과이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및 남미연합(UNASUR) 회원국으로서 중남미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 개방적 제도
 - 파라과이 정부는 내외국인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요건만 갖추면 외국 투자자들도 내국인들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낮은 조세부담
 - 파라과이는 브라질 등 주변국에 비해 납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투자형태 및 규모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
 - 소득세 10%(아르헨티나 35%, 브라질 34%, 우루과이 25%), 부가가치세 10%(아르헨티나 21%, 브라질 25%, 우루과이 23%), 기업 신설 소요기간 30일(아르헨티나 32일, 브라질 152일, 우루과이 43일), 기타 자본재 수입관세 0%, 자본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0%, 해외송금세 0%

○ 거시경제 안정

- 파라과이 경제는 2013년에 14.0%의 고 성장률로 중남미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 파라과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4년 경제성장률은 4.7%, 2015년 3.0%였으며, 2016년에 4.1%, 2017년에는 4.2%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최근 수년간 재정흑자 실현, 외환보유고 증가, 인플레이 안정 등 제반 거시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초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풍부한 전력자원

- 세계 제2위 규모인 Itaipu 수력발전소를 브라질과 공동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풍부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Itaipu 전력 지분(50%)의 5%만으로 국가 소비전력의 97%를 공급하고 있으며, 잉여 전력은 로열티를 받고 브라질에 양도 중에 있음

○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및 낮은 노동임금

- 파라과이 국토 대부분이 농업이 가능한 비옥한 토지이며, 브라질 등 주변국들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또한 남미공동시장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 임금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 진출에 특히 유리함

○ 주변국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

-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60:40% 비율), 역내국가간 무관세 수출 가능성 등 다수의 혜택이 보장돼 있어 주변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편

- 우호적 분위기
 - 1962년 수교한 이래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파라과이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해오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 우리 이민자들을 받아준 소수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對미주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온 국가임
 - 특히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첫 방문국가로 방한 이후, 인사교류 증가, 협력사업 증대로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큰 활기를 띠고 있음
- 청년층 인구에 따른 인력 양성 가능성
 - 전체 국민의 평균연령이 23세로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청·장년계층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력 양성 가능성이 있음
- 무재해 자연환경
 - 지진, 폭풍, 대규모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없음

3)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정책

-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돼 있어 형식적인 제한이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함
-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음
 -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에 한해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파라과이를 역내 산업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킬라(MAQUIL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7/97
 - 해당 제도를 통해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완제품을 생산해 재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파라과이 법률은 마킬라 산업에 포함돼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파라과이의 마킬라 활동에 관한 국가정책은 수출 마킬라 산업 국가 위원회(CNIME)에서 규제하고 있음
 - 파라과이에 상주하는 국내 또는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은 법이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생산된 제품 중 10% 범위 내에서 국내시장 판매(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후)도 허용함

4)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 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음
 -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함
 -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해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0,000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함

- 본국 및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음
 - 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송금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함
-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국가 중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투자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음
 - 오히려 투자 장려를 위해서 60/90호 투자진흥법령에 의한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투자 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 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함
 - 또한,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음
 - 단, 500만 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 시 20% 세금을 부과(법령2421/04에 의거)함
- 투자 면세 적용 항목
 - 자금 조달(융자), 자본재, 특수 기술 원조, 광산, 호텔, 자본재 임차 (lease), 화물 및 여객 비행 운송, 수운, 화물 육상 수송, 공공여객 운송서비스 제공, 보건, 라디오, TV, 언론, 농촌 및 도시용 고정전화, 휴대전화, 과학적 연구조사, 사일로, 저장, 및 자료 전송 서비스
 -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려 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해 수입하는 원자재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 시)를 취하고 있음

5)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음
- 지사, 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매우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음
 -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음
 - 지사, 사무소 설립은 공증인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수속을 한 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음
 -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과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만, 2014년 9월 1일부로 발행된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및 파라과이 외교부의 추가적인 공증절차가 필요 없어짐

6)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 60/90 법률에 따른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목적
 - 재화 및 서비스 제조 확대
 - 신규 일자리 창조
 - 수출 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 생산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 도입 및 원자재, 노동력, 에너지활용 가능성 증대
 - 자본투자 및 재투자 확대

- 세계 우대조치는 다음 분야의 투자에 적용된다. 금융, 자본, 기술지원, 광물, 호텔서비스, 임대, 화물 및 여객항공교통 등. 각 승인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불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과 농업에 이용되기 위해 수입된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파라과이에서 제조된 자본재
 - 회사 설립, 등록 등에 부과된 모든 조세
 - 자본재 제조를 위한 투자프로젝트에 사용되기 위해서 수입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 및 세금
 - 해외에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최소한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자, 커미션 등 해외송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

7)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 투자 허가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
- 파라과이는 투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창업 및 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창업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파라과이에 진출하기 위한 외국기업인들이 SUACE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회사 등록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파라과이 내 회사 설립 및 거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
 - 이 제도는 기업 설립 및 등록절차 간소화와 각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데이터를 구축, 대행 수수료 절약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공무원들의 부패도 만연한 상태임
 - 참고로 파라과이는 부패방지협약에 서명국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 (Covention on Combation Bribery)에는 미가입돼 있음

8) 지속적인 국가신용등급 상승

파라과이 국가신용등급

Moody's		S&P		Fitch	
2022.07.22.	Ba1(안정)	2022.05.	BB (안정)	2021.12.	BB+
2021.12.	Ba1(안정)	2016.6.15.	BB (안정)	2018.12.11.	BB+
2016.6.	Ba1(안정)	2014.6.	BB (안정)	2016.12.	BB
2015.3.	Ba1(안정)	2012.8.	안정	2015.1.	BB
2014.2.	Ba2(긍정)	2011.8.	BB- (안정)	2014.8.	BB-
2013.1.	Ba3			2014.1.	BB-

자료원: Moody's, S&P, Fitch

9) 투자 위험요인

- 내륙국가로서의 단점
 - 파라과이는 연안통로가 없어 물류비용이 높음
 - 기후·지리적 환경이 현저하게 상이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국토가 양분돼 있어, 도로 연결망 구축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지역 연결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소수 특정분야에 수출 편중
 - 파라과이의 수출산업은 전력과 농축산업품에 편중돼 있어,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신상품 개발 등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함
- 계층별 국민소득의 편차 심화
 - 전체 인구의 40%가 전체 국민소득의 10%, 10%의 부유층 인구가 전체 국민소득의 42.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빈부 격차가 큼
 - 농촌 지역 인구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도심지역 인구에 비해 불과 절반을 기록, 양 지역 인구 간 소득편차가 심화돼 있음
- 인적자원 개발 미흡
 - 높은 문맹률, 낮은 취학률 등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및 효율적 정책 부재로 전체 근로 인구 중 불과 11%만이 학사 취득, 전체 인구의 35%만이 초등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상태

- 국제시세 변동에 따른 취약점
 - 파라과이 경제에서 1차 산업(농·목축업)은 국가 GDP의 24.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두, 면화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국제시세 변동에 매우 취약함
- 열악한 인프라
 - 파라과이는 최근 경제 발전에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나, 아직 인프라 개발 수준이 낮음. 전반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나. 투자유치기관

- 투자수출진흥기관(Red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 REDIEX
 - 홈페이지: www.rediex.gov.py
 - 전화: +595 21 616 3028, +595 21 616 3006
 - 업무내용: 수출 및 투자 진흥, 거래환경 개선, 투자 유치
-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CNIME)
 - 홈페이지: www.maquila.gov.py
 - 전화: +595 21 661 361, +595 21 663 950
 - 업무내용: 마킬라 프로젝트 수정 및 확장, 마킬라 업체 승인, 마킬라 제도 임시 수입 허가, 마킬라 제품 수출허가

다. 투자 장려 분야

- 파라과이는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고 생산설비 이전 등을 통한 소규모 투자로 각종 생필품, 건축용품,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파라과이를 기반으로 브라질 등 주변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진출도 유망함

○ 농목축 가공업 및 임업

- 대두 등 곡물 및 유지작물은 파라과이 경제의 핵심산업이나, 농업기술 미비로 주변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농업 및 농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목축환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목축 및 피혁가공 분야도 유망함
- 북, 남부지역에 총 1000만ha 상당의 천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 조림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림분야 진출도 유망
- 농기계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파라과이 내에 조립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진출도 검토해볼 만함

○ 건설업

- 국영기업인 INC가 시멘트를 주로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낙후된 설비,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멘트 제조설비 진출이 유망함
- 또한, 최근 파라과이 내 건설붐이 일어나, 파라과이 주요 도시 내 신축 건물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건설분야에 대한 투자도 유망함

○ 자동차 부품

- 브라질에 다수 브랜드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브라질에 위치한 공장에 제품 공급을 위한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도 유망
-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중소기업 및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등에서 파라과이에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자동차부품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유치에 노력중
- 특히, 노동집약적인 부품의 투자지로 적합함

라.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 파라과이 내 외국인투자는 경제의 전 분야에서 환영되고 있으며, 2013년 카르테스 정부 출범 이후로는 민관협력(PPP) 제도 등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상하수도, 전력 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던 분야였고, 산림, 통신, 광업, 탄화수소 분야의 경우에도 법적 승인 등 제한적이었으나, PPP제도를 통해서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됨

마. 투자유지정책 및 전망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 Moody's, S&P가 발표한 국가 신용평가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국가신용등급은 2016년 기준 안정한 (stable) 수준
-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 투자환경 요약

1. 개 요

가. 법 령

- 파라과이의 오랜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화정책을 취한 Rodriguez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위해 1990년 매우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법(Ley 60/90)을 제정함
- 1991년에는 법 제117호(Ley 117/91)를 통해 내·외국인투자 동등 취급을 공포하고 이어 법 제125호(Ley 125/91)를 제정, 기존의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킴
- 1994년에는 법 제474호(Ley 474/94)를 통해 일체의 외환통제를 철폐하는 등의 조치로 현재 파라과이는 매우 개방된 외국인 투자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자국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조립 생산 촉진을 위해 1998.7월 시행령 제21944호(DECRETO 21944/98)를 발표함

나. 현 황

- 상기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자유기업 활동의 보장, 인구 약 2억명에 이르는 Mercosur 시장에 대한 기대, 풍부한 전력 및 용수, 낮은 임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인들의 우호적 시각 등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는 지속 증대됨
- 한편 도로, 통신,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미발달, 밀수의 성행 및 자체시장 협소, 숙련노동력 부족,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및 비효율, 정치정세 불안 등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

2. 투자허용 분야

- 상·하수도, 전기, 전화, 유류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 가능
- 외국인 투자가는 정부의 승인없이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으나 법 제60호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승인 필요

3. 투자 형태

- 현금, 공급자 금융 또는 신용공여 등
- 기계류, 산업설비, 사무장비, 전기 및 전자장비, 수송장비 등
- 상표 및 기타 형태의 기술이전 등
- 자본재의 임대(특히 항공기 및 선박에 해당) 등

4. 투자 절차

- 투자위원회에 투자계획서 제출
- 투자위원회 심의 및 승인
- 재무부 및 상공부의 결의(Resolucion)로 인센티브 부여

5. 회사설립 형태

- 주식회사(S.A.), 유한책임회사(S.R.L.), 외국회사 지사, 합작기업 및 콘소시엄 (공공토목 분야) 형태로 설립 가능

6. 과실 송금

- 투자원본 및 과실 송금시 제한 없음
- 단 중앙은행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7.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95% 감면)
- Chaco 지역 등 8개주에 투자시 10년간 면제
- 회사의 설립 및 등록, 주식의 발행 및 양도, 채권,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구입 및 매각시 면세
- 투자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원자재, 중간재 및 기타 물품의 수입 때 면세
- 농업 또는 공업 분야의 생산 사이클과 관련한 고정자산의 최초 설치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IVA) 면제
- 상표, 특허, 의장, 공업디자인 등 외국으로부터 도입 기술에 대한 로얄티 지급 때 5년간 면세
- 적법 투자활동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급 및 영수, 어음 발행 시 등에 인지세 면제 등

8. 조세제도

- 법인소득세 : 순이익의 10%
-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5년간 면세
- 개인소득세 : 10%
- 부가가치세 : 10% (수출품 및 농산품의 경우 0%)
- 부동산세 :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과

9. 투자장려 분야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립생산

- 관련법규 : 시행령 제 21944/98호 및 시행령 제 406/98호
- 적용대상 품목
 - 제87류에 포함되는 모든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및 기타 육상 운송차량 및 그 부품, 악세서리
 - 제87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부품 및 악세서리
- 동 법은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적용됨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증대 실현
 - 신규 고용의 창출
 - 수출의 증대 또는 수입의 대체
 - 생산성 향상 및 원자재, 노동력, 전력 자원의 활용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보유
 - 투자 위원회 및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상기 대상 분야에 규정된 재화의 생산 또는 산업용 플랜트에 대한 투자 실시 등
- 혜택
 - 관련 품목의 생산을 위한 자본재, 원자재, 부품, 중간재 등의 수입 시 관세 및 기타 특별세 면제
 - 완제품 최종 가액의 2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IVA) 부과
 - 동법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시 수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
 - 투자법(Ley60/90)제5호에 규정된 혜택의 10년간 부여
- 국산 부품 사용 의무
 - 동법의 수혜 기업은 점진적으로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증대시켜야 함
 - 상공부는 최초 연도의 최소 국산부품 사용 비율 및 향후 적용 방안을 수립 (파라과이 부품산업의 현실을 감안, 조립 품목별로 탄력성 부여)

○ 환경보호 및 안전 의무

- 동법의 수혜 기업은 현존하는 환경보호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공부는 동 사항을 감독
- 특혜의 철폐 또는 감축
- 동수혜 기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본재,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사용 시 면제된 관세의 전액 납부 및 관세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상공부의 인가 후 12개월 기간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의 전액 납부. 단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일부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 Mercosur 원산지 규정

- Mercosur지역에 수출 시에는 Mercosur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파라과이산 부품(또는 역내 부품) 사용비율 50%를 충족시켜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0. 현지인들의 태도

- 현지 업계 및 노동조합 등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배타적 시각이 없음
 - 특히 이타이푸 발전소 및 야시레타 발전소 건설 때 현지업계가 외국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지 업체들은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추세
 - 노동자들도 외국기업의 양호한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선호

11. 외국인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법(Ley 60/90)에 의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는 지속 증가하여 왔음

12. 투자 시 고려사항

-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따라 큰 제약은 없음
- 전력·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투자여건에는 별 문제 없으나 연관 제조업 분야의 기반취약으로 제품생산업 진출의 경우 관련 중간재, 원부자재 조달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MERCOSUR시장을 목표로 한 진출분야 고려 및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생산제품에 대한 경쟁력 우위 업종 선택 (가죽가공, 낙농가공, 목재가공, 식용유 등)
- 근로자 권익보호의 노동법 체제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 주재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비용(통관대행수수료, 각종 행정서류 확인 대행료 등) 절감 방안 강구

□ 파라과이 투자 동기 유인

- 왜 우리는 파라과이에 투자해야 하는가?
 - 지난 10년간 파라과이는 연 평균 5%대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통화정책, 낮은 물가 상승률을 이루어냈음
 - 튼실한 금융제도, 투자장려를 위한 세법 그리고 균형적인 정부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음
 - 파라과이는 10%의 일률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바뀌지 않는 투명하고 안전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 무엇보다 파라과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ROI)을 제공하는 국가들 중 하나인 동시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나라

□ 파라과이의 대외투자 유치현황 및 투자환경

○ 파라과이가 투자유치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 (1) 투자자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법령체계 강화
- (2) 조세구조 및 조세행정 개선,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혜택 제공, 수출자유 구역에 대한 특례, 원자재 기업 및 관세면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무역·재정정책 개혁
- (3) 차량생산 및 조립업, 차량 부품업 등에 조세혜택 제공 등 국가 자동차 산업정책(National Automotive Policy)을 비롯한 제조산업 대상 조세유인제도 등의 노력을 들 수 있음(REDIEX- MIC, 2019)

4 세금제도

a) 민관협력계약에서의 재정안

- 재무부는 집행 가능하고 우발적인 약속의 평가 및 등록을 위한 회계 규칙을 발행해야 한다고 법률 제5102/2013호에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약속에 대한 업데이트된 관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재무부는 그러한 규칙들을 발행하지 않았음

b) 민관협력 프로젝트 조세체계

- 민관협력 프로젝트들은 조세법에서 설정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행해야 함
- 회계기준/재무보고서는 국제감사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기초한 파라과이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며 매년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b.1) 소득세

b.1.1) 법인 소득세(CIT, 스페인어로 IRE)

- 모든 파라과이 소득, 이익 또는 농업, 상업, 산업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경제적, 제1의, 제2의 그리고 제3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10% 법인소득세가 적용됨
- 자산, 권리 및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처분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소득 역시 과세대상 사건을 구성함
- 법인의 거주자 자격
 - 법인의 정관이 달리 기술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법적 거주자 자격은 지휘 또는 중앙관리가 발생하는 장소로 결정됨
-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s)
 - 지점 또는 에이전시(대리점), 공장/산업 플랜트/대규모 소 방목장 기업, 광산활동/기타의 천연자원 채굴 활동, 12개월을 초과하는 토목건설 또는 조립 활동

- 법인소득세는 파라과이의 영토 기준으로 부과됨
 - 국적과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들의 주소가 운영들에서 관련되거나 주소를 둔, 파라과이에서 사용된 경제적인 권리, 또는 파라과이에 위치한 재산, 파라과이에서 수행된 활동들로부터 유래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됨
 - 과세대상 소득은 경제활동들로부터 유래한 총 소득과 해당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초래된 원가 및 비용들의 차액임
- 외국회사의 지사(지점)은 국내 법인과 같은 세율(10%)로 과세됨
 - 본사로 이전된 이익은 해외 본사에 송금될 때 15% 원천세가 적용됨
- 배당소득 과세
 - 파라과이에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들, 법적 실체들과 다른 실체들에게 파라과이에 주소를 둔 실체들에 의해 지급된 배당 또는 이익에 법인 소득세에 의해 과세됨
 - 지불/송금 주체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액에 대해 세율은 8%, 해외에 거주하는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액에 대해 세율은 15%, 비거주 개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액에 대해 세율은 10%
-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 자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10%의 일반 법인 소득 세율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됨
- 법인 소득세율 요약

법인 소득세율	10%(최저한세 없음)
지점 소득세율	10%(단, 지점송금세율 15%)
자본 소득세율	10%

○ 법인의 이행준수 사항

- 과세연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달력 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지만 특정 산업들(생명보험, 음료 및 농업 산업들)은 특수한 다른 과세 연도를 사용하도록 요구됨
- 회사는 전년도의 세금 의무에 근거하여 5월, 7월, 9월, 11월에 선납해야 함
- 법인소득세 목적상 최소한 소득 신고서 및 대차대조표는 제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일은 납세자 식별번호(RUC)에 의해 과세연도 종료후 4개월째 달의 정확한 납부일이 결정됨
- 과태료(벌금) : 과태료(벌금)는 총 납부세액의 4%에서 14%까지이며, 월 이자율은 1.5%

b.1.2) 개인 소득세(PIT, 스페인어로 IRP)

- 개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이 2022년 1월 1일 현재 연간 36개월 최저임금 이상(2022년 1월 일 환율로 약 USD 13,000) 소득을 획득한 파라과이 거주 개인에 대해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됨
- 연간 소득이 5천만 파라니까지는 8%, 5천만 파라니에서 1억5천만 파라니까지 9%, 1억5천만 파라니 초과소득에 10% 적용됨
- 파라과이 영토안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이익 도출 및 해외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인정소득(서비스 금액)의 50%의 순이익에 대하여 20%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결국 (총소득에 대하여) 10%의 유효 세율이 됨
- 과세 대상 소득: 서비스 및 특정 투자로부터의 소득은 과세 대상임
 - 서비스 수입에는 급여, 상여금 및 기타 보수가 포함됨
 - 투자 수익은 파트너 또는 주주로서의 이익, 배당금 및 기타 이익을 포함하고;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또는 실체들에 의해 지불되는 그리고 금전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또는 기타 소득; 파라과이에서 사용되는 권리에서 파생된 로열티; 및 모든 기타의 자본 증가를 포함함

- 자본 소득은 가끔 있을 경우 8%의 세율로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 소득세 10%가 부과됨
- 자본이득에는 파라과이에 위치한 부동산(부동산 임대 포함)과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 파라과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지분, 파라과이에서 사용하는 권리 등이 포함
- 최대 이득은 자산 가치의 30%(부동산 임대의 경우 50%)임
- 공제 및 수당 : 파라과이의 원천소득을 창출하는 과세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국내 및 해외비용은 공제되며,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은 개인공제(교육, 건강, 의류, 레크리에이션 등)를 받을 수 있음
- 세무상 거주자 : 개인이 역년 내 또는 이전 12개월 동안 파라과이에 12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세무 목적상 개인은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됨

○ 개인의 이행준수 사항:

- 과세연도 : 달력 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신고기간 : 개인의 연간 소득이 해당 한계값을 초과한다면 각 개인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 및 납부 : 연간 소득세 채무는 연간 소득세 신고가 제출될 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이전 과세연도를 위해 각 년도의 3월), 납부일은 납세자 식별번호(RUC)에 의해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째 달의 정확한 납부일이 결정되며 개인소득세 예정납부는 없음
- 벌금(과태료): 벌금(과태료)는 총 납부할 세금에 4%~14% 부과되며, 여기에 매월 이자 1.5% 가산됨

b.1.3) 원천징수세

- 배당소득: 거주자 8%, 비거주자 15%; 거주자인 회사(법인)와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분된 배당금은 8% 원천세가 적용됨
 - 비거주 회사 (법인)과 비거주 개인에게 배분된 배당금은 15%의 원천세가 적용됨
- 수입이자: 거주자 0%, 비거주자 15%; 인정된 주식 시장을 통한 채권 해외 배치의 이자를 포함하여 관련 없는 비거주 공공 또는 민간 기업 및 다자간 신용 조직에 지불되는 대출 또는 신용 운영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 총액의 30%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
- 로열티(사용료): 거주자 8%, 비거주자 15% 원천징수됨
- 기술 서비스 수수료: 거주자 0%, 비거주자 15% 원천징수됨
- 지점송금세: 비거주 파트너, 주주, 모회사 또는 기타 관련 회사/기업에게 제공, 송금 또는 지급된 총액에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 기타 소득: 비거주자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지만 파라과이에서 이용되고 사용된 서비스는 파라과이의 원천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된 1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특정 국제 교통 서비스; 전화, 라디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전송 서비스;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총액의 30%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됨
- 한-파라과이 조세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배당 원천세 : 거주자 8%, 비거주자 15%
- 수입이자 원천세 : 거주자 0%, 비거주자 15%
- 사용료/기술서비스료 원천세 : 사용료(로열티)에 대하여 거주자는 8%, 비거주자는 15%, 기술 서비스료에 대하여 거주자는 0%, 비거주자는 15%

b.2) 부가가치세(VAT, 스페인어로 IVA)

- 과세거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과세 재화 및 서비스 수입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율
 - 일반세율(표준세율) 10%
 - 가정 바스켓으로부터 생산품들의 판매 및 수입, 일부 의약품, 농업/원예/ 과일 생산물, 주택 부동산의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감소된 5% 세율이 적용되고 수출에는 배타적으로 0%가 적용됨
 - 면세는 연료, 외화, 책, 신문을 포함함
 -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납세자 식별번호(RUC)에 따라 결정됨

c) PPP의 틀에서 수탁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

- 법령 제4183/2020호는 2020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PPP법 제5102/2013호의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규정들 중 하나는 법률 제921/1996호에 따라 PPP 계약에 대한 보증 및 유동성신탁기금의 신탁에 적용되는 세제와 일반 세제의 규칙을 의미
- 법률 제921/1996호에 따른 소득세
- 법인 소득세에 의한 과세 사건들
- 수탁사업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또는 수수료로 수탁자가 받은 소득
- 수익자 또는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수익은 다음과 같음
 - 어떤 이유로든 수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소멸될 때 금융수익, 이자, 배당, 수탁사업의 집행에서 과생된 재화와 자산의 기술적 가치평가 또는 그 밖의 소득에서 비롯되든 간에 신탁자산을 창출할 수익

- 단, 다음으로부터 오는 경우는 제외됨
 - 신용공여를 목적으로 하고 재산 양도자 또는 수익자가 국가인 수탁사업 또는 사회이익 또는 공공 유틸리티의 계획 및 프로그램 이행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의 공포 및 집행
 - 자발적인 희망퇴직 및 장애인 연금 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의무제도를 보완하는 수탁사업자의 공포 및 집행
 - 일반 투자펀드 또는 특수 투자펀드와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자의 공포 및 집행, 사회이익 또는 공공 유틸리티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자의 공포 및 집행
 - 파라과이 재무부, 다른 국가 기관 또는 파라과이 중앙은행에 의해 모든 기타의 방법으로 발행, 승인, 수용 또는 보증된 채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수탁사업의 공포 및 집행
 - 파라과이 재무부, 다른 국가 기관 또는 파라과이 중앙은행에 의해 모든 다른 방법으로 발행, 수용, 보증된 또는 에너지 활동의 개발, 기반 시설 공사, 서비스 제공
 -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정부의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경제, 사회, 건강, 교육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 및 관련 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채 증권으로부터 구조화된 칭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 비즈니스의 공포 및 집행
 - 자산 동원 또는 증권화 프로세스(유화)를 구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사업 개발에 발행된 유가증권의 투자
- 법률 제921/1996호 따라 부가가치세
 - 신탁의 자치 세습자산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자이며, 수탁자 세금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
- 과세표준은 자치 세습자산으로 이전되는 자산 가치의 1%가 될 것임
 - 자산이 위탁자에게 유리하게 자치적 세습자산에서 이전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파라과이와 한국 간 조약 현황: 파라과이와 한국 사이에 PPP나 유사한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유효한 조약은 없으며 양국 간에 연구 중이거나 협상 중인 조약은 발견되지 않았음

5 노동 관련 법

- 노동법 (법 제213/93호) 및 법령(decree) - 법 제1860/50호는 노동 및 사회보장 문제를 규정함
- 노동부 및 사회보장기관(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 Social Security Institute; 사회보장기관- IPS)는 노동 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 사무실
- 고용법(Employment Law)은 노동,고용, 사회보장부(Ministry of Work,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에 의해 감독됨

□ 근로자들이 계약하는 기간(주요 근로계약 유형 3가지):

(1) 무기한 고용계약(일반적으로 관리 직원이 이 범주에 속함):

- 가장 일반적인 고용계약 유형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고용계약해지에 합의할때까지 근무 또는 일방이 고용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제거를 정당화하고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동에 관여하거나 사직하는 근로자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질때까지 고용계약이 지속됨

(2) 확정 고용계약(업무 유형에 따라 2주, 주, 일, 시간, 계절)

- 명확한 완료일자를 가지고 특수 임무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누군가를 고용할 때와 같이 고용기간을 보증하는 경우 사용됨
- 사용기간은 명확하게 고용계약서에 기술되어야 함

(3) 학습 계약(수습계약)

- 특수한 일과 관련된 기술을 근로자가 배우도록 의도됨
-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개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발행됨
- 학습 계약은 주당 24시간 미만 동안 근로를 포함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최소 60% 급여를 포함해야 함

○ 근로일수

- 주간 근무의 경우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은 매일 8시간, 주중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주당 표준근로시간은 48시간)
-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보통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시작함)

- 야간 근무의 경우 주당 42시간이 표준 근로시간임

○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최대 7시간

○ 초과근로수당 : 직원의 표준 급여율에 추가 근무 시간에 기초한 추가 가산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함

○ 야간 또는 공휴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은 두 배로 지급됨

○ 연간 공휴일 : 9일 또는 12일

○ 급여: 법정 최저임금은 행정부와 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월마다 PYG 약 2,192,839으로 정해져 있음

- 당사자들은 더 많은 금액과 추가 혜택에 동의할 수 있음

- 연말 상여금, 가족 상여금은 노동법에 의해 직원의 권리로 부여됨

- 추가 근무 시간,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도 노동법에 의해 결정됨

○ 파라과이에는 의무적인 사회 보장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회사)는 그들의 근로자들을 등록해야 함

○ 사회보장 보험료 계산 기초는 연간 의무적인 보너스 및 가족 수당을 제외하고 현금 또는 현물 임금항목을 포함함

○ 사회보장기관(IPS):

- 고용주는 정해진 기간(3일) 내에 직원의 출입을 IPS에 통보해야 함
- 파라과이 고용법에 따라 의무 기여금 :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급여의 9%가 급여에서 공제됨
- 사회 보장 및 연금제도는 사회보장기관(IPS)로 알려진 사회보장 기금에 의해서 관리됨
- 고용주 역시 같은 목적으로 IPS에 근로자 급여의 16.5%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여하여야 함

○ 사회보장기여금은 매월 납부됨

- 고용주: 급여액에 대하여 16.5% (금융기관 회사는 17%)
- 근로자: 급여액에 대하여 9% (금융기관 근로자는 11%)

○ 종업원에게 추가혜택을 주는 기업들:

- 법 제285/93호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추가적인, 고용주의 근로자들에 혜택을 주는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정함
- 이러한 추가적인 금액은 사회보장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휴가는 연공 서열에 기초하고 있음

- 파라과이 고용법에 따라 같은 고용주와 1년의 고용을 완료후 근로자는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
- 5년까지는 매년 12일 유급휴가가 적용됨
- 5년초과 10년 미만 근속시 매년 18일 유급휴가 받을 자격이 있음
- 10년 이상 근속시 매년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
- 5년까지 : 12일 유급휴가
- 5년 초과 10년 미만 : 18일 유급휴가
- 10년 이상 : 30일 유급휴가

- 여성출산휴가 : 18주의 여성 출산 휴가 부여, 분만 중 합병증 또는 임신 중 질병의 경우 6주까지 연장 가능.
- 아빠육아휴가 : 14일 육아휴가 부여
- 입양의 경우, 아이 연령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양 엄마는 18주 출산휴가 가능, 아이 연령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입양 엄마는 12주의 출산휴가 가능
- 병가 : 질병으로 결근시 근로자는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음
- 하지만, 등록된 의사가 서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급 병가 비용은 정부 사회보장 기금에서 보장됨
- 경조휴가 : 직계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녀, 손자녀 포함) 사망시, 근로자는 3일의 경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
- 연간 보너스 :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처럼, 파라과이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12월에 지급되는 1개월치 급여에 상응하는 연간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
- 고용 해지 및 해고
 - 근로자의 실무수습기간(probation period) 동안 근로자는 통지 없이 자신의 고용계약이 해지되도록 할 수 있음
 - 실무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역할 유형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지만 때때로 매우 적극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6개월이 될 수 있음
 - 실무수습기간 외에 그리고 고용계약에서 정해진 중대한 위법 행위와 같은 해고를 보증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고용주들은 해고 통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고통지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범위로 변동됨
 - 일단 근로자가 10년의 근속을 완료하였다면, 파라과이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는 적당한 명분없이 근로자의 직무에서 제거될 수 없음

- 정리해고: 노동법에는 공정한 해고의 이유와 보상이 규정되어 있음
- 퇴직수당: 1년에 15일치 급여 지급
- 파라과이 고용법에 따라 1일전 통지로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음
- 해고예고: 고용주는 무기한 근로계약의 경우 반드시 예고해야 함
 - 수습기간 종료 후 최대 1년 : 30일
 - 1년 초과 5년 미만: 45 일
 - 5년 이상 to 10 년 미만: 60 일
 - 10년 이상: 90 일
 - 해고예고는 (해고하는) 고용주와 (사직하는)직원에게도 적용됨
- 고용안정: 같은 고용주에게 9년 5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법에 의해 “안정적/ 정규직(stable)” 으로 간주됨
 - 그들은 법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주로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높은 해고 및 보상 금액의 원인을 나타냄
- 공식 노동 의무 이행: 오늘날 노동 의무의 다양한 전달과 지불은 관련 행정 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짐

6 인적자원 정보

- 현재 학교의 구조는 30세 미만 채용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가능인구 구성과 유사함
- 교육 및/또는 훈련은 기술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간주되며, 이는 협력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기업의 시간과 자원에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함
- 모든 부문에서 현재 직업에 대한 수요는 주로 기술자나 검증 가능한 특정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임

- 파라과이는 젊은 인구를 가진 특권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 시장에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수요는 낮은 노동 흡수능력을 가진 부문들이 우세한 경제구조에 의해 조절됨
 -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부상하는 부문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구직자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자질로 특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늘날의 세계 수요와 그 기준에 대응해야 함
- 이 제안은 몇 년간의 연구와 거주지역 및 인구 부문별 준비의 불평등으로 낮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정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

V. 사례 연구

1 프로젝트 사업 현황(EPC, PPP, 비즈니스 등)

- 2013년 PPP법 제정 이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그 분석을 위해 제출됨
- 현재까지, 한 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현재 실행중에 있음
- 2017년 3월 14일 체결된 국도 2개 노선의 설계, 금융, 건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민관참여 계약 1호는 국도 제2호선과 국도 제7호선의 연장 및 이중화(두배로 확장): 이파카라이 - 코로넬 오비에도 (국도 2호선), 코로넬 오비에도 - Km183 (국도 7호선)⁵⁾.
 - 기간: 30년
 - 공공 형태. USD 507,000,000
 - SPC(특수목적법인): Rutas del Este S.A.(Sociedad Limitada) (루타스 델 에스테 유한 회사)
 - 부록 1번 2018년 12월 서명됨
- 이 사업은 법률 제5102/2013호 및 최근 법령 제4183/2020호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Decree) 제1350/20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음
- 승인되고 실행중인 사업: 국도 6호선(Route 6)
- 연구/조사 중인 사업: Hydrovía(waterway,수로), Route 1(국도 1호선), Alto Paraná Sanitation(알토 파라나 위생시설)
- 방향 변경(Reoriented) 사업: 2개의 위생시설 사업, 2개의 교도소, 1개의 LRT Ypacaraí-Asunción, 법 제5,074/14호로 설립되고 법 제5,396/15호 및 법 제117/91호에 의해 수정됨
- 각하된 사업: Silvio Pettrossi(실비오 페티로시) 공항. Government desistance(Government distance)

- 다음 민간 발의 PPP 프로젝트들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음:
 - 연구/조사 중이고 PPP법 51조 비밀준수 조항이 붙은 사업: 민간 제안자와의 교환 프로세스로 그의 이니셔티브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 (2개 프로젝트)
 - 각하된 사업: 전력 송전, 교도소, 계량시설, 도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PPP 특징을 보유하지 못해서 각하 (15 프로젝트들)
 - 제안자가 철회한 사업 : Benito Roggio(베니토 로지오) 와 Tape Porá(타페 포라)가 제안한 사업들(경제적-재무적 모델 측면 때문)

2 사업 성공 및/또는 실패 요인

- 많은 프로젝트가 PPP 모델의 특성이 아니거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됨
- 경제-금융 모델과 관련된 측면으로 인해 사업 제안자들이 철회한 프로젝트도 있었음
- 학습 교훈:
 - PPP 프로젝트 이행 시한에 대한 잘못된 기대
 - 소통전략 부재는 여론 오해의 원인이었다.
 - 사용될 양식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 필터의 필요
 - 훈련된 인력의 유지 능력 부족
- 입찰 단계에서:
 - 입찰서류 및 입찰 조건들에 대한 많은 부록
 - 계약 관리 상황보고(자문) 개선 필요
 - 사전 자격을 갖춘 당사자의 수가 많으면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제안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함

5) <https://nube.stp.gov.py/index.php/s/p24FIJ83Qc4Gd2I#pdfviewer>

○ 법령(Decree) 제4183/2020호:

- PPP 사업에서 얻은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최근 법령 제4183/2020호가 발표되어 법령 제1350/2014호의 많은 개선사항이 소개되었음
- 예를 들어, 사전자격을 갖춘 당사자들 간의 경쟁적 대화의 도입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리스크의 분배가 효율적이도록 시장과 이러한 문제에 전문화된 행위자들에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수익성이 창출
- PPP 계약을 수정하는 재협상 및/또는 금융 적격성(bankability) 부록을 피하기 위해 그것의 개념으로부터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그것은 또한 공공 부문의 프로젝트 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할 간 단계와 승인을 단순화하는 것을 추구함
- 재무부에 따라 국가가 스스로 약속하는 미래의 강한 우발적인 지급의 기록을 하고 다른 이슈들 중에서 공공 투자의 일반 방향과 순조롭게 신용 및 공공 부채의 방향을 통해 시작됨
- 공공 및 민간이 발의한 PPP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대한 더 큰 간섭을 줌

○ 법령(Decree) 4183/2020호에 의해 도입된 주요 변화의 요약:

○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구조화와 이행을 구성하는 특정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정의가 추가되었음

○ “금융종결” : 특정 목적 회사 - SPC(또는 스페인어로 약자 “SOE”)와 해당 금융업자들 간에 서명한 모든 금융계약 계약 또는 협약의 서명

- 이에 따라 SPC가 PPP 계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획득할 자금 조달 또는 총 금융 조건이 명시됨

○ “경쟁적 대화” : 계약 관리 행정당국과 선정된 사전 자격자 간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으로 입찰 명세서 초안(또는 PBC)

- PPP 계약 제안서 및 공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선행 사항과 같은 입찰 문서와 관련하여 개선, 추가, 조정 및 조화, 기술,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제안서의 협의 절차와 접수가 수행되는 과정을 통합
- 계약 관리행정 당국의 재량에 따라 PPP 프로젝트의 다른 관련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준수하여 통합되거나 통합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절차는 필수이며 사전자격 확인 통화 후 입찰 공고 전 단계로 통합됨
- “가변기간” : 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 이전에 발생한다면 입찰 시방서에서 정한 더 낮은 수익의 현재가치(VPI) 와 같은 경제 금융 이슈와 관련된 특정 변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기간
 - PPP 프로젝트는 장기계약이며, 스폰서가 기대수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개념의 통합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위험 프로파일을 감소시키며, 계약은 NPV로 제공된 총수입이 충족될 때까지 유효해야 함
 -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이런 유형의 가변기간의 양허는 일정 기간 수익이 줄어드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사업의 수명을 예상보다 연장할 수 있어 재협상 위험을 완화함
- “건설단계” : 프로젝트의 각 단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이정표가 명확함
 - 운영단계가 시작되는 일자와 공사 시작 주문 사이에 경과된 기간
 - 임시 운영단계는 건설 중에 서비스에 투입되는 기능 섹션으로 인해 이 단계 내에 있을 수 있음
- “준비단계” : PPP 계약 서명과 건설단계 시작 사이의 기간
- 공공투자총국(경제부 차관에 의존): PPP 사업의 단계별 평가와 기타 관련 평가(다른 것들 중에서도 위험 분석, 경제성 제안(가격) 평가, 민자사업 적격성(VfM) 조사의 검토, 경제/재무 모델 등)를 담당하며 재무부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됨
 - 이에 더하여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종속성을 가진 이 문제와 관련된 기능 및 업무를 조정함

- 마찬가지로, 재무부는 새로운 규정에서 예측되지 않은 측면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경쟁적 대화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참여자 명단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 적격심사 단계를 의무적으로 포함함
- 컨소시엄은 사전 적격심사 단계까지만 허용된다는 점도 신설됨
 - 사전 적격심사 요구와 입찰 사이의 기간부터 과정을 따를 수 있는 잠재적 금융업자들의 참여가 허용됨
 - 이는 실제 시장 테스트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결국, 과거에는 발생했던 재협상이나 텅빈 입찰을 피하기 위함

□ 파라과이 인프라 시장 진출은 성공법으로

- 2013년 8월에 출범한 카르테스 정부는 올해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신정부에서 발주한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일성건설이 수주 (7,800만 달러)하는 쾌거를 이뤘고,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코트라이에서 주최한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에 참가하기도 함
- 카르테스 정부는 공정한 입찰 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인프라 시장의 개혁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기존에 자국 건설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입찰 예상가격 이상으로 견적을 제시해왔고, 계약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국제입찰을 통해 인프라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연초 8번 국도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입찰로 실시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국제입찰 확대 방침은 확고함
 - 기존에 소수의 장비로 여러 가지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가 지연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기업들의 주요 장비 보유 여부도 중시하고 있음

- 국제발행 자금, IDB, CAF 자금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먼저 발주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PPP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법(5074법안)을 기본으로 한 도로, 폐수처리공장 설립 등의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전망
- 파라과이 시장은 원거리와 언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들에게는 아직 조심스러운 시장일 것임
 - 그러나 파라과이와 대만간 돈독한 외교 관계로 인해 중국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파라과이 정부 차원에서는 스페인, 브라질 및 주변국 기업들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것도 다소 조심스러울 것
 -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파라과이의 전략적인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기업인 출신 파라과이 카르테스 대통령 및 장관들은 외국기업과의 면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위 브로커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위층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파라과이는 외국기업들이 직접 장관실에 공문을 보내서 면담을 잡을 수 있는 곳이므로, 소위 브로커의 능력으로 통하는 대통령이나 장관 면담 주선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능력은 아님
 - 특히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인 공공사업통신부의 경우, 공정한 입찰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유명 정치인을 통한 편법 등이 통하지 않는 부처
- IDB, CAF 등 파이낸싱 기관에 따라서 몇 조항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 입찰이 유사한 입찰조건을 제시함
 -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기본 입찰요건과 준비서류를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함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찰 최저가 제시 기업이 낙찰되므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임

- 파라과이의 변화를 이끌어갈 프로젝트 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정공법을 선택하길 권함

□ 2022 파라과이 진출전략

- 2023년 대통령 후보 선출
- 경기부양책 인프라 발주 (프로젝트 · 공공조달)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파라과이 비즈니스 환경분석
 - 파라과이 마리오 압도 베니떼스 정부는 2022년에도 중환자실을 175% 증설하여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병원의 장비, 물품 등 의약품 제공, 12,000명의 전문가 고용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 국제 신용등급 상승에 힘입어 외국 기업 투자유치가 확대될 전망
- 파라과이 시장분석
 - 코로나19 확대로 비대면 구매,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 국경무역 도시인 CDE와 Encarnación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자유로운 입출국으로 국경시장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
- 파라과이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현황) 자동차, 의료기기, 식료품 등 제조산업 정책 수립 지원
 - (향후 제안 방향) ICT, 교육, 에너지 인프라 분야 진출 필요
- 파라과이 진출전략
 - (수출마케팅)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K-방역 품목, 프리미엄 소비재 진출 확대
 - (투자진출) 마킬라 제도를 활용,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프로젝트 진출) 코로나 이후 정부 중점 인프라 사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ICT 산업,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 참가

VI. 현지 주체 및 PPP 참여 역량

□ 요약

□ 주요 공공 주체들:

- 계획 및 경제 및 사회개발 기술 장관(스페인어 약자용 STP)
 - 공공 민간 참여 프로젝트의 일반 총국(스페인어 약자로 DGPPPP)
 - 공공 민간 참여 프로젝트 부서(스페인어 약자로 UPPPP)
- 재무부
 - 공공 투자 국가 시스템(스페인어 약자로 SNI)
- 공공사업통신부(스페인어 약자로 MOPC)
- 프로젝트 당국 집행 위원회 구성:
 - 재무부 장관,
 - 공공사업통신부 장관
 - 계획 및 경제 및 사회개발 기술 장관의 사무총장
- 집행부
 - 모든 현지 주체들과 참여 역량:

(i) 공공사업통신부

- PPP법은 공공사업통신부를 하천의 준설과 신호, 공항을 포함하는 교통 및 통신로 분야의 민관참여사업의 개발, 선정, 낙찰 및 시행을 관할하는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분산형 실체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통신부는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를 대체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권한을 떠맡아야 함
 - 법에 규정된 제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은 집행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해져 있음

(ii) 계약 당국

- 법은 일반적으로 PPP 프로젝트의 규제 절차와 원칙을 확립함
 - 그것은 또한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관할 당국이 PPP 계약의 구조화, 선정, 낙찰 및 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자에 의해 떠맡은 의무의 이행과 PPP 계약의 정확한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 당국은 프로젝트의 사전 적격심사, 분류 또는 낙찰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과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음
- 어느 정도, 규제는 PPP 사업의 통제와 시행 측면에서 일종의 분권을 확립하는 것처럼 보임
 - 하지만 법은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리 기관이 기획부 기술 장관의 민관 참여 프로젝트 부서와 각 프로젝트의 시행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iii) 기획부 기술장관

- 이 법은 PPP 프로젝트의 “개발 및 적절한 기능을 위한 계획, 정책 및 표준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당국으로 기획 기술 장관을 신설함
- 또한 기본 및 조건의 일반 사양(시방서)을 개발하고 특정 사양의 준비와 입찰자 선정 과정에 대해 계약당국에 조언함
- 법은 기획부 기술 장관이 6개월마다 집행부와 입법부에 각 사업에서 시행된 메커니즘과 투명성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와 검증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또한 법무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국가 공공조달국 포털에 게시되어야 함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실무적인 목적을 위한 기획부 기술 장관 (이하 STP)의 전문 부서가 만들어졌음

(iv) 재무부

- 재무부는 “재정 위험과 영향의 배분 평가”와 “확실하고 우발적인 미래 지급의 재정 일관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또한 재무부는 THEPS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부감사를 고용해야 함
 - 1. 계약의 우발적 및 확정적 부채의 통제
 - 2. 사업 대상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해서는 후자가 국제 감사여야 함

(v) 공화국 법무장관실

- 법무장관실은 그 법에서 특정한 기능을 부여받지 않음
 - 규정 법령에서는 기본 사양 및 기본조건의 공표, 계약 체결, 민간 참여자가 제기한 보상 또는 보상 요구,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협의 기관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이 법령은 위에서 설명한 기능 외에도 법무장관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여 사전 적격심사, 적격 또는 낙찰 결정에 대하여 행해진 도전과 관련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작용함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계약당국에 의해 이루어짐

(vi) 파라과이 중앙은행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PPP 프로젝트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준비단계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보고서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그렇게 하도록 요구될 때 중앙은행에 전달해야 함
- 또한 승인된 각 프로젝트의 연간 기금 잠정 지출 일정, 계획된 투자 총액 및 타당성 조사를 중앙은행에 전달해야 함
- 마지막으로, 다음 회계 기간으로 계획된 지출 초안에도 목록이 보내져야 함

(vii) 국가 공공조달국

- 이는 파라과이의 PPP 규제에서 부각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로 보였음
- DNCP는 가장 유능하고 투명한 국가 기관 중 하나이므로 PPP 프로젝트에 수행하는 모든 일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반적으로 입찰 자체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와 그에 의해 결정되는 낙찰, 사전적격심사, 입찰에 대한 문제에 관련되는 과정들에 DNCP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임
 - 이것은 PPP 입찰 과정에 더 큰 투명성을 부여하는 데 이상적일 것

(viii) 지방 자치 단체 및 부서 정부

- 법은 지방 자치 단체와 부서 정부를 완전히 배제함
 - 그들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때 국가가 받는 지불금의 2%를 받는다는 것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참고 자료임
-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PPP가 MOPC에 양도되기 때문에 법률은 이를 규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임
- 다른 국가 당국처럼 PPP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촉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답이어야 함
-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법 자체에 따른 중앙정부기관의 PPP 사업에 대한 개입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ix) 특수 대상 및 신탁회사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민간 참여자가 과반수 주주여야만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PPP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법은 민간 참여자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 특수 목적 회사의 형태를 규정함
 - 그 회사의 기간은 계약기간에 공사 및 수행될 서비스를 위한 보증 기간 및 2년을 가산하여야 한다. 회사는 익명회사로 설립되어야 함

- 설립 당시에 특수목적회사의 통합자본은 입찰기준이 다른 최소 금액이나 비율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계약당국에 의해 추정된 공식예산의 20% 해당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함
- 주식 자본은 항상 지명 주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지분 또는 통합은 회사의 개시 대차대조표 또는 각각의 사양에 의해 결정되는 다른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확립되어야 함
- 마찬가지로, 이 사양은 프로젝트에서 취급되는 모든 자원이 프로젝트에 연계된 모든 현재 및 미래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 신탁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의무를 설정할 수 있음
 - 법은 국가 기관과 법인이 신탁 또는 신탁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민간법인으로 구성되거나 구성된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탁의 자영업자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x) 공기업 협의회

- 이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종합적인 행정이라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 수행. 이 협의회는 공화국의 재무부, 공공사업통신부, 산업통상부, 법무장관실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협의회는 공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공기업과 파라과이 국가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및 공공 유한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PPP 프로젝트의 분석에 관여함

□ 파라과이 주요 건설회사들

- Implenía SA. : 본사 아순시온,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에 중점을 둔 파라과이 회사
 - 파라과이 전역에서,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고객에 대한 우수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구현하며 건설 분야의 리더

- Fortaleza S.A.: 본사를 아순시온에 두고 있는 1992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27년의 경험과 꿈을 이룬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회사
- Jiménez Gaona y Lima S.A.: 본사를 아순시온에 두고 있는 1967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1967년부터 현재까지 우수한 인프라 및 토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라과이의 건설 회사
- CONSTRUPAR S.A.: 본사를 산안토니오에 두고 있는 1972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1972년 7월 31일에 토목 및 도로 건설에 전념하여 설립된 회사로, 1972년 7월 31일에 유한 책임 회사로 처음 설립되었음
 - 이후 파라과이의 성장과 가속화된 발전으로 인해 1994년 8월 26일 LIMITED COMPANY로 전환되었고 이후로 건설 업계에서 수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험을 얻음
 - 건물, 주택 단지, 빗물 배수관 및 하수관, 식수 본관, 도시 포장 도로 및 여러 고속도로의 건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수행되는 작업은 Construpar를 파라과이 환경에서 가장 자격을 갖춘 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음
- Vidriocar S.A.: 직원수 1000명 이하, 본사 페르난도 델 라 모라 (Fernando de la Mora), 1977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5년 이상 산업화 공정 혁신의 길을 걸어온 안전유리 가공 회사
 - 파라과이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있는 본 회사는 기술 및 인프라의 국제 표준에 따라 매일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부문의 진화에 참석
 - 비즈니스 전략, 혁신 철학 및 문화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개선은 시장에서 절대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만듦
- TOCSA S.A.: 직원수 1000명 이하, 본사 아순시온, 1987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기반 시설 공사의 주요 파라과이 회사 중 하나
- 30년 이상의 경험과 2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회사는 파라과이 개발에 참여해 왔음
- 도로 건설, 제방 및 예술 프로젝트 실행 분야의 리더. 전략적 결정으로 전기, 토목 및 유압 인프라 작업을 수행하고 중장비 임대 및 광산 개발을 수행하는 새로운 작업 분야에도 진출함
- Yguazú Cementos.: 직원수 500명 이하, 본사 아순시온, 2020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시멘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가 발전을 촉진함
- VMA Siderúrgica.: 직원수 500명 이하, 본사 빌라 하예스(Villa Hayes), 2018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파라과이 철강 산업, 열연 강봉 생산업체. 금속 재활용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산업
- EDB Construction Inc.: 직원수 500명 이하, 본사 아순시온, 1970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파라과이 엔지니어링 회사로 도로, 교량, 고가교, 고속도로 및 하수 배수 네트워크, 폭풍우 배수 네트워크, 전기 네트워크 부설, 공항 및 건축 작업을 위한 모든 관련 작업의 도로 건설을 전문으로 함
 - 본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자체 기계, 장비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전국 각지에 건설된 우리의 공사실적은 시장에서 50년 이상의 우리의 업적을 보장함
 - 높은 기술 수준의 교육, 지식 및 경험을 갖춘 파라과이 전문가, 기술자 및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견고성과 내구성은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결정 요소
- Tecnoedil S.A. (Tecnoedil) : 본사 아순시온, 1978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도로, 토목공사, 항만공사 등 참여

- Ocho A S.A. : Ocho A S.A.는 파라과이 카피아타에서 1976년 7월 12일 도로, 교량 및 하수도 건설에 전념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음
 - 그 이후로 30년 이상 엔지니어링 서비스 활동을 통해 오늘날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도로 공사 외에도 토목 및 전기 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파라과이에서 가장 번창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 파라과이, 도로 건설 분야에서 국제 표준 ISO 9001에 따른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 획득함
- Concret Mix : 1960년대 후반에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설립
 - 곧 모든 유형의 토목 공사, 도로 및 고속도로, 댐, 처리 공장, 수로, 위생 시설, 전기 기계 설비, 건물, 채석, 쇄석 생산, 시멘트 제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요한 회사가 되었다.
- Ecomipa(Empresa Constructora Minera Paraguaya S.A) : 본사 아순시온, 1975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국도, 고속도로, 교량 건설, 광산 채광
- Roggio(Benito Roggio e Hijos SA) : 본사 아순시온, 1974년 설립된 파라과이 국적 건설회사
 - 아순시온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을 건설하였으며 국도, 고속도로, 주택, 산업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음

□ 주요 외국 건설회사들

- Sacyr(스페인) : 1986년 설립된 SACYR S.A.는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스페인 인프라 운영 업체이자 개발자 회사
 - Sacyr(사시르)는 세계 4대 PPP Developer, 4대륙 20개국에서 고속도로, 병원 등 인프라 개발사업을 수행
 - 2020년 매출 45.48억 유로, 순이익 2억36백만 유로
 - Itinere chille(나중에 Sacyr Concesiones Chile가 됨), Sacyr Chile는 Soc. Conces. Autopistas Metropolitanas S.A를 만들어서 Americo Vespucio 남쪽 고속도로 24km 양허를 수주하였음

- Mota-Engil(포르투갈) : Mota-Engil은 2000년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설립된 토목 건설, 공공 사업, 항만 운영, 에너지, 양허/PPP사업, 폐기물, 광산 채광, 물 및 물류 분야의 포르투갈 그룹
- Vinci(프랑스) : 세계 120개국에서 활동중인 다국적 건설회사;
 - 양허/PPP사업, 에너지 등 다양한 건설활동 수행함. VINCI(방시)는 1908년 설립된 프랑스 최대 건설사로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운영 사업을 확장함
 - 100여 개국에서 2,100개의 자회사를 통해 도로·공항 분야의 사업개발 및 운영사업(Concession Business)을 영위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프랑스 유료 도로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유럽 등 세계 각 국에서 4,400km의 도로 운영사업을 하고 있음
 - 공항 사업은 영국, 일본을 포함하여 12개 국가에서 45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 및 철도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음
 - 2019년도 매출액이 390억 유로(약 한화 51조)에 달하며, 운영사업은 85억 유로로서 전체 매출액의 약 22%를 차지함
 - 2008년 터키 유라시아 터널 사업 입찰에서 한국의 SK에코플랜트와 경쟁하였고 우간다의 캄팔라-진자 고속도로, 미얀마 양곤 고가고속도로, 노르웨이 RV-555 도로 사업 등에서 한국팀과 사업권을 놓고 경쟁한 이력이 있음
- Iridium(스페인) : 건설, 양허 및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참조기준이 되는 회사이며, 모든 형태의 토목건설 프로젝트, 건축 프로젝트, 인프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페인 ACS Group의 자회사
 - “greenfield” 인프라의 조성, 개발, 건설을 담당. Iridium은 스페인 시장에 존재하며 북미(미국 및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칠레, 페루에서 양허를 보유하고 있음
- Corporacion America Airports(룩셈부르크) : 모회사 Aci Airports S.A.R.L., 1998년 설립,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민간 공항 운영회사 중 하나
- Jan de Nul(안데눌, 룩셈부르크) : 해양 및 강 준설 세계적 전문회사

- Queiroz Galva(브라질) : 부동산개발, 환경공학, 탐사, 생산, 사업관리 등
-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PPP 전문기관
- 현대엔지니어링 : 종합건설회사, EPC 건설, 디벨로퍼
- 국가철도공단 : 철도사업 타당성분석, 마스터 플랜, 철도 운영
- 계룡건설산업 : 종합건설회사, 도급건설, 디벨로퍼
- LS 일렉트릭 : 전선 케이블 제조, 신재생에너지, 전기/신호제품 등
- 현대로템 : 철도 객차 제작 외